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A Study on Strategies for Developing
Coastal and Marine Tourism in the Island:
Focusing on demand response through
analysis of tourism behavior

2018. 12.

홍장원 | 윤인주 | 최일선 | 이정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최일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이정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연구원
박지영 영남대학교 연구교수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홍장원 연구총괄, 제1장 일부, 제3장 제1절 일부,
제4장 제1절~제2절, 제5장 제2절

연구진 |

윤인주 제1장 제4절 일부, 제3장 제1절 일부, 제4장 제3절
최일선 제1장 제4절 일부, 제2장 제1절~제2절, 제3장 제2절~
제3절
이정아 제1장 제4절 일부, 제2장 제1절~제3절, 제5장 제1절

외부집필진 |

박지영 제2장 제3절 일부, 부록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양위주 부경대학교 교수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심진범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국민들에게 여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쉽표 있는 삶’을 정책 기조로 표방하면서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과거에는 물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도서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내륙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휴식과 쉼, 가치 소비 등 관광 트렌드의 변화도 도서지역 관광 수요가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소비자의 수요와 도서지역 관광 여건을 고려한 정책 방안 마련은 다소 미흡했다. 우리나라 도서지역 관광 정책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이들 부처는 소관 업무 영역에 따라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광 관련 조직의 분산으로 인한 업무의 연계성 및 통합성 저하, 성과 측정이 용이한 기반시설 정비 중심의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일변도, 시장성을 확보한 도서지역으로의 정책 지원 집중 등 기존 도서지역 관광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도서지역 관광 수요자의 이용행태 분석에 초점을 맞춰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서관광의 수요자 측면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관광수요와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도서관광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관광의 특징을 분석하여 도서지역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상품 다양화 방안과 해양관광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친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연구를 수행한 홍장원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으로 참여한 윤인주 부연구위원, 최일선 전문연구원, 이정아 연구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주신 김성귀 박사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여러 자문위원께도 지면을 통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우리나라 도서지역 해양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성화 방안 마련과 친수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18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양 창 호

목차

❖ 요약 · i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4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5
2. 연구방법	5
제4절 선행연구 검토	7
1. 도서관광 관련 정책연구	7
2. 도서관광 관련 학술연구	11

제 2 장 도서지역 관광 동향 분석 · 21

제1절 도서지역 기초현황 분석	21
1. 국내 도서 현황	21
2. 국내 도서정책 현황	26
제2절 도서지역 관광정책 분석	32
1. 중앙부처 도서관광 관련 정책 동향	32
2. 지자체 도서관광 관련 정책 동향	37
제3절 국외 사례 분석: 일본의 도서지역 정비·활성화 정책	42
1. 일본의 도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42
2. 일본 도서관광 정책	56
3. 시사점	65

제 3 장 도서지역 해양관광 도입여건 분석 · 67

제1절 도서지역 관광 트렌드 분석	68
1. 도서지역 방문 수요	68
2. 도서지역 방문 특성	72
3. 도서지역 관광상품 분석	82
제2절 도서지역 해양관광 실태 분석	87
1. 기존 도서관광 실태 분석	87
2. 조사설계	89
3. 도서관광 실태조사 결과	94
제3절 종합분석	119
1. 도서지역 이용 특성	120
2. 도서지역 해양관광 행태 특성	121
3. 시사점	123

제 4 장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마련 · 125

제1절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기본방향	126
제2절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마련	127
1.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	127
2. 도서지역 관광이용성 향상	134
3. 도서지역 해양관광 상품성 강화	138
4.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사업	141
제3절 도서지역 해양관광발전 정책 수단 정비	148
1.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148
2. 도서지역 해양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 마련	150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57

제1절 결론	157
제2절 정책제언	161
1. 도서지역 해양관광활성화 중장기 전략계획 마련	161
2. 도서관광 활성화 지원체계 강화 및 조직 신설	164
3.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모델 구축	165

❖ 참고문헌 · 167

❖ 부록 · 179

1. 도서지역 해양관광 실태 설문조사지	176
2.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전문가 설문 조사지	184
3. 일본 국토교통성 이도진흥 관련 사업	191
4. 일본 이도진흥 관련 기관 현황	200
5. 일본 도서관광 관련 기관 리스트	203

표 목차



〈표 1-1〉 도서 관련 선행 연구	13
〈표 1-2〉 주요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8
〈표 2-1〉 도서의 개념	22
〈표 2-2〉 전국 도서 현황	23
〈표 2-3〉 시도별 도서 현황	24
〈표 2-4〉 전국 유인도서 현황	24
〈표 2-5〉 면적기준 상위 10위 유인도서 현황	25
〈표 2-6〉 지방청별 연안여객선 현황 및 수송실적	26
〈표 2-7〉 도서 관련법 현황	28
〈표 2-8〉 도서종합개발계획 주요 내용	28
〈표 2-9〉 우리나라의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	31
〈표 2-10〉 중앙부처 도서지역 주요 관광사업	33
〈표 2-11〉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주요사업 내용	34
〈표 2-12〉 해양수산부 섬 관광 지원 사업	37
〈표 2-13〉 경상남도 도서권역별 개발구상 방향	39
〈표 2-14〉 일본의 이도진흥법과 해양기본법 비교	43
〈표 2-15〉 일본의 도서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내용	45
〈표 2-16〉 섬 바람 구상의 내용	49
〈표 2-17〉 국토교통성의 이도진흥 관련 사업 및 세부 내용	53
〈표 2-18〉 체재교류형 관광을 통한 낙도창생계획의 구체적인 조치 및 사례	58
〈표 2-19〉 '이도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한 제언'의 세부 내용	63
〈표 2-20〉 '이도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한 제언'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제언	65
〈표 3-1〉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의 관광자원	77

〈표 3-2〉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의 선박 이용 여건	78
〈표 3-3〉 대표적인 도서관광 상품 개요	83
〈표 3-4〉 무인도서 관광상품 사례	86
〈표 3-5〉 도서관광 실태조사 설문지 주요 변수	90
〈표 3-6〉 도서관광 실태조사 설계	91
〈표 3-7〉 도서관광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92
〈표 3-8〉 응답자 특성	93
〈표 3-9〉 지역별 도서관광 발전을 위한 필요사업 순위	114
〈표 4-1〉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사업	142
〈표 4-2〉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사업 대/중항목 우선순위	143
〈표 4-3〉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세부 사업별 우선순위	145
〈표 4-4〉 섬 정책 주관부서	147
〈표 4-5〉 섬 관련 정책사업	147
〈표 4-6〉 섬 관련 부처별 정책사업 영역	148
〈표 5-1〉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16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절차	6
〈그림 2-1〉 도서정책 패러다임 변화	27
〈그림 2-2〉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34
〈그림 2-3〉 해양수산부 섬 관광화 사업	36
〈그림 2-4〉 전남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	37
〈그림 2-5〉 경상남도 도서권역간 관계도	40
〈그림 2-6〉 충청남도 도서 유형별 발전방향	41
〈그림 2-7〉 이도진흥법 흐름	46
〈그림 2-8〉 아이란다 홍보물 및 행사 전경	51
〈그림 2-9〉 시맛칭구 홈페이지와 사업 참여 도서	51
〈그림 2-10〉 시맛칭구 교류회 전경	52
〈그림 2-11〉 ‘시맛칭구 페스타 2016’ 전경	52
〈그림 2-12〉 일본 여객선 이용 활성화 사업 사례	60
〈그림 2-13〉 도서지역 빈집 활용 관광상품 사례	61
〈그림 2-14〉 도서와 육지의 인적·물적 교류 사업	61
〈그림 2-15〉 도서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활용한 사업	62
〈그림 3-1〉 도서지역 방문수요 증가 추이	68
〈그림 3-2〉 연안지역별 도서지역 방문 특성 분석	69
〈그림 3-3〉 도서지역 방문 권역 분포	71
〈그림 3-4〉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33섬, 2016~2018)	72
〈그림 3-5〉 주요 도서지역 방문목적 분석 절차	73
〈그림 3-6〉 도서지역 방문목적 분포	74
〈그림 3-7〉 도서지역 방문 배경(인기 토픽) 분포	75

〈그림 3-8〉 월별 도서관광객과 해양관광객 분포(2014~2017)	76
〈그림 3-9〉 국내 여행에 따른 여행지출비용	80
〈그림 3-10〉 국내 도서관광 상품의 여행비용 분포	81
〈그림 3-11〉 도서지역 관광상품 예시	85
〈그림 3-12〉 무인도서 관광상품 예시	86
〈그림 3-13〉 국내 도서관광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	94
〈그림 3-14〉 도서관광 감성 이미지	95
〈그림 3-15〉 해양을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감성	95
〈그림 3-16〉 방문 도서지역 및 도서명	96
〈그림 3-17〉 도서관광 시기 VS 해양레저·관광 시기	96
〈그림 3-18〉 도서관광 동기	97
〈그림 3-19〉 도서관광 선택속성	98
〈그림 3-20〉 도서관광 형태	99
〈그림 3-21〉 도서관광 동반 유형 및 동행자 수	99
〈그림 3-22〉 도서관광 경비	100
〈그림 3-23〉 도서관광 정보 습득경로	100
〈그림 3-24〉 도서관광 교통수단	101
〈그림 3-25〉 도서관광 이동시간(항구→섬)	102
〈그림 3-26〉 도서 내에서 즐기는 관광 활동 형태	102
〈그림 3-27〉 기존 해양레저관광 활동 형태 분석	103
〈그림 3-28〉 도서 내 체류시간	103
〈그림 3-29〉 도서관광 시 숙박여부	104
〈그림 3-30〉 숙박일수와 시설	104
〈그림 3-31〉 도서관광 만족도	105
〈그림 3-32〉 향후 도서관광 의향	106
〈그림 3-33〉 향후 도서관광 희망 지역	106
〈그림 3-34〉 도서관광 제약요인	107
〈그림 3-35〉 도서관광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	108
〈그림 3-36〉 도서관광 발전을 위한 사업	109
〈그림 3-37〉 지역별 도서관광 시기	110

〈그림 3-38〉 지역별 이동수단(도서 내)	110
〈그림 3-39〉 지역별 항구에서 도서까지의 이동 시간	111
〈그림 3-40〉 지역별 도서 체류시간	112
〈그림 3-41〉 지역별 도서관광 숙박 장소	112
〈그림 3-42〉 지역별 도서관광 경비	113
〈그림 3-43〉 개인/단체여행별 도서관광 시기	115
〈그림 3-44〉 개인/단체여행별 이동수단(도서 내)	115
〈그림 3-45〉 개인/단체여행별 도서 체류시간	116
〈그림 3-46〉 개인/단체여행별 도서관광 경비	116
〈그림 3-47〉 당일/숙박여행별 도서관광 시기	117
〈그림 3-48〉 당일/숙박여행별 이동수단(도서 내)	118
〈그림 3-49〉 당일/숙박여행별 이동 시간(항구→도서)	118
〈그림 3-50〉 당일/숙박여행별 도서관광 경비	119
〈그림 3-51〉 도서지역 관광 제약요인 비교 분석	124
〈그림 4-1〉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향	127
〈그림 4-2〉 일본 도서지역 생활체험 및 섬 박람회 홍보 사례	129
〈그림 4-3〉 일본 도서지역 교류 및 창업컨설팅 사례	136
〈그림 4-4〉 도서지역 편의시설 안내체계 개선	137
〈그림 4-5〉 일본 도서지역 고택시설의 리모델링 사례	138
〈그림 4-6〉 무인도서 생태체험·이벤트 상품 운영 사례	139
〈그림 4-7〉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 도출과정	141
〈그림 4-8〉 도서지역 해양관광 상품성 강화부문의 상대적 중요도	144
〈그림 4-9〉 섬 발전을 위한 정책 주관부처	146
〈그림 4-10〉 제주 우도 관광도서 언론 이슈	151
〈그림 4-11〉 도서지역 해양관광자원/상품 운용체제 마련	153
〈그림 4-12〉 국내 해양관광 상품 개발 및 창업지원 사례	154

요약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목적

-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서지역 해양관광 여건과 도서지역 관광행태 및 관광활동 제약요인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양자원과 공간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발굴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표〉 본 연구 방법의 특징

특징	주요 내용	자료수집	방법론 선택 이유
기초 분석	- 우리나라 도서지역 기초 현황 - 도서관광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기존 도서지역 발전정책 검토 - 도서지역 해양관광 여건 분석 -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	- 관련 문헌조사 - 국내외 사례조사	- 도서관광에 대한 정책연구 및 학술 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의 범위 및 방향 설정 - 도서지역 발전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향 도출 - 도서지역 해양관광 실태 분석 - 도서관광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특징	주요 내용	자료수집	방법론 선택 이유
설문조사 및 전문가 AHP 조사	- 대국민 설문조사 - 전문가 대상 AHP 조사	- 국민 1,800명 - 전문가 30명	-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도서관광에 대한 인식과 잠재적 수요, 관광행태 파악 - 전문가 AHP 조사를 통해 도서지역 해양관광 정책방향 설정 및 추진 과제 발굴
국내외 출장조사	- 국외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방향 및 전략 발굴	-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담당자 면담	- 국외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 동향 파악 및 시사점 도출
전문가 자문	- 도서지역 해양관광 정책방향 검토	-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청취	- 사회문화적 여건 및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지역 해양관광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 필요

2) 연구의 특징

- ▶ 본 연구는 도서관광의 수요 측면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관광수요와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국내외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회문화적 환경 및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기존 도서지역 해양관광 정책의 한계와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도서지역 해양관광에 대한 인식과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전문가 AHP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음
 - 또한 기존의 도서지역 관광시설 조성 중심의 수용태세 개선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서지역 관광활동자의 관광

행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해양관광 발전 방안을 설정하였음

- 본 연구는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세부 분야별 추진과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도서지역 해양관광 정책의 수정·보완에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도서 친수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 여가시간의 증대 및 관광 트렌드 변화로 도서지역으로의 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이 마련되었음
 - 국내 도서 정책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다수 부처가 독자적으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 간 연계성·체계성이 미흡함
 - 또한 기존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은 기반시설 정비에 집중되거나 이미 시장성을 확보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임
 - 따라서 도서지역 관광수요 및 이용행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도서관광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통한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국외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 사례 검토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경제·사회·문화·제도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도서지역 활성화 정책 및 사례를 분석함

- 일본의 도서지역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영토 관리 측면에 맞춰져 있으며, 도서에 정주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도서관광을 활용함
 - 도서지역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취합해 우수 사업 아이템을 전국적으로 홍보·확산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을 발굴함
 -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도서 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특화된 민간단체인 일본이도센터를 통해 도서관광 홍보 활동을 펼쳐 국민들이 섬에 대해 친밀감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 도서지역 해양관광에 대한 인식과 이용행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서지역 해양관광 정책 방향 마련 및 추진 과제 발굴을 위해 AHP 조사를 실시하였음
- 2차 자료 분석 결과, 도서지역 관광은 일반 관광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도서관광 시 소요 비용 및 시간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려워 여행 편의성이 낮고, 도서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연안여객선의 관광 매력도를 증대시키는 한편 교통비용의 절감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 도서지역의 관광상품성 제고가 요청됨
 - 대국민 설문조사 분석 결과, 도서관광 동기는 심리적 일탈감 추구가 강하고, 경관감상이나 휴식 활동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남. 도서

관광 경비는 국민여행실태조사 여행지불경비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으며, 도서관광의 관광 형태는 개인여행객이 월등히 많음. 도서관광의 제약요인으로 먼 거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며, 도서관광 발전을 위한 필요한 요소와 사업 등을 평가한 결과 인프라를 증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서관광 수요측면에서 도서지역 관광을 위한 구조적 제약요인들이 도서관광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광콘텐츠의 개발이나 기반시설의 정비에 앞서 도서관광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도서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 여객선 이용료 할인, 도서 내에서의 관광활동 등 도서지역 방문을 위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문가 AHP 조사 분석 결과,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 해양관광 상품성 강화, 이용성 향상 순으로 나타남
- 세부사업별로는 접근성 개선 부문에서 ‘여객선 터미널/여객선 현대화 사업 확대’, ‘도서지역 관광정보 콘텐츠 발굴, 홍보’, ‘도서관광 캠페인/홍보사업’이 중요하며, 해양관광 상품성 강화 부문에서는 ‘해양치유/휴양 관광상품 개발’, ‘다양한 소규모 도서관광 상품(해양생태관광, 무인도서관광, 장/단기 등) 개발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 마지막으로 도서관광 이용성 개선 부문에서는 ‘관광 편의시설 개선’, ‘도서지역 주민 관광서비스 교육’, ‘도서관광 생태자원의 보전’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
-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수단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도서지역의 해양관광 수용력 평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의 구축, 도서지역 해양관광자원·상품의 발굴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도서지역 해양관광 정책은 도서관광 접근성 개선을 통한 구조적 제약요인 해소와 더불어 도서 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광 이용성 향상과 관광상품성 강화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도서관광 접근성 개선은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접근성 개선과 함께 관광정보 접근체계 개선 및 관광 홍보사업의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부처별 정책영역에 따라 협업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도서관광 이용성 향상을 위해 도서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편의시설 개선, 지역주민 서비스교육 및 청년창업 지원 등의 관광 서비스 개선, 도서관광 안전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도서관광 상품성 강화는 해양관광 콘텐츠의 발굴, 해양치유 휴양 상품 개발 등 해양관광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하여 방문객의 수요를 다변화 시키고 무인도서 탐방, 해양생태관광 등 특수목적 관광상품도 함께 발굴할 것을 제안함

- ▶ 그 외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의 마련과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상품 운영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 부처별 정책영역에 따른 협업과 함께 도서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마련이 필요함

- 도서지역 개발사업은 관광 수용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상품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관광상품 개발 및 관리 시스템 운영 또한 지역의 수용여건과 지역주민의 역량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

2) 정책적 기여

- ▶ 도서관광의 수요자 측면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관광수요와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도서관광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
- ▶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관광의 특징을 분석하여 도서지역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상품 다양화 방안과 해양관광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친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 ▶ 본 연구를 통해 기존 도서지역 해양관광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쉽표 있는 삶’의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대안 마련에 활용

3) 기대효과

- ▶ 도서지역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상품 다양화 방안과 해양관광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친수문화 확산에 기여
- ▶ 향후 정부의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 관련 계획 및 정책사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Strategies for Developing Coastal and Marine Tourism on islands:

Focusing on demand response through analysis of tourism behavior

1. Purpose

- ▶ The present study aims to establish measures to discover tourism products utilizing marine resources and spaces of island regions as well as plans for sustainable use. For this purpose, the study carried out a review on the conditions of marine tourism, tourism behaviors and limitations of tourism activities on island regions of South Korea.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Table〉 Characteristics of the methodologies

Classification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s for selection
Basic analysis	- Basic status of island regions in South Korea - Review of preceding studies	- Literature review - Domestic	- Setting the scope and direction of the study by studying policies relevant to

Classification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s for selection
	relevant to island tourism - Review of existing development policy for island regions - Analysis on the conditions for marine tourism of island regions -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and foreign case studies	island tourism and reviewing academic journals - Drawing limitat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development policies on island regions -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marine tourism on island regions - Deriving implications by reviewing cases of island tourism
Survey and conducting AHP on experts	- Public survey - Conducting AHP study on experts	- 1,800 Korean people - 30 experts	- Analysis on survey identified the public awareness on island tourism, its potential demand and tourism behaviors - AHP study on experts established a direction for marine tourism policies while discovering implementation tasks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 trip	- Drawing implications by review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 Discovering policy direction and strategies for vitalizing marine tourism for Korea's island regions	- Interview with officials in charge of relevant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in Korea and abroad	-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for vitalizing island tourism and drawing implications
Consultation with experts	- Review of policy direction of marine tourism on island regions	- Consulting with experts and hearing of opinions	- Consultation with experts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 for marine tourism on island regions in order to respond changing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and tourism trends

2) Features

- ▶ This study aims to come up with strategies for vitalizing marine tourism on island reg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demand and use patterns of tourism on island regions by taking the demand perspective of island tourism into account.
-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s and consultation with experts have produced limitations of existing marine tourism policies on island region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llowing social, cultural, environmental changes along with changing tourism trends.
- Having conducted a public survey, this study analyzed the public awareness and use patterns of marine tourism on island regions. In addition, it derived policy direction for vitalizing Korea's marine tourism on island regions by utilizing the results of AHP study targeting experts.
- Existing policies have shown the trend of making improvements from the attitude of acceptance focusing on creating tourism facilities on island regions. However,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existing studies by establishing a direction for developing marine tourism in the mid-to-long term perspective based on the analysis of tourism patterns by those engaging in tourism activities on island regions.
- The present study presents policy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tasks for specific sectors for vitalizing the marine tourism on island regions. In doing so,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adjust and supplement existing marine tourism policies on Korea's island regions.

3. Results

1) Summary

- ▶ As tourism demand towards island regions has continued to rise due to increasing leisure time and changing tourism trends, policy projects for vitalizing island tourism have started in earnest since the 2000s.
 - Many government departments are implementing domestic island policies, pushing ahead relevant projects on their own. Sinc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e involved in relevant policy projects, policies fall short of connection and systemization.
 - In addition, existing policies for vitalizing tourism on island regions have shown limitations in terms of effectiveness. This is because they are focusing on rearranging infrastructure facilities, while providing policy supports to islands where the market feasibility has already secured.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fundamental problems of island tourism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tourism demand and use patterns. And then, strategies to vitalize marine tourism on island reg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address them.
- ▶ The study derived policy implications by reviewing foreign cases of vitalizing tourism on island region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d relevant policies and cases of Japan where

economic, social, cultural, institutional environments are similar to South Korea.

- A basic policy direction for vitalizing island regions in Japan is centering on territorial management. While Japan has established its policy goal to increase the population settling down on islands, the country is utilizing island tourism as a means to achieve that goal.
 - Japan adopted the Bottom-up method with which project ideas suggested by island residents are collected, selecting excellent project items to promote and spread nationwide. With this method, a relevant authority discovers projects that can strengthen the capacity of residents, distinctively show regional characteristics while local residents are able to afford.
 - Focusing on projects with small budget, Japan has conducted promotional activities through Japan Remote Island Center, a private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promotion, use and vitalization of islands. Such promotional activities have created an environment in which people can get familiar with and become interested in islands.
- ▶ A public survey and the analysis of secondary data were carried out to find out the public awareness of marine tourism on island regions, its use patterns and policy demand. In addition, the study conducted the AHP study targeting experts in order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 of island regions and discover implementation tasks.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econdary data, island tourism takes

more time and cost than regular tourism. Also, island tourism has a lower travel convenience than regular tourism due to difficulties of acquiring information on required cost and time. Since there is no tourism market utilizing island and marine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ourism attractiveness of coastal passenger ships. At the same time,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island tourism by cutting transportation cost and enhancing the commercial value of tourism products for island regions.

- The result of the public survey showed that people go travel to islands to get away from daily lives, hence, presenting a high ratio of scenery appreciation and participating in relaxing activities. The expense of island tourism was almost twice higher than the travel expense from the survey of Current Status of National Domestic Travel, with individual travelers accounting for a significantly higher ratio. Meanwhile, people considered long distance as a major impediment of island tourism, while regarding infrastructure as an important element for the development of island tourism.
- According to the public survey, structural limitations for island tourism have served as a major stumbling block to the vitalization of island tourism from the demand perspectiv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island tourism prior to the development of tourism contents or rearrangement of infrastructural facilities. At the same time, policies for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using island regions should be established first including improving the accessibility to island regions, cutting the fee of coastal passenger ships and promoting tourism activities within islands.

- The AHP study targeting experts showed that improving the accessibilit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to vitalize the marine tourism on islands followed by raising the commercial value of marine tourism and increasing its availability.
- The study presents specific projects for improving the accessibility as follows; (a) expanding projects for modernizing passenger ship terminals and passenger ships, (b) discovering and promoting the contents for tourism information on island regions and (c) campaign and promotional projects for island tourism. With regard to strengthening the commercial value of marine tourism products, the following elements are important; (a) developing thalassotherapy/recreational tourism products and (b)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various small products on island tourism (marine eco-tourism, uninhabited island tourism, short-/long-term etc.). Lastly, the study considers the following is important to raise the availability of island tourism; (a) improving convenience facilities, (b) educating tourism services to residents of island regions and (c) preserving natural resources of island tourism.
- In order to establish a development mechanism for marine tourism on island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ustainable development system by assessing the receptive capacity of island regions for marine tourism, while preparing a system for discovering and supporting marine tourism resources and products of island regions.

- ▶ In summary, South Korea's marine tourism policy for island reg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two fold; one is to address structural limitations by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island tourism and two is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tourism and strengthening the commercial value of tourism products for raising the satisfaction of island tourism.
- With regard to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island tourism, the study suggests giving a priority to specific tasks as the following order;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transportation, enhancing the access system to tourism information and tourism campaign projects. And then, projects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cooperative works depending on policy areas of government depart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Policies for raising the availability of island tourism should focus on the followings; improving basic convenience facilities, enhancing tourism service by providing service education to residents and supporting the youth for opening business and securing the safety of island tourism.
- The commercial value of island tourism can be enhanced by diversifying marine tourism contents such as discovering new marine tourism contents and developing thalassotherapy and recreational products which results to diversify the demand of travelers.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s discovering tourism products for specific purposes such as travel to uninhabited islands and marine eco-tourism.

- ▶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vitalizing marine tourism on island regions while building a system for operating tourism products driven by local residents.
- Together with existing cooperative works carried out by government department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dedicated organization which can provide a systematic support to vitalize marine tourism on island regions.
- Development projects for island regions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operation system for tourism products driven by local resid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conditions for accommodating tourism. In addition, regional conditions for accommodating tourism and the capacity of residents should be considered to develop tourism products and operate management systems.

2) Policy suggestions and relevant activities

- ▶ Taking the demand perspective of island tourism, this study analyzed the demand of tourism on island regions and its use patterns. Through these analysis, the study presented fundamental problems of island tourism, its solutions and strategies to vitalize the marine tourism on island regions.
- ▶ Based on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marine tourism taking place on island regions, the study came up with measures for diversifying marine tourism products as well as development strategies of marine tourism. Furthermore, it provides policy direction for strategies to spread the water-friendly culture.

- ▶ The present study suggests policy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tasks for improving marine tourism policies on island regions. Therefore, it can be utilized for establishing plans and measures to achieve ‘work-life balance’

3) Expected benefits including policy contribution

- ▶ This study presents measures for diversifying marine tourism products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marine tourism by tapping into marine tourism resources on island regions which will contribute to the spread of the water-friendly culture.
- ▶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relevant plans for vitalizing tourism on island regions as well as relevant policy projects.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해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서가 발달된 우리나라는 국토공간의 관리, 정주환경의 개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 지역 관리 정책 및 이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도서는 총 3,348개로, 무인도서 2,876개(85.9%)와 유인도서 472개(14.1%)로 이루어져 있다.¹⁾ 전체 도서 면적은 3,853km²로 국토의 약 3.8%를 차지하며, 이 중 유인도서가 3,777km²로 98.0%를 차지한다.²⁾ 국내 도서지역에 대해 국토공간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도서지역이 관광정책의 대상이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며 200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1) 행정안전부 내부자료(2017),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17b), ; 해양수산부(2017a), p. 12.

2) 2018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0,364km²임. 국토교통부(2018) 참조

국내 도서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리적으로도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육상과 다른 특이한 자연환경과 인문·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목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민 여가시간의 증가와 교통수단의 발달, 해양휴양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관광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도서지역 관광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도서지역 방문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06년 817만 명 → '12년 1,453만 명 → '17년 1,690만 명). 또한 해양관광활동 참여 인구가 증가하면서 해양레저·스포츠, 경관감상, 생태탐방, 등대·유적답사 등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향후 해양관광 목적지로서 도서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도서지역이 관광활동 목적지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³⁾

국내 도서관리 및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은 관리 영역 및 소관 업무에 따라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어 왔다. 국내 도서 관련 정책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서 각 소관 업무 영역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의 관리 및 이용·개발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유인도서와 서해 5도 도서,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와 유인도서 중 일부, 환경부는 무인도서 중 특정도서에 대해 보존, 개발 및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도서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섬의 날(8월 8일)'을 제정하는 등, 도서지역의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⁴⁾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 p. 21.

4) 도서개발 촉진법이 개정·시행(2018년 9월)됨에 따라 2019년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서지역의 관광활성화는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서의 정주여건 정비, 도서 주민의 소득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대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명품 섬 베스트 10 사업) 등이 부처별로 진행되면서 도서지역이 관광 정책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도서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등에서도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기존 도서지역 관광 정책들은 정책의 대상을 도서로 설정하고 있지만 해양공간의 특성이나 선박을 이용한 연안 내륙 도시로부터의 교통 접근성,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한 정책 개발 등에 대한 검토는 다소 부족했다. 또한 기존의 도서관광 정책사업들은 도서의 경관자원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 등산이나 트레킹을 위한 시설 조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도서지역 관광상품의 내용 및 구성에 있어서도 해양공간이나 해양자원을 체험하는 상품은 발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관광이 가진 특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섬이라는 공간의 지리적 특수성을 살리고 해양 환경·생태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 지역을 해양관광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해양관광을 통한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검토도 요구된다.

현재 도서지역 관광행태와 관련된 조사나 기초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발굴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도서관광은 관광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이나 광역 도심권과의 원거리 성으로 인해 고가의 교통비가 소요되며, 생활 및 생산기반 시설의 미비로 인한 인구과소화, 생태계 취약성 등이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도서지역 관광개발사업은 도서관광을 유형화하고, 기반시설 정비 중심의 시설 사업에 집중하면서 관광 트렌드의 변화나 관광소비자의 수요, 도서관광 활동 여건을 고려한 발전 방안 마련에는 소홀했다. 관광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도서관광을 위한 잠재 수요는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도서관광 활성화 정책은 도서관광 활동 목적지 측면에서 도서관광자원이나 관광시장의 다양성을 추구하기보다 이미 시장성을 확보한 도서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실질적 의미의 도서관광 대중화는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연안지역별 유·무인도서 해양관광자원 발굴 및 해양레저·스포츠나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해양관광 발전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도서지역 해양관광 여건과 도서지역 관광행태 및 관광 활동 제약요인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관광 정책이나 개발사업에서 도서지역을 유형화하고 관광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에서 벗어나, 도서지역 관광활동자의 관광행태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관광 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해양관광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도서지역의 해양자원과 공간을 활용한 관광상품 발굴 및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을 조사통계자료 수집의 기준 연도로 설정하고, 공간적 범위로는 국내 도서의 개념 및 정의 중에서 도서개발촉진법상의 정의에 따른 도서지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한다.⁵⁾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제2장에서는 국내 도서지역 발전정책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하여 도서의 기초현황과 도서지역 관광정책, 일본 도서 관리 및 도서관광 정책사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도서지역 해양관광 여건 분석과 해양관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하여 도서지역 해양관광 도입 여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도서관광과 관련된 제반 여건과 관광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분석과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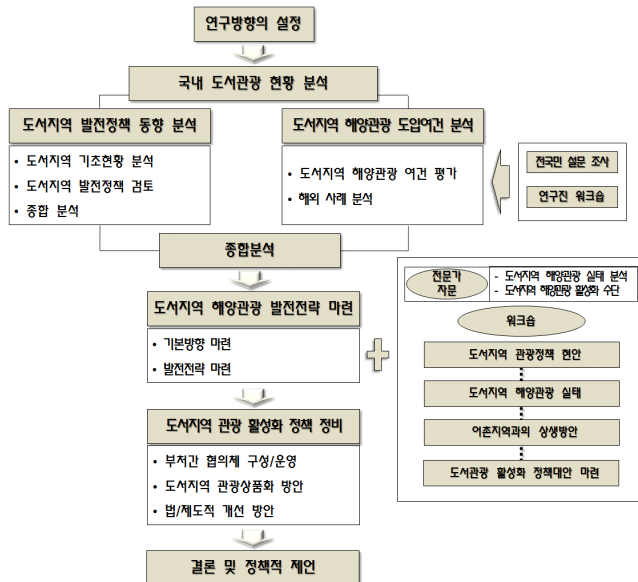
2. 연구방법

국내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도서지역 관광개발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한 분석과 함께 도서지역 해양관광

5)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제2조): 이 법에서 "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는 제외함

행태 실태조사와 도서지역 관광정책 및 개발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된 국내외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더불어 사례연구,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문헌분석과 사례연구에서는 도서관광 정책 및 선행연구, 국가계획, 지역별 개발사업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사회·문화·경제·제도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일본의 도서 및 도서관광 정책, 도서관광 사업에 대해 현지 조사를 통하여 국내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국내 도서지역 해양관광 실태 분석을 위하여 도서지역 관광상품 및 도서지역 관광행태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고, 도서지역 관광활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관광활동 여건 및 제약요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아울러 도서관광 발전전략 도출 및 정책 수단 마련을 위하여 도서관광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자문회의를 병행하도록 한다.

〈그림 1-1〉 연구 수행절차



제4절 선행연구 검토

1. 도서관관 관련 정책연구

도서관관과 관련된 정책연구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다수의 부처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준(2016)⁶⁾은 섬 여행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섬 자원에 대한 인식과 지속가능한 섬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라남도 지역의 섬을 중심으로 섬 정책방향을 잡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적으로 수도권(경기·인천·충청권), 호남권(전남·전북), 영남권(경남)의 섬 방문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된다. 2016년 5~9월에 이 지역의 섬을 여행하는 416명을 대상으로 섬 여행에 관한 인식, 섬 여행 행태, 섬 발전 방향 등에 관해 질문했다.

김준의 연구결과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섬 여행의 선택요인은 ‘휴식’, ‘힐링’, ‘섬/바다가 좋아서’이고, 가장 매력적인 섬 자원은 ‘해안풍경’과 ‘섬마을’, ‘갯벌(바다)’로 나타났다.⁷⁾ 섬 여행 시 우선적 고려사항은 ‘접근성’, ‘볼거리’, ‘편의시설’ 순이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⁸⁾ 섬 여행 시 장애요인은 ‘교통 불편’, ‘숙박시설 (부족)’, ‘관광자원 (부족)’ 순이나 80% 이상이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⁹⁾ 동행인원은 절반가량이 ‘가족/친척’이며, 4명이 가장 많고 평균 9.4명으로 나타났다.¹⁰⁾ 섬

6) 김준(2016)

7) 위의 책, p. iv.

8) 위의 책, p. 36, p. 38.

9) 위의 책, p. 40.

여행 경비는 10만 원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 20만 원대 중반이었으며, 섬 여행 만족도도 80% 가깝게 나타났다.¹¹⁾

흥미로운 것은 섬 발전에 필요한 자원으로 ‘탐방로’, ‘주민친절성’, ‘향토음식’을 꼽았고, ‘고급펜션’, ‘야영장’, ‘마을역사관’ 등은 필요성이 낮게 나타난 점이다.¹²⁾ 섬 여행객은 섬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고 그 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나 식당,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만든 펜션, 야영장과 같은 숙박시설이나 역사관 등의 인프라 조성은 공급자 중심의 발상일 가능성이 높다.

김준(2016)은 중앙정부가 수요자를 고려한 소프트웨어 중심 정책을 마련하고 광역지자체는 섬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고, 섬의 생태·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시민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으며 섬으로 귀촌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¹³⁾

심진범·김지선(2016)¹⁴⁾은 기존 하드웨어 위주의 섬 관광 개발에 추진에 대한 한계를 고려하여 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건분석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역주민과 여행업계 면담, 현장조사, 관광객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섬 관광콘텐츠의 개발은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부가가치 창출, 타 지역과의 차별화, 일자리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객 측면에서는 다차원적

10) 위의 책, p. 42.

11) 위의 책, p. 43.

12) 위의 책, p. 60.

13) 위의 책, p. 69, p. 70.

14) 심진범·김지선(2016)

관광 경험과 욕구 충족, 질적 수준 및 만족도 제고, 진정성 경험 등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주체 측면에서는 섬 관광 소프트 경쟁력 강화와 신규 관광시장 창출,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정책 효율성 증대, 하드웨어 중심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부담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 대이작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김향자(2013)¹⁵⁾는 섬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부처간 협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섬 지역의 정책 현황 분석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섬 관광 정책 추진 유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논의되는 섬은 「도서개발촉진법」의 정의를 기초하여 내륙과 연속되지 않은 섬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섬 방문객 특성을 파악하고, 섬 방문객의 인식, 이용방향 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방문객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책추진 방안 및 부처별 협력방안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섬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의 목표로 관광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와 경제적 기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섬 관광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세부 정책 사업에 있어서도 주민역량 강화 및 소득화 사업, 주민인식 개선 및 교육 사업 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설정되었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원보전·관리형, 관광자원 정비형, 관광시설 보완(개발)형, 관광시설 (신규) 개발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각 섬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선택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

15) 김향자(2013)

를 들면 관광자원 정비형의 경우, 생태자원을 테마로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을 목표로 설정했다면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반면 관광시설 보완형은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세부 사업으로 섬 명소화 사업, 관광 편의 개선 사업,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주민 역량강화 및 소득화 사업, 관리운영 및 마케팅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범 외(2012)¹⁶⁾는 도서지역 관광개발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도서지역 관광개발계획이 친환경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서지역 관광개발계획 관련 제도 및 정책, 국내외 도서지역 관광지 개발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도서지역의 저수지 및 지하수 자료를 바탕으로 도서개발 가능성과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필요성 및 환경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밀생태조사(전남 신안군 임자면의 재원도)를 실시하였으며, GIS를 이용해 도서간 생태계 연결성(서해안 도서에 서식 중인 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조성 또는 계획 중인 도서지역 관광개발 계획은 도서지역의 입지 특성을 반영하여 관광개발방향을 설정하거나 개발 규모를 산정하고 있지 않아 생태적으로 민감한 도서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관광개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도서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도서 관련 법·제도가 통합 관리되어야 하며, 국내 도서지역 여건을 고려한 관광개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첫째, 각 부처와 지자체가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을 통합해 정책의 효율

16) 이상범 외(2012)

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둘째, 도서지역 현황 조사 및 자료 구축 체계의 확립, 셋째,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주민참여형 관광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이상범 외(2012)는 도서지역 관광개발에 대해 기존의 관광학적 관점이 아닌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도서생태계 보전을 위해 도서지역 관광개발계획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지역주민 주도형의 체험형·소규모 관광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정책 연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하드웨어 확충 중심의 사업 내용을 비판하고 있으며, 주민 주도형의 소규모 관광 프로그램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각 연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김준(2016)은 광역지자체의 역할 및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심진범·김지선(2016)은 특정 도서에 대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역주민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향자(2013)의 연구는 섬 관광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역할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이상범 외(2012)는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서지역 개발에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도서생태계 보전을 통한 관광개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2. 도서관광 관련 학술연구

우리나라에서 도서관광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말로

볼 수 있으며¹⁷⁾, 19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도서관관과 관련된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개선을 위한 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개별 도서관관 개발 사례를 분석한 연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¹⁸⁾ 20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도서관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도서관관 자원 현황이나 도서관관 개발 구상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연구로, 분석적인 면에서 관광학적 개념이나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¹⁹⁾

한편 최근 10년 동안 도서를 다루는 연구의 핵심 주제는 국내 도서지역의 관광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⁰⁾ 최근 연구들은 미시적·행태적 차원에서 고유성, 계절성, 접근성, 고비용성 등 도서지역의 관광지로서의 매력이나 도서관관의 동기 등을 다루는 연구(조진상, 2009; 서용건 외, 2010; 유창근, 2013), 도서관관 개발의 방향성을 정책적·일반론적인 수준에서 제시한 연구(김태영, 2012; 김영준, 2012)²¹⁾, 도서관관에 있어 지역사회기반 중심의 필요성과 실천 전략을 논의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심진범, 2011; 강신겸, 2012; 이진형 외, 2014).²²⁾ 도서를 대상으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좀 더 세분화하여 주민인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인식연구와 잠재적인 도서자원을 활용한 유형개발연구, 도서관이 가진 관광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관광개발전략연구와 정책적 진단 및 평가에 의거한 정책연구로 구분하는 시각도 있다.²³⁾

17) 이진형 외(2014), p. 53.

18) 조진상(2009), p. 155.

19) 이진형 외, 앞의 책, p. 53.

20) 이동호(2018), p. 81.

21) 이재환·이진형·황두현(2016), p. 160.

22) 강신겸·이진형(2018), p. 40.

23) 박진경(2017), p. 132.

〈표 1-1〉 도서 관련 선행 연구

구분	선행 연구	연구 방법	주요 내용
인식연구	강평년(2005), 강신겸 외(2011), 김형서(2011), 김재은 외(2013), 신순호 외(2014)	주민의식 조사, 전문가조사 등	도서정책과 국민인식비교, 전문가 인식조사 분석, 관광객 인식조사 분석, 도서종합개발계획과 주민의식구조와의 관계 검토 등
도서 유형개발 연구	김선명 외(2008), 이수창(2010), 행정안전부(2009, 2010)	군집분석	통계분석을 통한 개발대상도서의 유형 분류, 자원 유형화를 통한 개발방안 도출 등
관광개발 전략연구	김농오 외(2005), 차미숙(2007), 마상열(2008),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9), 이상범 외(2012), 이순자 외(2012), 김향자(2013), 이진형 외(2014), 이재환 외(2016)	연구동향 조사, 사례비교 연구, 성공요인 분석 등	섬관광 개발방향 모색(지속가능한 관광), 관광활성화 성공요인 분석, 섬관광 활성화 평가모델 개발 및 방향제시 등
비교정책 연구, 제도연구	전태갑(2014), 김경신 외(2008), 박상우(2009), 장정인(2011), 하혜수 외(2011), 김준(2012), 행정안전부(2015), 박진경(2016)	선진국과의 비교정책 연구, 부처 사업비교 등	일본, 유럽 등 정책비교를 통한 산업, 문화, SOC, 해양정책 등 시사점 도출, 정책동향 제시, 도서개발 정책방향 제안,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자료: 박진경,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서개발정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50집, 2017, pp. 133~134

공간적으로는 제주도(송재호, 2002; 오정준, 2004; 문성민, 2009), 전라남도(조진상, 2009), 경상남도(김태영, 2012), 인천광역시(심진범, 2011; 심진범, 2012a; 심진범, 2012b), 전라북도(정명희·김광국, 2013) 등 도서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광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²⁴⁾

24) 이진형 외, 앞의 책, pp. 53~56.

최근 3년 이내의 섬 관광과 관련한 학술 연구들을 자세하게 살펴 보면 먼저 이재환·이진형·황두현(2016)²⁵⁾의 연구에서는 증도와 청산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섬 관광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섬의 관광발전 과정 분석을 위하여 관광객 및 관광사업체 수의 변화, 언론 노출빈도 등을 살펴보았고,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모델을 적용하여 발전단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관계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섬 관광 성공 요인으로 먼저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을 들 수 있다. 두 섬 모두 전문 컨설팅 업체나 협의체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 계획수립 및 실행 등을 담당했다. 이 밖에 중간지원조직의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 형성, 대외홍보 활동을 통한 인지도 제고, 지역성을 반영한 관광개발, 지자체 장의 지지와 행·재정적 지원 등이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노력과 중간지원조직이 지역성을 반영한 관광시설물, 이벤트 및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방송, SNS, 블로그, 여행사 등을 통하여 홍보한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이 두 섬이 국내 대표 섬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즉, 섬 관광이 지역관광개발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여 개발·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안태기(2017)²⁶⁾는 해양관광이 다양화되고 여행을 주제로 한 예능프로그램이 늘어나며 섬 관광이 활성화 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관광활동을 하는 이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광객의 관광동기가 관

25) 이재환·이진형·황두현, 앞의 책, pp. 159~179.

26) 안태기(2017), pp. 29~47.

광지 선택속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개인의 ‘관여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했다. 관여도는 지속적인 경향을 띠는 정서적인 태도로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관광에 참여하는 관광객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안태기의 연구는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²⁷⁾ 설문문항은 ‘관광동기’, ‘섬 관광 선택속성’, ‘관여도’에 따라 여러 변수로 구성했다. 관광동기는 ‘휴양/휴식’, ‘친목도모’, ‘자기계발’²⁸⁾, ‘자연경험’ 등 4개 요인, 섬 관광 선택속성은 ‘고유한 매력’, ‘사회문화 특징’, ‘여행 합리성’²⁹⁾ 등 3개 요인으로 구성했다. 관여도는 ‘개인의 관심, 욕구, 흥미, 지각하는 정도의 관련성으로 특정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 또는 태도’로 정의했다.³⁰⁾

연구는 섬 관광객의 방문(관광)동기가 선택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그 영향은 관여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2개 가설을 설정했다. 연구 결과, 섬 관광객의 관광동기 4개 요인은 섬 관광 선택속성 3개 요인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관광동기는 ‘휴양/휴식’과 ‘자기계발’이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섬 관광 선택속성은 ‘고유한 매력’으로 나타났다.³¹⁾ 반면 관여도가 미치는 영향은 ‘고유한 매력’과 ‘여행 합리성’에는 조절효과가 있었지만 ‘사회문화

27) 위의 책, p. 36. 여수시, 완도군, 신안군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2017년 7~8월(약 42일 간)에 걸쳐 설문지 총 250부를 배포하고 그 중 234부를 분석했다.

28)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견문을 넓히기 위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 “여행 후 생활에 활력을 얻기 위해”, 위의 책, p. 38.

29) “숙박의 질적 수준과 가격”,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 “합리적인 식음료 비용”, “여행전반에 사용되는 지출”, “편리한 교통수단”, “여행에 필요한 편의시설”, “여행 중의 안전”, 위의 책, p. 39.

30) “여행에 관심이 많다”, “여행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여행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한다”, “여행에 관한 계획을 늘 세우고 있다”, 위의 책, p. 35, p. 40.

31) 위의 책, p. 44.

특징'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섬 관광객은 섬 관광에서 다른 관광에 비해 호기심 충족이나 견문 확대 등 자아 확장 요소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다른 공간과 차별화되는 섬의 고유한 매력에서 찾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여행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누리고자 하는 경향이 높다. 다만 본 설문조사는 전남지역에 한정되어 진행되었으며, 표본의 82.2%가 20~40대에 분포되어 있다는 인구통계학적 한계가 있다.³²⁾

강신겸·이진형(2018)³³⁾은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 기반 관광의 개념과 절차적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도서관관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역사회 기반 도서관관의 개념을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섬의 고유한 자원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추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섬 관광개발 방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지역사회 역량 강화 및 주도권 확대를 제시하였다.

강신겸·이진형(2018)은 2010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첫째, 기존 하드웨어 사업 지원 방식을 탈피해 섬의 역사문화, 자연과 생태, 건강과 웰빙 등 섬의 테마를 발굴하고 이를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역량 강화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설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32) 위의 책, p. 36.

33) 강신겸·이진형, 앞의 책, pp. 39~56.

하나 도서지역의 취약한 인적자본이 사업추진의 근본적 한계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으며, 셋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사업 방식을 도입한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넷째, 전문가 컨설팅제도를 도입했으나 지속적인 사업지원체계가 미흡한 점과 다섯째, 일률적 사업비 책정으로 예산에 맞춰 관행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여섯째, 다양한 실천전략의 부족, 일곱째, 객관적인 사업평가와 모니터링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기반 도서관광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로 주민 스스로 지역의 관광개발 방향 및 속도, 범위를 통제해야 하고, 둘째, 도서의 고유한 생태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여행 방식과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섬의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사업 발굴과 지속가능한 관리운영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넷째, 도서 자원관리전략과 경관관리정책 강화 등 실천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다섯째, 도서관광 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제안하였다.

강신겸·이진형(2018)은 도서관광 진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 중 가장 큰 규모로 약 8년간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연구로, 지역사회 기반 관광의 개념 및 원칙에 입각하여 도서관광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다만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 도서의 개별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보다 문헌 검토를 통한 분석으로 일반화의 어려움 즉, 외적 타당성의 한계가 있다.

〈표 1-2〉 주요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세부 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섬 자원 이용형태와 지속가능한 섬발전 전략, 광주전남연구원 • 연구자(연도): 김준(2016) • 연구목적: 섬 주민과 여행객 등 섬 관광의 수요자의 측면에서 섬 자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섬 발전 방향을 제시	• 선행연구검토 • 정책분석 • 관광객 설문조사
	2	• 과제명: 인천시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 대이작도를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 연구자(연도): 심진범·김지선(2016) • 연구목적: 인천시의 역점시책으로 섬 관광이 중요해지면서 웅진군 대이작도를 중심으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관광정책 대안을 제시	• 선행연구검토 • 관계자 인터뷰 조사 • 현장조사 • 관광객 설문조사
	3	• 과제명: 전라북도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 연구자(연도): 정명희·김광국 (2013) • 연구목적: 전라북도 섬 관광에 대한 기초자료 도출과 관광발전모델을 제시	• 선행연구검토 • 2차 자료 분석 • 해외사례분석 • 현장조사 • 전문가 자문
	4	• 과제명: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선행연구검토 • 해외사례분석 • 전문가 설문조사

구분	세부 내용		
	• 연구지(연도): 김항자 (2013) • 연구목적: 섬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정책 추진 유형 분석 및 대상을 도출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 및 정책추진 방안을 모색	• 방문객 인터뷰 조사 • 전문가 자문	• 섬 관광 유형화분석 • 섬 관광 현황 분석 및 선진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섬, 방문객, 주민, 지자체, 중앙정부 등 이해관계자별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제시
본연구	• 연구명: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연구자(연도): 홍장원 외 (2018) • 연구목적: 도서지역 관광 수용태세분석과 관광 트렌드 변화를 고려한 해양관광발전 모델 구축 및 도서 친수문화 확산	• 연구범위: 전국/지역 • 시간범위: 2017년 • 공간범위: 전국/사례지역 • 수행방법: 문헌 및 사례조사, 전문가 설문 및 자문	• 도서지역 발전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 도서지역 해양관광 도입·수용태세분석 • 도서지역 해양관광 여건 평가 및 관광 활동 유형 분류 •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 방안 제시

본 연구는 도서관광의 수요 측면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관광수요와 이용 행태 분석을 바탕으로 도서관광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도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양관광의 특징을 파악하여 도서지역 해양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한 해양관광상품 다양화와 해양관광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나아가 도서 친수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도서지역 관광 동향 분석

제1절 도서지역 기초현황 분석

1. 국내 도서 현황

1) 도서의 정의

도서(島嶼)의 개념은 사전적, 법적, 정책적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도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만조(滿潮, high water 또는 high tide) 시 수면 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면에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육지부 외의 모든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서란 '만조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며, 제주특

별자치도 본도(本島)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0년)이 지난 도서는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제2조 제1항은 ‘도서라 함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는 섬 지역의 범위에 대해 ‘만조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단,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UN 해양법 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섬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이고 고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으로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 계획’에서 도서를 ‘대양(大洋), 내해(內海), 호소(湖沼), 대하(大河) 등의 수역에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2-1〉 도서의 개념

구분		개념
사전적 개념	해양용어 사전	만조(滿潮) 시 수면 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면에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법적 개념	헌법	육지부 외의 모든 지역
	도서개발 촉진법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단,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0년)이 지난 도서는 제외
	자연 공원법	만조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단,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
	UN 해양법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이고 고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
정책적 개념	행정 자치부	대양(大洋), 내해(內海), 호소(湖沼), 대하(大河) 등의 수역에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

자료: <http://www.law.go.kr>(검색일: 2018. 6. 5.); 행정자치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안)』, 2016, p. 13. 참고하여 재정리

2) 국내 도서 분포 현황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도서는 총 3,348개로, 무인도서 2,876개(85.9%)와 유인도서 472개(14.1%)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도서 면적은 3,853km²로 전 국토의 약 3.8%를 차지³⁴⁾하며, 유인도서 면적은 3,777km²로 전체 도서 면적의 98.0%를 차지한다.

〈표 2-2〉 전국 도서 현황

구분	전체도서	유인도서	무인도서
도서 수(개)	3,348(100.0%)	472(14.1%)	2,876(85.9%)
도서 면적(km ²)	3,853(100.0%)	3,777(98.0%)	76(2.0%)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17;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 2017b; 김경신 외, 『무인도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17, p. 12

시도별 도서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의 수가 가장 많으며, 면적으로도 전체 도서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 지역의 도서 면적은 1,829km²로 전체 도서면적의 48.1%에 달해 약 절반에 이르며, 다음으로 경남지역의 도서 면적이 931km²로 24.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도서 수로도 전남지역과 경남지역의 도서 수는 각 2,011개(60.2%)와 564개(16.9%)로 전체의 77.1%를 차지해 전국의 도서 4개 중 3개가 전남과 경남에 자리 잡고 있다.³⁵⁾

34) 2018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0,364km²임. 국토교통부(2018) 참조

35) 유인도서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전국 도서 분포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가용할 수 있는 최신 자료인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 계획(안)('18~'27년)의 통계자료를 활용함

〈표 2-3〉 시도별 도서 현황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서	합계	3,853	41,999	700	0.04	4,963	0.26	166	38	1,829	72	931	15
면적 (km ²)	유인	3,777	37	691	0	4,233	0	158	36	1,788	72	921	14
	무인	76	4.71	8.29	0.04	0.73	0.26	8.49	2.29	40.45	0.14	9.13	1.84
도서	합계	3,339	48	151	3	46	34	268	105	2,011	43	564	66
수 (개)	유인	463	3	40	0	5	0	32	25	267	3	80	8
	무인	2,876	45	111	3	41	34	236	80	1,744	40	484	58

자료: 유인도서 수와 면적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 계획(안)('18~'27년)에 따름. 무인도서 수와 면적은 '08. 12. 31 기준 사·도 제출자료

유인도서 472개 중 연륙도서는 41개로 8.7%, 연도도서는 46개로 9.7%를 차지한다. 그러나 면적으로는 연륙도서가 전체 유인도서 면적의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연도도서도 19.1%를 차지해 연륙도서와 연도도서의 면적이 전체 유인도서 면적의 70.4%에 달한다.

〈표 2-4〉 전국 유인도서 현황

구분	도서 수(개)	면적(km ²)
합계	463(100.0%)	3,725.8(100.0%)
연륙도서	41(8.7%)	1,938.4(51.3%)
연도도서	46(9.7%)	720.2(19.1%)

자료: 전체 유인도서 수와 면적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 계획(안)('18~'27년)에 따름. 연륙도서와 연도도서는 박진경 외, 『도서 미래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p. 17 자료 활용해 저자 재작성

한편 전국에서 가장 넓은 도서는 경남 거제시 거제도로 총면적은 402km²이다. 면적 기준 상위 10위까지 전남지역에 위치한 도서가 4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남과 인천지역에 각각 2개씩 위치하고 있다. 한편 면적이 넓은 도서 10개소 중 9개소가 연륙도서로 육지와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표 2-5〉 면적기준 상위 10위 유인도서 현황

순위	도서명	광역시도	시군구	면적(km ²)
1	거제도*	경남	거제시	401.600
2	진도*	전남	진도군	361.936
3	강화도*	인천	강화군	303.523
4	남해도*	경남	남해군	301.620
5	안면도*	충남	태안군	118.522
6	영종옹유도*	인천	종구	98.308
7	완도*	전남	완도군	90.288
8	울릉도	경북	울릉군	72.930
9	돌산도*	전남	여수시	70.580
10	거금도*	전남	고흥군	64.765

주1: 2010년 기준

주2: *는 연륙도서에 해당함

자료: 박진경 외, 『도서 미래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p. 18 자료
활용해 저자 재작성

연육도서와 연도도서를 제외한 도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선박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연안에는 총 16개의 여객터미널(인천, 보령, 군산, 격포, 목포, 완도, 제주, 녹동, 여수, 통영, 마산, 거제, 부산, 포항, 동해, 강릉)이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기준 107개 항로에 168척의 연안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다. 연간 약 1,691만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며, 지역별로는 목포청의 수송실적이 가장 많은 약 682만 명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산청(13.7%), 여수청(13.5%), 제주(12.5%) 순으로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지방청별 연안여객선 현황 및 수송실적

구분	항로수(개)	척수(척)	업체 수(개)	수송실적(명)
부산청	2	1	1	58,062
인천청	14	19	6	1,471,731
여수청	17	22	12	2,287,705
마산청	13	21	9	2,310,714
동해청	2	5	2	374,848
군산청	5	6	3	279,752
목포청	39	71	23	6,819,428
포항청	4	6	4	628,199
대산청	7	9	3	566,448
제주	4	8	4	2,112,974
합계	107	168	67(58)	16,909,861

주1: 업체 수(): 중복업체 제외 업체 수

주2: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한국해운조합, 『2018년도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2018. 참고하여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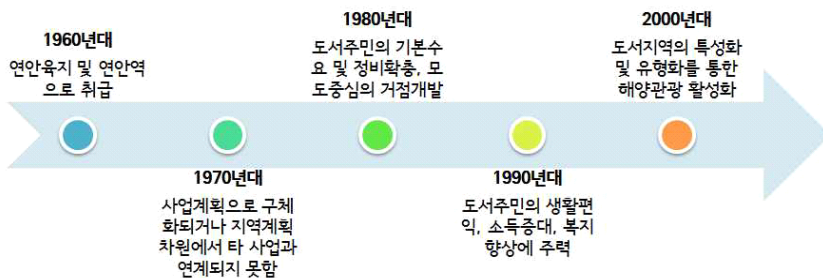
2. 국내 도서정책 현황

국내 도서 관련 정책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다수 부처가 연계되어 있으며, 각 소관 업무 영역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 도서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도서개발은 1960년대 후반 「국토건설종합개발 계획법」 내 ‘특정지역계획’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³⁶⁾ 이후 1970년대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으나 이 시기의 도서 관련 사업은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하였으며, 지역계획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1980년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제1차 도서중

36) 행정자치부, (2016), p. 3.

합 10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서의 기반시설 확충 및 모도 중심의 거점개발 방식의 계획이 추진되었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은 도서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서의 생산 및 생활 기반시설 정비·확충을 실시하고, 주민 소득 및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수립하는 10개년 계획이다.³⁷⁾ 1990년대에는 도서주민의 생활편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도서개발이 추진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도서지역의 특성화 및 유형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측면이 강조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림 2-1〉 도서정책 패러다임 변화



자료: 박진경 외, 『도서 미래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p. 41

도서의 관리 및 이용·개발과 관련하여 중앙 부처의 업무 영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 촉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유인도서와 서해 5도 도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무인도서와 유인도서 중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무인도서 중 특정도서에 대해 보존, 개발 및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37) 행정자치부, (2016), p. 17

〈표 2-7〉 도서 관련법 현황

분야	법명	소관 부처
일반법	도서개발 촉진법	행정안전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	해양수산부
개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서해5도법)	행정안전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도서생태계법)	환경부
기타	해운법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수산업기본법)	해양수산부
	자연공원법	환경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도서벽지교육법)	교육부

자료: 저자 작성

먼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수립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차와 2차 계획은 주변 섬과의 격절감 해소 및 정주여건 구축을 목표로, 생활 및 생산 기반시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증진, 생활안전 시설 확충 등이 주요사업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수립된 3차 계획은 도서별 특성화 및 유형화 계획 수립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반영되었으며, 도서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18년에 수립된 계획으로 도서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교통개선·관광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주민 기본생활 지원, 산업진흥 및 자원개발, 환경보전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2-8〉 도서종합개발계획 주요 내용

분야	1차	2차	3차	4차
계획 시기	1988~1997년	1998~2007년	2008~2017년	2018~2027년
목표	생활기반시설 개선 소득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수준 향상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 해양문화 수산자원의 조화로운 개발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 창출	국가성장동력 및 영토수호의 거점으로 재발견

분야	1차	2차	3차	4차
개발 전략	- 지역단위 종합개발 - 모도의 중심생활권 형성 - 도서별 특성개발 - 자연환경 보전	- 해양종합관광단지 지로 중점 개발 - 도서별 입지유형 특성개발 - 일부지역 민간자본 유치	- 협력적 종합 계획 - 도서별 특성을 유형화 하여 종합적 계획 - 주민참여종합계획 - 연육/연도교사업의 지속적 추진	- 주민참여 종합계획 - 범부처 섬발전사업 연계 - 교통개선·관광 활성화 및 규제완화 - 주민 기본생활 지원
추진 전략	- 생활기반시설 우선 해결 - 생활기반시설 및 소득증대사업 추진 - 문화복지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 생활기반시설 우선 확충 - 생산기반시설 및 소득증대사업 추진 - 문화복지 수준 향상 - 수산 및 해양자원 개발 - 교역기지화사업 중점추진	10년 단위로 추진되는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정 주기로 사업을 평가하고 도서환경 변화를 계획에 반영 - 일정주기의 평가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또는 역인센티브) 제공 - 도서진단을 개발·졸업제 등을 통하여 도서개발 사업 효율적 추진	- 도서민 소득원 다각화사업 추진 - 생활기반시설 확충(해상교통, 복지체계 등) - 체류형 관광기반 육성 - 환경기초시설 정비 - 중심마을 육성

자료: 박진경오주,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08~’17) 계획 변경(안) 타당성 검토』, 행정자치부, 2013; 박진경 외,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안)(‘18~’27년)』, 행정자치부, 2016.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추진전략으로 주민생활 안전 및 생활 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및 소득기반 구축, 지역 특화 관광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도서종합개발계획과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한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무인도서법」에 의거하여 무인도서와 그 주변 해역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기본 정책 등이 포함된 계획이다. 2010년 처음 수립되었으며 2015년 변경계획이 마련

되었다.³⁸⁾ 1차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의 목표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해양영토의 부가가치 창출’로 관리기반 구축, 관리유형별 체계적 관리,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 교육·홍보 등의 기본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기본방향에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관리제도 정비, 종합정보체계 구축, 무인도서 이용·개발 촉진, 자연환경·생태계 실태조사, 관리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무인도서 관리종합계획에서는 무인도서 관리유형을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제한행위 등을 제시하였다.

환경부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인도서 중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생태계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³⁹⁾ 2014년 ‘제2차 특정도서 보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특정도서의 생태계 보전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특정도서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 훼손된 특정도서의 관리 및 회복,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기능 강화, 국립공원 내 특정도서 관리 강화, 독도 보전 및 관리 대책 추진, 특정도서 내 사유지 매입 추진, 특정도서 인식 증진 및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도서지역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서지역에 대한 재정특례를 규정한 대표적인 법률(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도서개발 촉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8) 해양수산부(2017a), p. 16.

39) 환경부(2014), p. 1.

〈표 2-9〉 우리나라의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

구분	대상지역	특례 내용	세부 지원내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2000)	강화도, 백령도, 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옹진군 북면(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 국고보조금지원 •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업종전환에 대한 보조금 • 사회간접자본 지원 •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 자연환경보전대책 지원 •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 지방하천보수 지원 • 지역주민 고용 및 지원	• 국고보조율 인상: 기준보조율에 20/100을 추가하되 최대 80/100까지 지원 • 기업의 업종전환과 합리화: 총투자비의 10/100까지 지원 • 고용유지: 감원대상 근로자 평균임금총액의 10/100까지 지원
도서개발 촉진법 (1986)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도서	• 재정융자 • 국고보조금 • 세제지원	• 차등보조율: 기준보조율의 20/100까지 증액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2010)	백령도, 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 국고보조금 지원 •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 주민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주민안전시설 우선 지원 • 노후주택개량지원 • 주민정주생활지원금 지원 •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 생활필수품 운송 지원 • 교육비 지원 및 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 통일교육문화관광시설 우선지원 • 농어업인 경영활동 지원	• 국고보조금: 80/100까지 • 교부세: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 • 생필품 해상수송비: 예산의 범위 내 • 수업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지원
동·서·남 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2007)	동서남해안의 도서지역	• 국고보조금 지원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기준보조율의 20/100까지 인상 보조

구분	대상지역	특례 내용	세부 지원내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에 속하는 도서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입주기업에 대한 인허가 지원 •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채무보증 • 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원 • 지역활성화지역 지원 •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설치 •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 학교, 의료시설 설치 지원 특례	• 차등보조율: 기준보조율의 20/100까지 인상 지원 • 국유재산임대료: 20/100 범위 내에서 임대료 감면

자료: 하혜수·최영출·하정봉, 「지자체 특례제도에 관한 한·일·영 비교연구: 도서특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5권 제4호, 2011, p. 238; www.law.go.kr(검색일: 2018. 6. 3.)

제2절 도서지역 관광정책 분석

1. 중앙부처 도서관광 관련 정책 동향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은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도서개발 및 관리, 지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관련 부처가 수립하는데, 특히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낙후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서 정주여건 정비, 도서민의 소득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부처가 추진 중인 도서지역 주요 관광 사업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10〉 중앙부처 도서지역 주요 관광사업

소관 부처	주요 사업
행정안전부	도서종합개발사업, 연육연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 등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연안-해양관리, 지방어항,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해양수산물발전기본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어촌관광활성화사업, 어촌뉴딜 300 등
문화체육관광부	가고 싶은 섬 시범 사업,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개발기본계획,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 등
국토교통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신발전지역(성장촉진지역 해당도서), 개발촉진지구
환경부	특정도서 관리, 식수원 개발, 생태자원 보호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등

자료: 저자 작성

대표적인 도서지역 관광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안전부는 도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과 협력하여 매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하고 있다. 33개 섬은 놀-섬(단체여행객,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섬), 쉼-섬(휴식, 휴양 등 조용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섬), 맛-섬(섬이 가진 특별한 먹거리가 풍부한 섬), 미지의-섬(풍경과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지만 홍보가 잘되지 않아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섬), 가기 힘든-섬(입도하면 쉽게 나올 수 없어 모험관광에 적합한 섬) 등 5가지 테마로 구분된다. 행정안전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선정된 섬에 대해 홍보 및 마케팅을 실시해 도서관광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그림 2-2〉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자료: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travel/theme/content/cms_view_2548262.jsp?gotoPage=&category=&listType=(검색일: 2018. 6. 5.)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인 도서관광 정책으로는 보령시 외연도, 완도군 청산도, 신안군 홍도, 통영시 매물도를 대상으로 한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이 있다.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은 2007년부터 5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으로 섬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책 사업이다.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은 기존 도서지역 사업이 개발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비판하며, 관광 콘텐츠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표 2-11〉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주요사업 내용

구분	주요내용
하드웨어 사업	섬 관광시설 정비, 명소화 추진, 환경 보전 및 관리 등
소프트웨어 사업	섬 문화 진흥, 도서관광 홍보 및 마케팅, 관광안내시스템 정비, 관광 콘텐츠 개발 등
휴먼웨어 사업	도서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지속가능한 섬 설계를 위한 인력 및 조직 신설 등

자료: 김향자,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 155.

그러나 사업 결과를 보면 총 사업비 중 80%가 하드웨어 시설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기존 도서지역의 개발 사업 위주의 문제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은 섬의 이미지 제고 및 방문객 증가, 관광기반 조성 및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섬의 매력을 높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섬별 고유성이나 차별성을 드러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도 시행하였다. 본 사업은 국토 끝 섬인 백령도(서북), 가거도(서남), 마라도(이제도-남), 독도(동) 등을 대상으로 국토영역으로서 섬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이들 지역의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영유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나 수립 과정 중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사업이 보류되었으며, 이후 재추진되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고 있다. 사업의 예산은 약 300억 규모이며,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과 유사하게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조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수용태세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섬들의 특성을 감안해 관광편의 시설의 보강 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5조와 제6조에 의거하여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해안선에 인접한 35개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으로 남해안권 도서관광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남해안권 도서관광 부분은 판타지 아일랜드 조성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여수, 진도, 신안, 해남, 마산, 통영 등의 섬을 활용하여 친환경 테마시설, 생태 탐방로,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것을 담고 있

다. 그 외 테마가 있는 섬 투어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인데 경관감상, 섬 문화체험, 식도락 관광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를 내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관리 및 보전,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영역 확대를 목표로 한다. 도서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해상교통수단의 개발 및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 도서별 특성을 고려한 관광코스 개발,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민자 유치 전략 마련,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등의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안여객선 현대화와 보조항로 결손보상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관광 홍보를 위해 섬 여행 후기 공모전과, 만 28세 이하 내·외국인에게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바다로’ 사업, 이달의 무인도서 선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2-3〉 해양수산부 섬 관광화 사업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

섬 여행 후기 공모전

이달의 무인도서

자료: <http://ulsan.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7132&searchSelect=title&boardKey=84&searchStartDate=2018-06-04&searchEndDate=2018-07-05&menuKey=106¤tPageNo=1>; <https://www.gov.kr/portal/cnstexhb/2854?Mcode=10305>; <https://m.blog.naver.com/koreamof/221351666140>(모든 자료 검색일: 2018. 10. 8.)

〈표 2-12〉 해양수산부 섬 관광 지원 사업

구분	주요내용
섬 정주여건 개선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이차보전), 보조항로 결선 보상(준공영제)
섬 관광화	섬 여행 후기 공모전, 바다로(하절기, 동절기), 이달의 무인도서, 갯벌 생태계 복원, 어촌6차사업(어촌관광활성화)
인프라 구축	어촌뉴딜 300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 2017b

2. 지자체 도서관광 관련 정책 동향

지자체의 도서관광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⁴⁰⁾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남지역에 위치한 섬 자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싶은 곳’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이다. 10년간 전남 지역 24개의 섬에 2,6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5년 6개 섬을 선정한 후, 해마다 2개 섬을 추가하고 있다.

〈그림 2-4〉 전남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



자료: <http://www.jndadohae.com/web>(검색일: 2018. 6. 5.)

40) 전라남도(2015)

섬 고유 생태자원의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 관광자원화,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섬 가꾸기를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원보존을 위해 꽃과 나무 식재, 군락지 정비, 경관 정비 등의 실천전략이 포함되어있고, 관광자원화와 관련해서는 콘텐츠화, 토속 음식 상품화, 테마를 활용한 휴양마을 육성 등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지자체·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관광자원화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체험 프로그램 개발, 섬 인문학 여행 상품화, 웰빙·치유형 섬 밥상 발굴, 유희자원을 활용한 게스트 하우스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서 관련 현황 및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DB를 구축하여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도서관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정책은 전라남도 섬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유·무인도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역사·문화·자연 자원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시는 도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⁴¹⁾ 추진전략은 정주환경, 산업경제, 교통, 보건복지, 관광 분야로 제시되어 있으며, 각 도서별 특징 및 현황 진단을 통하여 추진방향을 도출하였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목표로 주민과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주제가 있는 고유 브랜드 구축, 향토산업 육성,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섬별 스토리텔링화와 섬 해설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참여에 기초한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개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휴식

41) 인천광역시(2016)

과 레포츠의 섬, 바다위의 정원섬, 환승관광의 섬,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감성의 섬, 자연과 사람이 치유되는 생명의 섬, 문화예술 창작의 섬, 안보의 섬 등 도서별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상남도에서도 가고 싶은 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대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동·남해권, 사랑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권, 육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육지권, 한산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산권, 가조도·칠천도·저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마산권, 거제 내도·외도에서부터 통영 매물도까지 포함하는 거제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개발구상을 설정하고 있다.⁴²⁾ 6개 권역의 개발구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권역별 연계 및 주변 도시와의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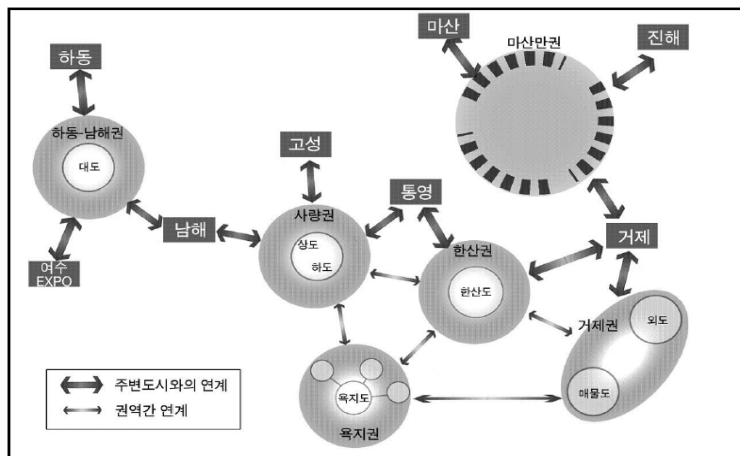
〈표 2-13〉 경상남도 도서권역별 개발구상 방향

권역	개발구상 방향
하동·남해권	접근성이 낮은 도서이며, 면적이 협소하여 관광시설 설치가 어려우나 하동군, 여수해양엑스포 등 인근 거점도시와의 연계관광을 추진함
사랑권	기본적인 관광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있어 추가 개발이 필요 없으며,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설정하여 체류·휴양형 관광목적지로 조성 가능함
육지권	휴양형 공간으로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을 개발하여 중장기 체류형 관광객 유도가능
한산권	클러스터형 개발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며, 주변 섬과의 여객선을 통한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
마산만권	육지와 근접해 있으며, 섬 특산물과 먹거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육지와의 접근성 개선 검토 필요
거제권	외도, 매물도, 소매물도, 내도 등과 연계한 클러스터 관광자원화 구축

자료: 마상열 외, 『가고싶은 섬 조성을 위한 개발구상』, 경남연구원, 2008, pp. 101~103.

42) 마상열 외(2008), p. 100.

〈그림 2-5〉 경상남도 도서권역간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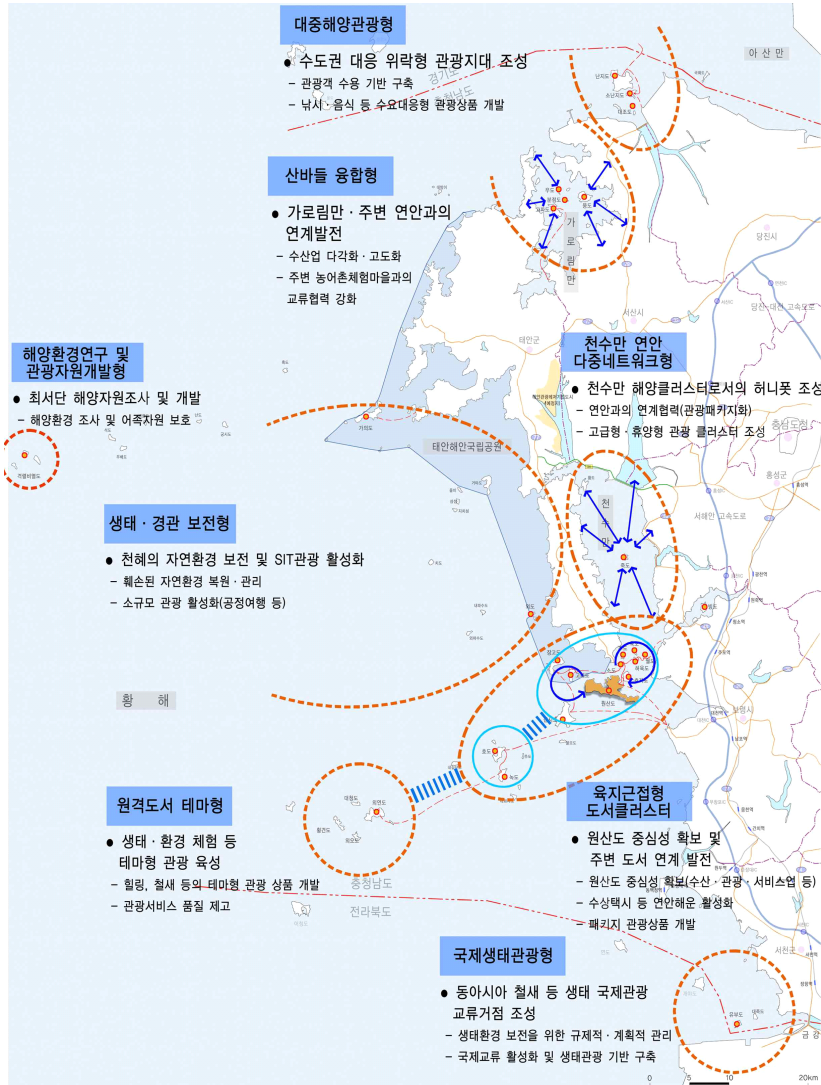


자료: 마상열 외, 『가고싶은 섬 조성을 위한 개발구상』, 경남연구원, 2008, p. 103.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지역 25개 도서를 대상으로 도서발전 기본구상을 수립하였다.⁴³⁾ 발전계획은 정주기반,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경관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관광 부문의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관광시설 및 관광지 개발, 관광상품 및 편의시설 제공,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 도서 네트워크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5개 도서를 대상으로 도서 유형별 발전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대중 해양관광형, 국제 생태관광형, 해양환경 연구 및 관광자원 개발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대중 해양관광형은 수도권 대응 위락형 관광지대 조성을 목표로 관광객 수용 기반 구축, 낚시나 음식 등 수요대응형 관광상품 개발 등이 포함되며, 국제생태관광형은 동아시아 철새 등 생태 국제관광 교류 거점 조성을 목표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생태관광 기반 구축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43) 충청남도(2014)

〈그림 2-6〉 충청남도 도서 유형별 발전방향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도서발전 종합계획』, 2014, p. 9.

제3절 국외 사례 분석:

일본의 도서지역 정비·활성화 정책

국외 도서 관련 정책과 관광을 통한 도서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도서지역 정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문화적 환경뿐만 아니라 법·제도 체계가 유사하며, 관광 트렌드 측면에서도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와 사회·문화·경제·제도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일본의 도서 관련 법제도와 도서 관련 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의 도서관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도서지역 해양관광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일본의 도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1) 일본의 도서 관련 법제도

일본의 도서 관련 법률은 「이도진흥법」과 「해양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1953년에 제정된 「이도진흥법」은 개정 당시에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13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 6차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10년 연장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도서 관련 법률은 당분간 현재와 같은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 목적 측면에서 이도진흥법은 이도의 진흥 및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며, 해양기본법은 해양의 종합적 이용과 관리 강화를 위해서 2007년

제정되었다. 이도진흥법은 아미군도, 오가사와라, 오키나와 지역의 진흥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이도진흥법을 포괄하고 있다. 즉, 이도진흥법이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법률이라면, 해양기본법은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해양영토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법률이다.

〈표 2-14〉 일본의 이도진흥법과 해양기본법 비교

구분	이도진흥법	해양기본법
제정배경	• 전국적 관점에서 도서의 정주 환경 개선(한시법)	• 해양영토분쟁 등의 지정학적 정세 반영 • 도서 및 해안에 대한 종합적 이용 관리방안 부재
대상도서	• 유인도서	• 유무인도서
도서 관리정책	• 도서의 보전, 관리 및 정비	• 해양영토 관리와 해양의 종합적 이용 관리
중점사항	• 산업기반과 생활환경 정비 • 도서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 해안 보전 및 해상교통안전 확보 •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시설 정비 • 주변해역 자연환경 보전 • 주민 생활기반의 정비

자료: 박진경,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서개발정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50집, 2017, p. 141

본 연구에서는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도진흥법과 관련 정책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도서지역에 원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일본의 도서 관련 정책

(1) 일본의 도서 정책 및 사업 현황

일본은 ‘수역에 둘러싸인 육지’를 도서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 등 4개의 큰 섬을 제외하고 오키나와 섬을 비롯해 나머지 땅을 섬으로 부르고 있다. 일본은 모두 6,851⁴⁴⁾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이 중 78지역 255개(2018년 4월 1일 기준) 섬을 「이도진흥법」을 근거로 하는 ‘이도진흥대책 실시지역’으로 규정하여 이도진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도진흥법」은 1945년 일본에서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북방 영토, 오가사와라 제도, 오키나와현과 이미 복속된 아마미 군도를 제외한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 주변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⁴⁵⁾

일본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보전, 해양자원의 이용, 다양한 문화의 계승, 자연환경의 보전, 자연 친화 기회 제공, 식료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국익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이도진흥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이 법을 근거로 도서지역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 및 산업적인 기반이 미흡한 도서를 지정하여,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하여 전기, 수도, 항만, 여항, 도로,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정비하고 의료와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⁴⁶⁾

일본은 「이도진흥법」과 이도진흥계획을 통해 도서지역 지원 및 특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도서특례 제도

44) 海上保安庁(1987)에는 6,852개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독도를 제외한 숫자임

45) 박진경 외(2015), p. 62.

46) 위의 책, p. 62.

는 재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우리나라에 비해 특례의 수준이 높고 세부 지원내역이 구체적이라는 특징이 있다.⁴⁷⁾

〈표 2-15〉 일본의 도서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 내용

구분	대상지역	특례 내용	세부 지원내역
이도 진흥법	대다수 유인도서	• 국고보조금 지원 • 무의사지구 의료확보에 대한 국가보조 • 지방채 • 고령자 복지증진 • 교통확보 • 농림사업진흥 • 교육의 충실 • 지방세감면 및 세수감소에 대한 국가보전	• 해안(높은 파도, 침식 대책): 11/20(일반적으로 1/2) • 도로: 최고 2/3까지(일반적으로 5.5/10)
시마네현 이도진흥 계획	오키시마, 다카시마	• 공항건설 지원 • 항공운행비 보조 • 항공운항촉진사업비 보조	• 공항건설보조: 8/10 • 항공운행비: 착륙료의 7/8, 이도운항노선에 대해 부품 구입비의 25%, 운항촉진사업비의 5/10 지원(제트기 운항촉진사업은 10/10)
아마미 및 오가사 와라 진흥 법률	아마미대도 등 8개 유인도서, 오가사와라 30개 도서	• 국고보조율의 상향 조정 • 지방채특례 • 농림수산업 진흥 특례 • 정보통신 특례 • 고령자 복지특례 • 지역문화의 진흥특례 • 인재육성 특례 • 지방세면세 특례 • 소득세, 법인세 특별상각제도	• 국고보조율 인상: 사업별로 구체적인 비율을 적시하며 최고 9/10까지 상향 조정 • 소득세, 법인세 특별상각제도: 6~10%까지 감면 • 지방세 면제: 지방세 면제로 인한 감소분을 지방교부세로 지원
오키나와 진흥개발 특별 조치법	오키나와현에 속한 유인도서	• 국고보조율 • 도로, 항만의 정비에 대한 국가대행 및 비용부담 •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또는 저가양도, 대여	• 국고보조율: 하천보수 9/10, 도로개축 9.5/10, 항만개수 9.5/10, 농업농촌 정비사업 9.5/1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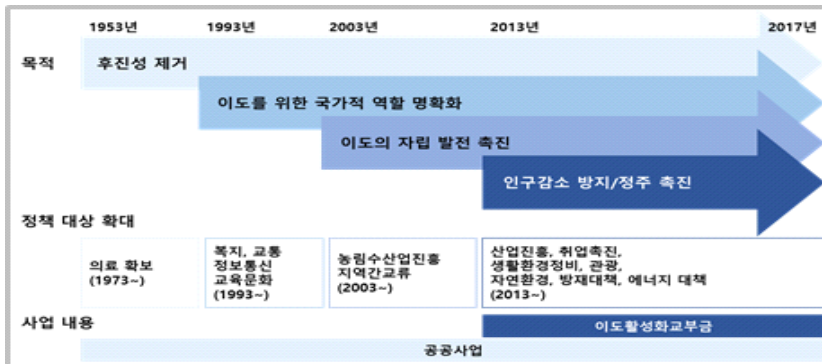
47) 하혜수·최영출·하정봉(2011), p. 238.

구분	대상지역	특례 내용	세부 지원내역
오키나와 진흥개발 특별 조치법	오키나와현에 속한 유인도서	- 기채특례 - 관광진흥 면세 특례 - 항공기 연료세 경감 특례 - 중소기업 진흥 특례 - 금융업무 특별지구 설치 특례 - 관광진흥을 위한 세제우대 특례	관광진흥 세제우대: 법 인세 20%까지 공제, 특 별토지보유세의 비과세, 사업소득세 비과세 등

자료: 하혜수·최영출·하정봉, 「지자체 특례제도에 관한 한·일·영 비교연구: 도서특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5권 제4호, 2011, p. 239

「이도진흥법(이하 ‘법률’)」은 1953년에 제정 이후 개정을 거쳐 2013년 4월 1일부터 6차 개정 사항이 시행되고 있다.⁴⁸⁾ 6차 개정의 목적은 이도의 인구감소 방지와 정주 촉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2-7〉 이도진흥법 흐름



자료: 국토교통성 내부 자료 활용해 저자 재작성

48) 섬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도진흥법」의 법률적 이념 및 목적은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함. 1993년 개정 시 ‘해양자원의 이용’이 이도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되었으나, 2003년 개정되면서 ‘국가의 영역보전’으로 의미를 바꾸어 배타적 경제수역의 보전 등 다양한 국가적 역할을 부여함. 2013년 개정에서는 이도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주무부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존의 물리적 시설정비 지원 외에 각종 소프트웨어 지원 시책을 대폭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한편 「이도진흥법」 6차 개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목적 규정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낙도의 증가와 낙도 인구의 현저한 감소의 방지 및 낙도의 정착 촉진’ 추가, ② 다양한 소프트 시책 등에 관한 배려 규정 추가, ③ 소프트 시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낙도 활성화 교부금 등 사업계획의 창설, ④ 관련 시책의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무 대신을 구체적으로 추가 등 종래의 하드웨어적 정비지원과 함께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방안을 확충함. 박진경 외(2015), p. 62. 참조

6차 법률 개정을 통해 「이도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2013년 4월 1일 시행) 개정 및 이도진흥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2013년 3월 29일 고시)을 수립했다. 각 도도부현 차원에서도 중앙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이도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이도활성화 교부금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시행령'은 '법률' 제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각 도도부현이 작성한 '이도활성화 교부금 사업계획에 기재된 사업' 및 정부가 매년 공표하는 '기타 이도진흥대책 실시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도진흥법」 제7조의4

국가는 매년도마다 이도활성화 교부금 사업계획에 기재된 사업 및 기타 이도진흥대책 실시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정령으로 정한 것 중에 해당 연도에 실시할 것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이도진흥법 시행령」(공표 대상인 이도진흥대책 실시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5조 법률 제7조의4에 규정된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에 열거한 사업으로 한다.

- (1) 항로 및 항공로를 통한 수송의 유지 및 사람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저렴화에 관한 사업
- (2) 휘발유 가격 저렴화에 관한 사업
- (3) 앞의 2가지에 열거한 것 외에 이도진흥대책 실시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대신, 총무대신 및 농림수산대신이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대신과 협의하여 지정한 사업 등

‘기본방침’은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도활성화 교부금’은 2013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도지역 활성화 추진 및 정착·거주 촉진을 위해 조성된 자금으로, 해상수송비의 절감과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확대, 관광추진을 통한 교류 확대 촉진, 안전한 거주 여건의 정비 강화를 위해 각 시정촌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성은 법령을 근거로 이도의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이도지역 활성화를 통한 정착과 거주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이도의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해 ‘이도진흥 방안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도진흥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도진흥 방안 검토 위원회’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4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도진흥 방안-이도진흥 Action Plan’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⁹⁾

〈이도진흥 방안-이도진흥 Action Plan〉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 단체의 이도에 관한 정보발신의 확대 추진
- (2) 관광촉진을 위한 ‘체재교류형 관광’이라는 관점에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관광전략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의 확대(이도활성화교부금을 이용한 지원)
- (3) ‘관광지역’ 조성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도 지역 간의 연계정책 추진
- (4) 관광 및 ‘해업(海業)’ 창설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편성과 지방자치단체 나 지역조직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 (5)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이도센터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이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거나 육성할 것
- (6) 이도와 기업의 연계를 위한 사례 및 기본적인 방법론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 조사하여 국토교통성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할 것
- (7) 이도와 기업의 연계를 위한 교류의 장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
- (8) 정부와 지자체가 이도와 기업 간의 연계 방안 및 수요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하고 시행할 것
- (9) 정부 및 일본 이도센터 등은 ‘아이란다’에 참가한 이도 관계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를 검토하고 시행할 것
- (10) 정부가 주도하여 산학관이 연계한 이도진흥을 위한 심포지움을 이도에서 개최할 것
- (11) 정부와 지자체는 이도활성화교부금 제도를 이용한 이도 유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12) 폐교를 활용한 ‘작은 거점’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를 도모할 것
- (13) 정부와 지자체는 이도의 관광촉진을 위한 경관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할 것
- (14) ‘관광지역’ 조성 및 ‘해업’ 창설에 필요한 지역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도특구제도’를 창설할 것

49) 일본 국토교통성, <http://www.mlit.go.jp/common/001122030.pdf>(검색일: 2018. 6. 4.)

- (15) '이도특구제도'의 의료분야에 대한 적용(원격의료 등)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검토하고, 기타 특구제도를 이용한 이도의 의료분야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16) 지자체는 연속보호체계형 노인주거환경(CCRC) 및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등의 사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것
- (17) 이도에서 IT를 활용한 교육을 충실화하고, 특구제도를 이용하여 IT를 활용한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자료: <http://www.mlit.go.jp/common/001122030.pdf>(검색일: 2018. 6. 4.)

‘이도진흥 방안-이도진흥 Action Plan’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섬 바람(しまかぜ)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도와 도시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아이란다(アイランダー)’사업, 이도와 기업 간의 연결을 촉진하기 위한 ‘시맛칭구(しまっちん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 섬 바람(しまかぜ) 구상

섬 바람 구상은 국토교통성이 2018년 3월에 발표한 ‘국토교통 focus 2018’에 수록된 ‘사회의 활력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⁵⁰⁾ 국토교통성은 ‘섬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16〉 섬 바람 구상의 내용

사업	세부 내용
청년과 외국인을 활용한 이도창생 프로그램	• 섬과 인연이 있는 외국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섬의 매력 홍보 • 취미여행(코스튬플레이 등)의 장려 • 섬과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
미래의 이도 이주자 창출	• 가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섬 생활 체험 • 이도로의 유학을 강화 • IT기술을 활용한 학습 환경 향상
근무환경 개혁을 이도에서 실험	• Satellite Office 및 Tele-work를 활용한 근무환경 개혁을 이도에서 실험

자료: <http://www.mlit.go.jp/common/001229962.pdf>(검색일: 2018. 6. 4.)

50) 일본 국토교통성, <http://www.mlit.go.jp/common/001229962.pdf>(검색일: 2018. 6. 4.)

정책의 내용은 ‘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섬으로 불어가는 새로운 바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와 청년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이도를 찾아가는 흐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섬 지역이 ‘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일으키고 이것이 도시에서 다시 ‘섬으로 불어가는 새로운 바람’을 창출하여 새로운 ‘섬 바람’이라는 대류 체계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성은 ‘섬 바람’을 창출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구축 및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도를 망라하여 소개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청년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아이란다(アイランダー) 사업

아이란다 사업은 섬의 자연·역사·문화·생활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섬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섬 출신자의 귀촌과 이도와 도시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토교통성과 일본이도센터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이란다 사업은 매년 도쿄에서 개최되며, 전국의 섬 주민들이 지역의 특징을 살린 부스를 설치해 내륙 지역 주민들에게 섬의 특산물을 판매하고 전통예능 공연을 개최하는 등 섬의 매력을 홍보한다. 또한 공무원과 귀촌 경험자들로 구성된 ‘섬 생활 상담원’이 섬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체험형 워크숍을 개최한다. 본 행사는 섬 이주 희망자에게 이주 시 주택, 구직, 유학, 행정 등의 지원 제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섬 지역에 이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 2-8〉 아이란다 홍보물 및 행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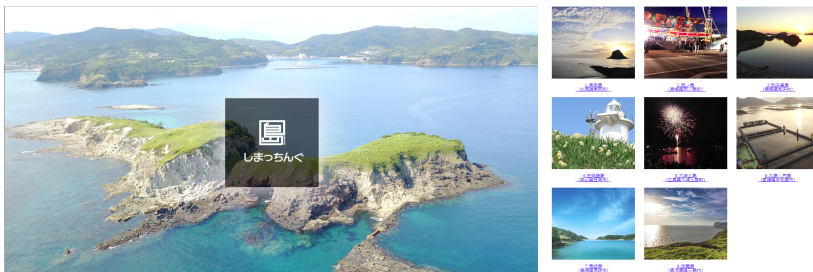


자료: <http://www.mlit.go.jp/common/001227320.pdf>(검색일: 2018. 10. 18.);
www.i-lander.com(검색일: 2018. 6. 6.)

다. 시맛칭구(しまっちんぐ) 사업

시맛칭구 사업은 국토교통성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이도와 내륙의 기업을 연결해 이도 주민이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2-9〉 시맛칭구 홈페이지와 사업 참여 도서



홈페이지

사업 참여 도서

자료: <https://shimatching.mlit.go.jp>(검색일: 2018. 6. 4.)

본 사업은 섬 지역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익사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를 통

한 컨설팅 지원, 이도와 기업 간의 교류회를 개최하여 대화를 통한 단계적인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섬 주민들의 수익 사업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그림 2-10〉 시맛칭구 교류회 전경



자료: <https://shimatching.mlit.go.jp/#about>(검색일: 2018. 6. 4.)

시맛칭구 사업은 사업 기획자가 섬을 방문하여 섬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섬 주민과의 워크숍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과정을 수차례 거친 후 섬 주민과 기업 담당자가 직접 대화를 통한 교류와 상담을 실시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기획자가 매개가 되어 상담을 지원한다. 이도 주민들과 기업의 의견이 일치되어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게 되면 국토교통성은 ‘시맛칭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을 홍보하여 섬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2-11〉 ‘시맛칭구 페스타 2016’ 전경



자료: <https://shimatching.mlit.go.jp/#about>(검색일: 2018. 6. 4.)

라. 기타 정책사업

앞서 언급한 섬 바람 구상, 아이란다 사업, 시맛칭구 사업 외에도 국토교통성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활성화를 통해 섬 지역으로의 정착 및 거주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항로, 항공로, 항만, 공항, 도로 등 교통시설 및 통신시설 정비와 사람의 왕래 및 물자 유통 비용의 절감 방안 마련, 농림수산업, 상공업 등 산업 진흥 및 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어항, 산림도로, 농지, 전력시설 등의 정비 등 정주여건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의 이도진흥과 관련된 사업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¹⁾

〈표 2-17〉 국토교통성의 이도진흥 관련 사업 및 세부 내용

사업명	세부 내용
이도 정착 및 거주 촉진을 위한 지원	- 지역 활성화 추진을 통한 정착 및 거주 촉진을 위한 지원(이도활성화교부금사업) - 지역의 정보 발신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 - 방재대책 강화를 위한 지원 - 이도 지역에 대한 세제혜택제도(할증상각제도)
교통 및 통신시설 정비, 물류 비용 절감	- 이도 항로 운영비, 이도 항공로 운영비, 이도주민 운임 할인 보조 - 이도 항로 구조 개혁 - 초고속 인터넷 기반 정비
산업 진흥 및 자원 개발 촉진을 위한 시설 정비	-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업 진흥 추진: 중산간지역 직접 지불 교부금, 다면적 기능 지불 교부금, 농산어촌 진흥 교부금, 경작포 기지 재생 이용 긴급대책 교부금, 조수피해 방지 종합대책 교부금, 삼림정비지역 활동 지원 교부금, 이도어업재생 지원 교부금 등 지원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 진흥 추진: 농산어촌진흥 교부금, 이도어업재생지원 교부금 지원
고용기회 확대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 고용개발 장려금, 실천형 지역고용창조사업을 활용한 지원

51)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 일본 국토교통성 이도진흥 관련 사업' 참조

사업명	세부 내용
생활 환경 정비	•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교부금 활용, 폐기물처리시설 정비 • 간이수도시설 정비보조 및 생활기반시설 내진화 교부금 지원
의료 환경 정비	• 벽지 보건의료 대책비, 벽지진료소 운영비 지원 • 의료시설 및 의료시설 설비 정비비 보조
이도 임신부 건강진단·출산 관련 지원	• 건강진단이나 출산을 위해 지출하는 교통비 및 숙박비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개호 서비스 확보	•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 개호 추가 • 방문개호 사업자에게 조성금 교부
고령자 복지 및 기타 복지 증진	• 고령자 의료 및 개호의료 비용 보조 • '생활지원 하우스' 설치 비용 보조 • '특별 지역형 보육급부비 제도를 통해 벽지보육소 운영 비용 보조
교육 및 문화 진흥	• 교육 진흥: 이도 고교생 학습지원 사업, 공립학교 시설정비 경비 보조, 교직원 확충,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생애학습 추진 • 문화 진흥: 국보·중요문화재 보존정비비보조금,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 • 주변 해역 부존 해양자원 조사, 연구
관광 개발	• 농산어촌진흥교부금을 활용한 체재교류형관광 추진 • 이도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 추진: Green Tourism, Blue Tourism, Eco Tourism
국내외 교류 촉진	•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 사업, 체재교류형 관광 등을 통한 인적 교류 촉진 • 아이란다 사업, 시맛칭구 사업 추진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	• 이도 및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 추진 • 해양쓰레기 처리: 국립공원 민간 활용 특정 자연환경보전 활동, 해안 표착물 지역 대책 추진 사업 등 활용
재생에너지 이용 및 기타 에너지 대책	• 이도 저탄소지역구축추진사업을 활용한 자립·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재생에너지 활용 • 지역 생산 재생에너지 사업화 가능성 조사 지원 • 이도 휘발유 유통비용 지원 사업
재해 방지를 위한 국토보전시설 정비	• 방파제 건설 등 국토보전시설 정비 사업 • 이도지역의 자립적인 피난활동을 위한 피난시설, 비축창고, 통신 설비 정비 • 재해 대비 교육 및 훈련, 구조 시스템 정비 • 영도 보전을 위한 해안보전대책 추진

자료: <http://www.mlit.go.jp/common/001190202.pdf>(검색일: 2018. 6. 4.)

(2) 일본의 도서 관련 기관 현황

일본의 도서 관련 정책은 국토교통성의 국토정책국 이도진흥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도진흥과는 일본 도서 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영토 관리 차원에 입각해 이도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도로의 이주를 위한 본토와의 교류 촉진, 이도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정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의 도서 관련 기관과 업무 영역을 분담하고 있는데, 도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민간 기관으로 일본이도센터를 들 수 있다. 일본이도센터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공익재단법인으로, 전국 도서지역으로부터 지역의 도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정보를 취합하여 홍보하고 도서 관련 통계 자료를 발간하는 등, 도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체적인 홍보 활동 외에도 정부의 이도진흥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며 통계 자료집과 도서 백과사전 등 도서 관련 서적과 학술자료 편찬 등, 도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아이টে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아울러 오가사와라 협회, 오키나와 이도진흥협의회, 전국이도진흥협회의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도서 이용 활성화 단체들이 활동 중이다.⁵²⁾

52) 일본의 도서 관련 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일본 이도진흥 관련 기관 현황' 참조

2. 일본 도서관관 정책

1) 도서관관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도진흥 방안 검토 위원회’의 ‘이도진흥 방안-이도진흥 Action Plan’에 따라 섬이 지닌 매력 있는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섬 지역 내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기 위하여 2017년 ‘체재교류형 관광을 통한 이도창생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⁵³⁾ 이 계획은 체재교류형 관광, 즉, 섬 관광 및 섬 순회 관광⁵⁴⁾을 통한 이도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향후 이도관광 활성화 정책의 방향성을 규정한 것이다. 이 계획의 목표와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체재교류형 관광’을 통한 이도 활성화 추진

자연, 역사, 전통문화, 산업, 생활양식 등과 같은 섬이 지닌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여행자의 수요에 대응한 섬 안에서의 다양한 체험 및 학습활동 등에 소비를 촉진하는 관광 형태를 조성한다. 또한 관광 관련 사업자(토산물가게, 숙박업자, 교통업자 등) 뿐만 아니라 보다 큰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관광지역’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2) ‘체재교류형 관광’을 통한 ‘도업(島業)’⁵⁵⁾의 성립

‘체재교류형 관광’을 통해 섬 전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도업을

53) 일본 국토교통성, <http://www.mlit.go.jp/common/001182906.pdf>(검색일: 2018. 6. 4.)

54) 예를 들어 자연 체험, 역사 배우기, 전통 문화 체험, 특산물 맛보기, 생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관광

55) 농림수산업을 비롯해 섬 독자적인 자연, 역사, 전통문화, 산업, 생활양식 등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전개하는 생산에서 서비스 제공까지의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함

(島業)을 확립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섬 내에서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공평성의 관점에 유의하여 섬 전체의 경제순환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섬 관광·섬 순회 관광 안내자’를 활용한 일원적 대응

‘체재교류형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도서지역에서 머물 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창구가 필요하다.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섬 관광·섬 순회 관광 안내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섬 주민과 정부가 공동으로 고안하고, 전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4) 관광정보 제공 강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

섬과 섬의 연계를 강화하여 각 섬들이 공동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섬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기반 시스템(이도 포털사이트)’을 구축해야 한다. ‘정보교류 기반 시스템’을 통해 이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매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을 포함한 여행자를 위한 충실한 정보 제공, 행정기관 및 관계자 간의 정보 공유 강화 등을 달성할 수 있다.

(5) 이노베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섬 외부인과의 교류 기회 확대

도서지역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섬 외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도서지역의 혁신을 위해 섬과 외부 기업 간의 교류 강화, 섬과 타 지역 간의 교류 강화, 섬으로 외부인이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표 2-18〉 체재교류형 관광을 통한 낙도창생계획의 구체적인 조치 및 사례

조치	사례
1) '섬 관광, 섬 순회 관광' 전개에 따른 도업(島業) 전략 마련 ① 섬의 문제점과 위기감을 정부, 유관 단체, 비영리 단체(NPO), 섬 주민 등, 섬 전체가 공유 ② 섬전체가 수익을 내는 구조로 도업(島業)을 확립 하거나 관계자의 연계·융합을 도모하면서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 ③ 섬 고유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전략 마련 · 매력적인 자원의 가치를 육성하고, 그 활용 방안을 구체화 · 섬 관광 유치 대상의 명확화 · 섬의 대응 체제 구축 ④ '섬 관광, 섬 순회 관광' 일원화 창구로 '섬 관광, 섬 순회 관광 안내자' 규정 ⑤ '섬 관광, 섬 순회 관광 안내' 지원 체계 구축	• 아이치현 히마카섬(日間賀島) - 어협과 관광협회가 협력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 - 문어, 복어 브랜드화 및 여행상품 개발, 인근 가족 층과 그룹에게 관련 정보 제공
2) 섬 관광 촉진 프로그램 마련 · 농어업인, 각종 단체, 주민 등 관계자와 협력하면서 섬 관광을 촉진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섬 외부전문가 등의 견해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제공 등 매력적인 메뉴 개발. 섬 외부인의 아이디어와 평가를 참고하는 것도 효과적 · 악천후로 배편이 결항하는 경우에 대비해 본토와 연계한 프로그램 마련	• 아이치현 히마카섬(日間賀島) - 행복섬(문어섬)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광 비수기(10월~3월)에 잡히는 복어에 착안하여 복어요리를 제공하고 비수기 관광객 유치에 성공
3) 도업(島業) 심화 노력 ① 숙박시설, 가이드 매력 제고 · 숙박시설 품질과 가이드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연수나 매뉴얼 제작을 통해 일정 수준 확보 필요 ② 정보 발신 · 각종 정보(체험 상품, 숙박, 음식, 교통수단 등)를 일원적으로 수집·제공. 관광객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안내하고 상담 · 검색·예약 기능을 충실하게 제공해 관광객이 손쉽게 여행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 제공	• 이와테현 다노하타촌 -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안전교육, 가이드 교육, 시찰연수 등을 통해 주민 가이드 육성 • 나가사키현 오지카섬 -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설치하고 홍보, 고객 스테이, 레스토랑 등 사업 운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 섬 여행'을 운영하고, 여성 관광객을 위한 웹사이트 등에서 정보 발신

조치	사례
③ 경관, 역사유적, 자연환경 보전·관리 · 경관, 역사유산, 자연환경 등의 자원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보전·관리하는 것이 중요 · 자원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도쿄도 미쿠라섬 - 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쿄도에 의한 인증 가이드 제도, 인근 미야케 마을과의 협정 등으로 1일 돌고래 관찰 횟수 및 관찰선 척수를 결정
4) 정기적인 평가 · 대응 상황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선	

자료: <http://www.mlit.go.jp/common/001182906.pdf>(검색일: 2018. 6. 4.) 재정리

2) 일본 도서관광 활성화 사업 사례

(1) 여객선 이용 활성화 사업

일본은 여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선박 여행의 매력도 향상’을 중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발표된 ‘관광 입국 실현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 2015’는 ‘일본의 매력을 살린 유람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협의회를 창단해 연안 크루즈, 낙도 항로, 유람선 등 다양한 연안여객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여객선 및 터미널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관광 비용 절감을 위한 연안여객선 연계 교통패스 제도 마련, 다양한 테마의 연안여객선 관광상품 개발, 신규 항로 개발 등, 연안여객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객선업체, 여행업체, 지역 관계자 등은 선박 여행에 대한 친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이용자 요구에 맞춘 여행상품의 개발, 판매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여객항로를 대상으로 ‘선박에서 보는 풍경 100선’을 선정하는 등, 연안

여객선 이용객들이 직접 참여해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해 연안여객선에 대한 이미지 향상과 선박 여행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⁵⁶⁾

〈그림 2-12〉 일본 여객선 이용 활성화 사업 사례



연안여객선 연계 교통 패스



테마 연안여객선 상품

자료: <http://www.tb.mlit.go.jp/kobe/content/000032812.pdf>;

<http://www.mlit.go.jp/common/001119262.pdf>(모든 자료 검색일: 2018. 6. 7.)

(2) 이도창생계획 관련 사업

일본은 관광산업을 경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⁵⁷⁾ 일본은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을 근거로 중기 계획으로 「관광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된 제1차 계획(2007~2011)과 제2차 계획(2012~2016)에 이어, 현재 제3차 계획(2017~2020)이 4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적용되고 있다.⁵⁸⁾ 제3차 계획은 성장동력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경제발전 및 지역 활성화, 국제 상호이해 증진, 생활안정 향상, 재해·사고 등 리스크 관리를 기본방침으로 설정하고 있다.⁵⁹⁾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일본의 관광정책 및 관련 사업은 각 지역의 컨셉과 스토리를 살려 관광객의 지

56) 국토해양부(2012), p. 102.

57) 신용석(2017), p. 23.

58) 조아라이성태(2016), p. 23.

59) 신용석, 앞의 책, p. 23.

역 분산을 유도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정비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⁶⁰⁾ 또한 정책사업 추진 시 사업 초기부터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기보다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수준으로 사업을 시작해 연차별로 사업 내용을 심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림 2-13〉 도서지역 빈집 활용 관광상품 사례



고택 레스토랑

고택 스테이

자료: <http://ojikajima.jp/category/kominkastay/kominka>(검색일: 2018. 6. 7.)

이는 도서관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 원칙으로, 일본의 도서는 지역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서지역의 인구가 줄면서 늘어나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레스토랑이나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림 2-14〉 도서와 육지의 인적·물적 교류 사업



대학과 도서간 결연(대마도와 도쿄대)

수학여행(오사카카미지마)

자료: <http://www.mlit.go.jp/common/001229954.pdf>(검색일: 2018. 6. 7.)

60) 위의 책, p. 66.

또한 도서지역에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도서와 육지가 교류 및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육지의 대학과 도서가 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하거나, 중고교와 도서가 협약을 맺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등, 도서지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2-15〉 도서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활용한 사업



서바이벌 게임장(니지마무라)



해녀 오두막(토시섬)

자료: <http://www.mlit.go.jp/common/001229954.pdf>(검색일: 2018. 6. 7.)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관광을 통해 도서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서가 가진 격절성과 자연 환경 자원을 활용한 서바이벌 게임 프로그램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기보다 도서의 생활상과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3) 일본 도서관광 정책 추진 방향

일본 국토교통성은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에 직면한 이도 지역에 관광 촉진을 통한 지역 진흥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성 내 종합

정책국, 도시·지역정비국, 해사국, 항만국이 협력하여 이도지역 관광 교류 촉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의 논의를 거쳐 2007년 일본 도서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이도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의 메시지’를 도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9〉 ‘이도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한 제언’의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이도지역의 매력 재발굴	• 이도지역의 매력은 자연을 물론 일상적인 섬 생활 자체가 매력임 • 이도지역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매력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재발견하여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함
일상적인 섬 생활 속의 매력 발굴	•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 자기 지역에 대한 통찰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차이와 관련해서 시장가치가 높은 시기, 여행자의 수요 등과 같은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
이도지역의 풍부한 식재료 활용	• ‘맛의 보고(寶庫)-이도’라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장 평가를 분석 • 알기 쉬운 정보를 발신하여 이도의 ‘맛’ 재발견과 매력 향상을 위해 노력
여행자 입장에서 본 필요최소 시설 정비	• 여행자가 이도지역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숙박시설, 여행자의 수요를 고려한 필요최소한의 시설이나 체재환경 정비
지역 연계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	• 이도 상호간에 축제와 같은 정기행사 개최 및 상호간의 교육 교류 등을 통해 장기간 지속적인 왕래 추진 • 상호이해 및 지역 일체감 조성
본토와 연계한 홍보 및 관광객 유치	• 관광교류 촉진 및 지역진흥을 위해 이도와 본토를 하나의 관광권으로 설정 • 각각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상호간에 보완 • 지역 전체의 매력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
이도 주민의 의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	• 서비스업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여행자 체험을 통한 의식 개선 필요
인재육성을 통한 이도관광 진흥 추진	• 이도 지역 관광 진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육성(이도 진흥 프로듀서)

구분	세부 내용
이도 주민의 의식 향상	- 지역 활성화의 방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역 현황, 개선점을 지역 주민이 스스로 인식해야 함 - 지역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 및 시스템 구축
접객 경험을 통한 서비스 향상	관광 관계자는 여행 경험을 쌓아 여행자로서의 감성과 시점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
좋은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 연출	항구나 뱃길에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연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위한 여행계획 개발	지역을 분석하여 이도 지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여행 계획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지속적인 지원정책	관광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생활 항로와 관광교류의 상승효과 인지	이도관광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섬사람들의 생활을 위한 이도 항로 활성화와 연계된다는 인식 공유
알기 쉽고 일원화된 정보 발신	이도 지역을 통괄하는 조직을 창설하여 대외적인 종합 안내 창구 기능이나 여행상품 조성 기능 강화
여행사에 알기 쉽게 정보 전달	여행상품 개발을 담당하는 여행사에게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이도를 알리는 기획을 통한 중장기적인 조치	- 이도의 정보를 발신하는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추진 ‘배에서 바라본 풍경 100선’, ‘일본의 섬 100선’ 등 활용

자료: http://www.mlit.go.jp/kisha/kisha07/01/010706_3/02.pdf(검색일: 2018. 10. 12.) 재정리

향후 일본 정부는 관광을 통한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서지역만의 매력 발굴, 관광객 편의시설의 확충, 홍보 및 정보 제공, 주민 인식 개선 및 관련 전문가 육성, 도서관광 프로그램 개발, 이벤트 및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는 높은 성과를 내는 우수 지역에 대해 보상하고, 도서지역 주민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국토교통성이 추진 중인 ‘체재교류형관광’, ‘이도창생계획’, ‘아이란다’, ‘시맛칭구’ 사업 등 일련의 이도 활성화 정책은 이도

지역관광교류촉진위원회가 제출한 제언을 통해 발굴되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재와 동일한 방향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표 2-20〉 ‘이도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한 제언’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제언

사업	세부 내용
우수 지역에 대한 보상	• 정부·지역·관계자가 일체가 되는 지원이 중요 • 지원을 하는 측과 받는 측 모두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
정부의 지원체제 구축	• 관계 부처 간 연계 강화, 정보를 공유하여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위한 창구 개설 • 지역 수요에 초점을 맞춘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제공

자료: http://www.mlit.go.jp/kisha/kisha07/01/010706_3/02.pdf(검색일: 2018. 10. 12.) 재정리

3. 시사점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의 도서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영토 관리 측면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도서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은 도서의 무인화를 방지하고, 유인도서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이도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여 무인도서와 유인도서를 구분하지 않고 본토와의 교류 및 경제 협력을 통해 도서에 정주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책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도서관광 또한 무인도서의 유인도서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섬 생활과 자연환경에 매력을 느껴 정주할 수 있도록 도서 매력화 사업, 도서 주민 인식 교육, 고택 리모델링 사업 등, 도서만이 가진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도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인 국토교통성은 톱다운(Top-down) 방식을 지양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취합해 우수 사업 아이템을 전국적으로 홍보·확산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폐가를 리모델링하여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거나 섬의 특산물을 이용한 메뉴를 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한편 민간 기관인 일본이도센터는 자체 수익사업 외에 도서지역 지자체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므로 도서 활성화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여 계간지를 통해 전파하고 있으며, 각 도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행사들을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방문, 이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 도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마다스’를 편찬해 섬에 대한 정보를 망라했으며, 등산 장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섬에 위치한 명산 100개소를 소개하는 도서를 발간하는 등, 도서지역이 가진 매력과 관광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국민들이 섬에 대해 친밀감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며, 도서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 3 장

도서지역 해양관광 도입여건 분석

국내 도서지역 발전 정책과 관광 관련 정책사업 동향에서 보듯이 국내 도서지역 개발사업은 낙후 도서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관광여건 확보 및 지역 소득개선으로 구분된다. 이번 장에서는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도서지역 해양관광 도입여건을 분석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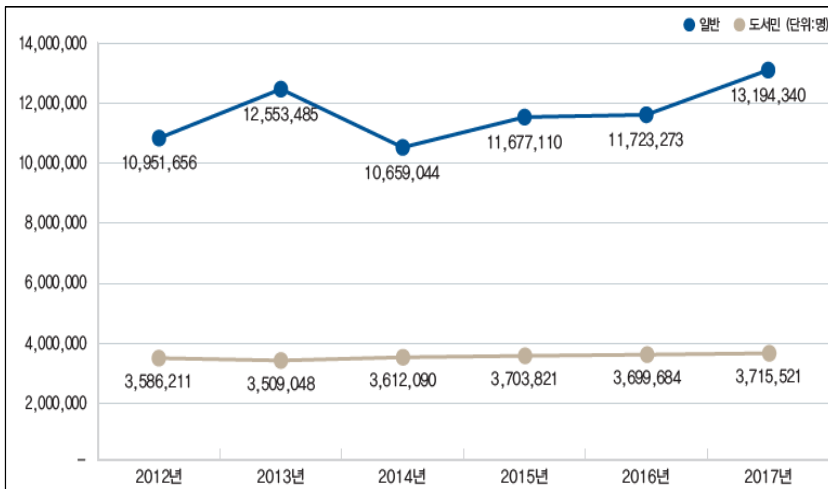
도서지역의 해양관광 도입여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우선 관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자원과 관광수요, 관광상품 등의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도서지역 이용환경과 관광상품 공급여건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아울러 도서지역 관광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도서관광에 대한 인식과 관광활동 이용실태, 활성화의 제약요인을 도출하도록 한다.

제1절 도서지역 관광 트렌드 분석

1. 도서지역 방문 수요

우리나라에는 도서지역 방문형태나 방문수요 등 관광활동 분석을 위한 별도의 통계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 도서지역 방문수요는 연안여객선 이용 현황 자료를 통해 지역별 방문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국내 도서지역 방문자 규모를 도서지역민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도서민 3,715,521명, 일반인 13,194,340명이다.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연간 37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광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일반인은 2014년 이후 매년 높은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어 도서지역 방문수요 자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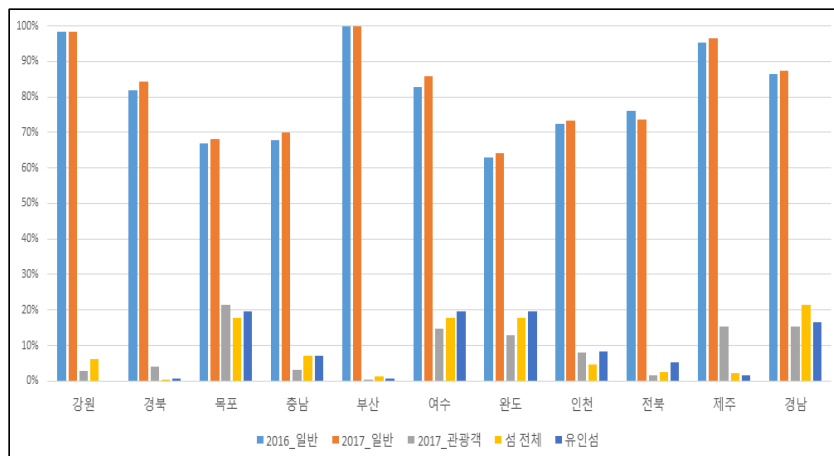
〈그림 3-1〉 도서지역 방문수요 증가 추이



자료: 한국해운조합, 『2018년도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2018, p. 6

도서지역 방문수요를 지역별로 구분하고 이를 관광객 방문비중 및 전체 도서, 유인도서 분포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 3-2>와 같다. 전체 도서지역 방문수요 중에서 일반인 방문수요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지역과 강원지역, 제주지역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비중이 100%, 98%, 95%를 차지하고 있어 관광활동 비중 자체는 매우 높다.⁶¹⁾ 한편 2017년 도서지역 일반인 방문객(1,300만 명)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전남권(목포 21%, 완도18%, 여수 15%)과 경남권(22%)의 도서지역 일반인(관광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도서 및 유인도서 분포 또한 이들 지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국내 도서지역 방문수요는 크게 전남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인천권(8%)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높다.

<그림 3-2> 연안지역별 도서지역 방문 특성 분석



자료: 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각 연도

61) 부산의 연안여객선 이용수요는 부산↔제주간 이용수요이며, 강원은 동해↔울릉도를 여행하는 수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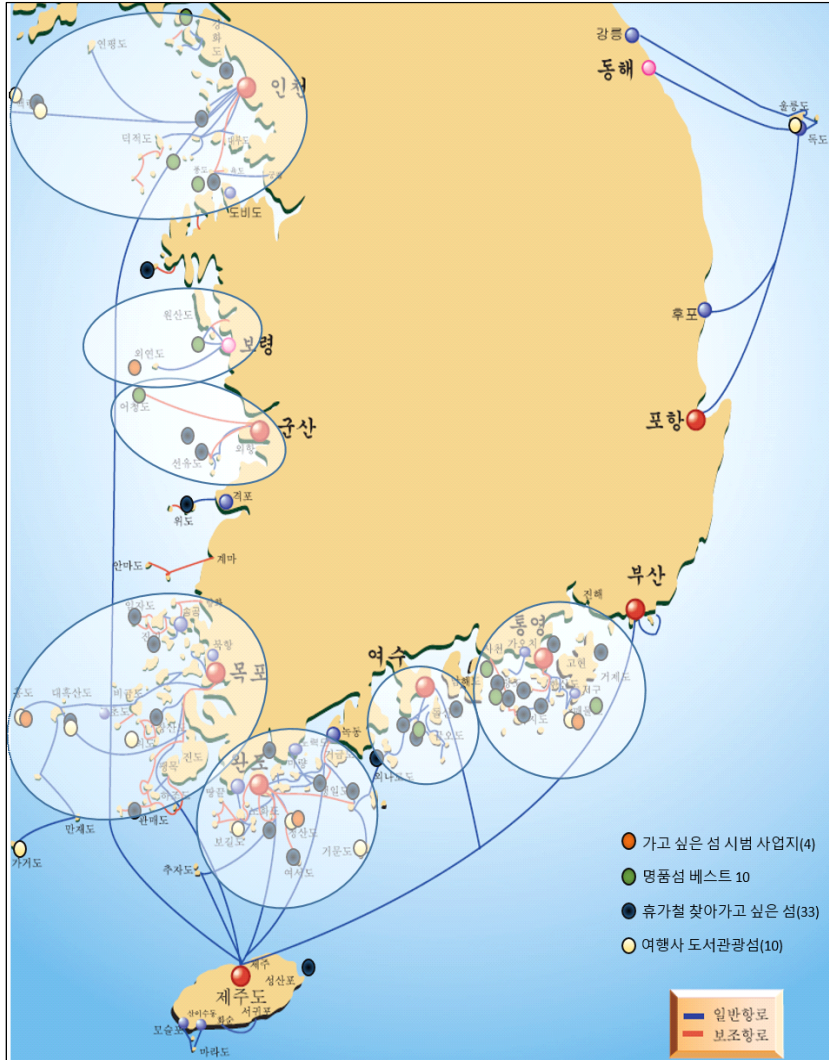
연안지역별 도서지역의 방문특성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방문 비중이 높은 지역을 지역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3>과 같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지역 4개 도서, ‘명품 섬 베스트 10’에 포함된 10개 도서,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개소, 여행사가 주로 판매하고 있는 도서관광 상품 10개를 지역별로 보면 우선, 연안지역별 방문특성과 유사하게 전남권과 경남권, 인천권 도서지역이 관광활동 목적지로 평가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관광활동이 활발한 도서가 중복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개소는 지난 3년간 지정된 99개 도서 중 2회 이상 지정된 도서가 31개로 나타났으며 3년 연속 지정된 지역도 4개로 나타났다.⁶²⁾ 관광상품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 중복 지정되는 것은 관광수요 확보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양한 도서관광 상품 발굴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도서지역은 해당 섬을 선정한 테마가 연도별로 다르게 지정되어 대상지역의 선정이나 테마 부여 시 새로운 대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도서지역을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과거 시범사업이나 성공사례의 단계를 넘어 도서관광 목적지와 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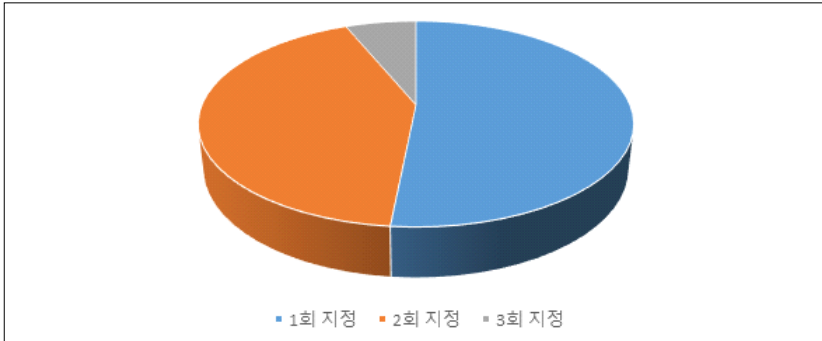
62)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은 도서지역을 ‘열섬’, ‘맛-섬’, ‘놀-섬’, ‘맞-섬’, ‘미지의 섬’ 등 5개 테마로 구분하여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사업을 실시함

〈그림 3-3〉 도서지역 방문 권역 분포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4〉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33섬, 2016~2018)



자료: 저자 작성

2. 도서지역 방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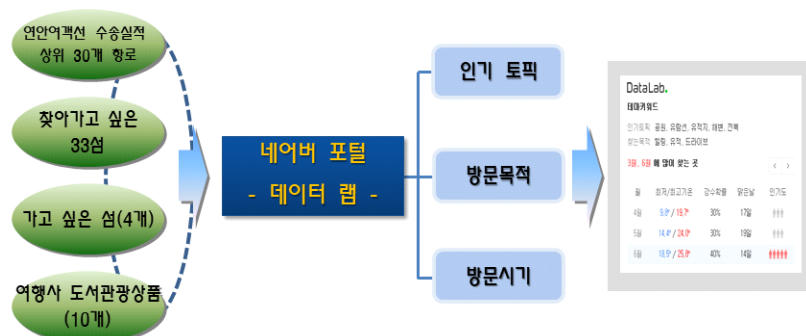
1) 도서지역 방문목적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지역의 관광수요에 대한 기초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한편 앞서 도서관광 수요 및 자원, 이용비용에서 보듯이 도서관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통계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도서지역 관광 목적 파악을 위해 빅데이터 이용 트렌드를 고려하여 포털 사이트의 ‘데이터랩’을 활용해, 도서지역과 관련된 인기 토픽과 방문목적, 방문시기 등을 분석하였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데이터랩’은 포털 사이트 이용자의 정보 분석을 토대로 검색량과 검색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도서관광과 관련된 기초 트렌드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를 통한 도서지역 관광 목적과 관련된 트렌드 분석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분석한다. 도서관광 목적지가 되는 검색대상 도서를 선정하고, 이들 각 도서의 명칭을 ‘데이터랩’에 넣고 검색한다.

검색에 따라 개별 도서의 인기 토픽(5개)과 방문목적(5개)에 도출된 단어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유사 단어별로 정렬해 분석한다.

〈그림 3-5〉 주요 도서지역 방문목적 분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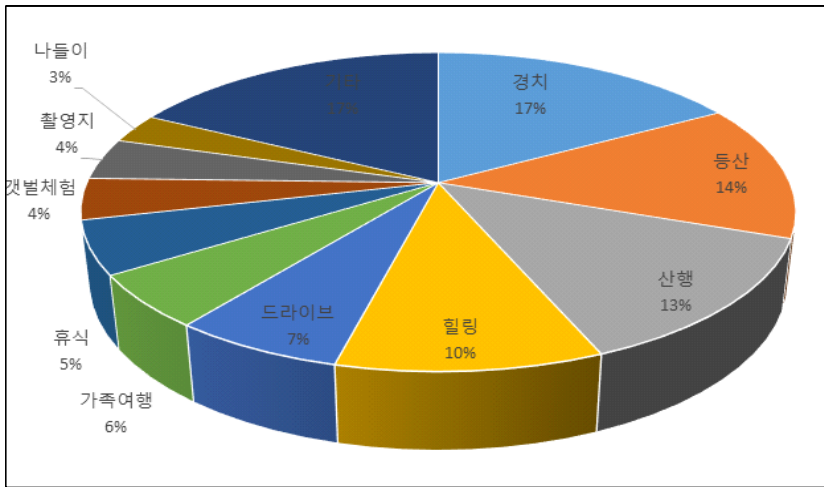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검색대상이 되는 도서(도서관광 목적지)는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상위 30개 항로에 포함된 도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찾아가고 싶은 섬 33섬,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4개 섬, 국내 도서관광 상품 상위 10개 섬 등 총 77개 지역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차 선정 도서 지역 중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2회 이상 선정된 지역만을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들 중 중복 지정된 도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최종 38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서관광 트렌드 분석을 위한 38개 도서지역의 방문 목적과 방문 배경(인기 토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서지역 방문 목적 분포를 살펴보면 경치(17%), 등산(13%), 산행(13%), 힐링(10%), 드라이브(7%) 등이 상위 5개 방문 목적으로 나타났다. 즉, 도서지역 방문 목적은 도서지역의 자연경관 감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서 지역 내 산악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활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해양관광과 연계해 보면 해안경관 감상이나 휴식활동을 위한 방문 비중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6〉 도서지역 방문목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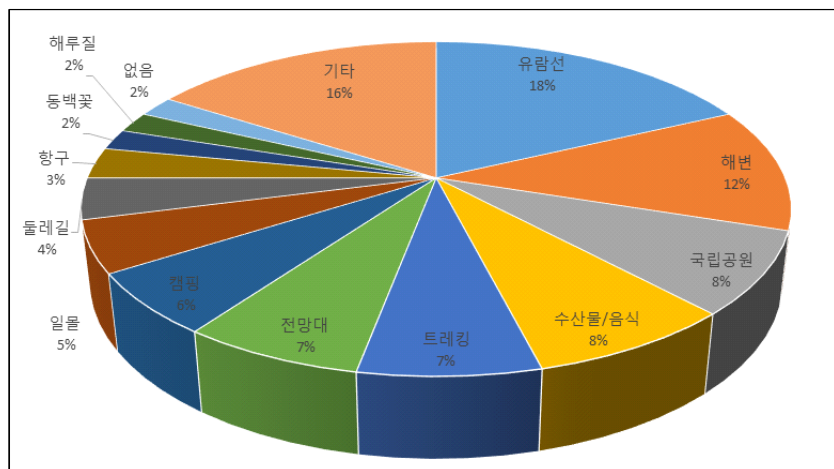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도서지역 관광활동의 인기 토픽(선호 배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 대상 38개 도서지역에서 190개의 인기 토픽이 검색되었으며, 유사 토픽을 분류·통합해보면 유람선(18%), 해변(12%), 국립공원(8%), 수산물·음식(8%), 트레킹(7%)의 순서로 도출되었다.⁶³⁾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도서지역 방문자들은 도서관광과 연계하여 유람선, 해변 등을 중요 도서지역 방문 요인(관광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분석에서 도출된 유람선이라는 토픽은 연안여객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검색 대상 도서지역은 모두 연안여객선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며, 유람선을 별도로 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63) 도서지역 인기토픽 중 수산물/음식 부분은 해당 도서의 바지락, 장어, 횡집 등의 개별 단어를 통합하여 합산함

〈그림 3-7〉 도서지역 방문 배경(인기 토픽)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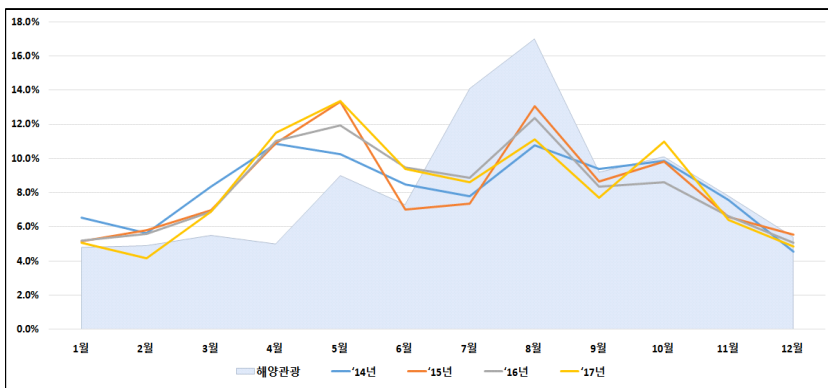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도서지역 방문자들의 방문 시기(월별 분포)와 해양관광객 분포를 상호 비교해 보았다. 도서지역 방문 시기는 연안여객선 이용통계자료의 월별 방문 데이터와 네이버 데이터랩의 방문 시기 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다. 그리고 해양관광객 분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한 해양관광실태조사의 월별 관광활동 분포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지역 방문객과 해양관광객의 월별 분포는 성수기에 다소 시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광은 5월과 8월, 10월이 성수기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양관광은 8월이 성수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도서관광 방문 목적 분석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도서지역 방문 목적 중 등산·산행이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해양관광은 하계 휴가철의 관광객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지역 관광객과 전체 해양관광객의 월별 분포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해양관광시장 차원에서 도서관광 상품을 해양관광의 한계인 하계집중의 계절성 해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도서지역 관광행태는 해양관광활동의 영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관감상 등 자연자원에 의존한 관광활동에서 벗어나 해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광상품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8〉 월별 도서관광객과 해양관광객 분포(2014~2017)



자료: 저자 작성

2) 도서지역 관광정보와 관광비용

관광활동자가 도서지역을 관광목적지로 선택할 때는 도서지역의 관광자원 외에 여행비용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국내에는 도서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별도로 분류하는 통계나 관광 상품 홍보, 여행비용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은 행정안전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된 도서지역에 대한 관광정보를 매년 소개하고 있다.

2018년에 선정된 33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여름 휴가철이라는 특성에 맞추어 해양관광자원(해수욕장, 수산물 시식, 다이빙체험)을 활용한 관광활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섬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등산이나 트레킹, 축제 등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이들 섬의 관광비용과 관련된 정보는 개별 도서지역별로 검색해야 확인이 가능하다. 33개 섬지역의 선박 운항횟수와 이동시간, 소요비용을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와 해운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교통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의 관광자원

도서명	주요 관광자원
장고도	명장섬해수욕장, 용난바위, 용굴
가의도	해안국립공원지역, 태안8경 중 하나, 오솔길(1.6km)
위도	위도8경, 트레킹코스
낭도	바닷길이 열리는 갯벌, 공룡발자국, 주상절리대, 낭도해수욕장
애도	난대원시림, 돌담길, 꽃정원
생일도	명때리기 좋은 곳, 금곡해수욕장, 금머리갯길, 백운산
관매도	관매8경, 관매도해수욕장, 솔숲
대마도	3개 해변과 습지, 해식동굴, 옛길
반월-박지도	소망다리, 다도해, 갯벌
수우도	기암절벽, 동백나무군락지, 수우도몽돌해수욕장
연대-만지도	연대도~만지도 출렁다리, 해안변 데크, 몽돌해수욕장, 일주 산책로
신수도	탐방로, 몽돌해수욕장, 야영장
자란도	청정해역, 수려한 풍경, 훼손되지 않은 숨은 섬
비양도	‘슬로우시티 섬’, 코끼리바위, 비양봉
영산도	우럭, 장어, 농어, 전복, 미역 ※ 주민공동식당(부뚜막) 운영
이수도	광어 등 회정식 제공 ※ 1일3식 관광숙박서비스 제공
장봉도	갯길길 7개 트레킹코스
대청도	풍부한 어족자원 보유, 갯바위낚시

도서명	주요 관광자원
무녀도	고군산대교 개통, '18.5월 오토캠핑장 개장
하화도	출렁다리, 하화해수욕장, 탐방로
가우도	짚트랙(L=973m), 출렁다리, 낚시체험, 트레킹코스(2.5km)
소안도	해양생태공원, 항일운동기념관, 탐방로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해변승마공원, 튜링축제, 카약체험, 갯벌체험
우도	창원해양공원, 마리나방파제, 짚트랙L=1.2km, 7월말 개장예정)
연화도	트레킹코스, 바다 및 갯바위 낚시, 스쿠버, 출렁다리, 연화사
육지도	다이빙체험, 해상낚시, 해산물채취체험, 투명카누
세어도	생태계 훼손상태가 덜하고 원시성을 유지
방축도	해안경관, '18.7월 방축도 출렁다리 개통예정
연흥도	폐교를 활용한 연흥미술관, 유명작가와 주민이 만든 미술섬
장도	해안탐방로, 풍부한 해산물
병풍도	섬 사이를 연결하는 노두다리(징검다리), 전통음식(낙지)
추도	해안경관, 해안탐방로
여서도	하루에 2번 배가 운항하지만 기상에 따라 1주에 한번 운항할 때도 있음

자료: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travel/theme/content/cms_view_2548262.jsp
(검색일: 2018. 6. 7.)

〈표 3-2〉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의 선박 이용 여건

도서명	출항지역	운항횟수	선박 이용요금	소요시간
장고도	대천항	1일 3회 운항	19,300	1시간
가의도	안흥(신항)	1일 3회 운항	6,200	1시간
위도	격포항	1일 8회 운항	16,600	50분
낭도	백야항	1일 5회 운항	18,500/19000	1시간 25분
애도	나로도항	1일 6회 운항	3,000	5분
생일도	당목항	1일 7회 운항	3,300	25분
관매도	목포/팽목항	1일 3회 운항	45,100/26,000/ 22,000	6시간 57분/ 1시간40분/1시간
대마도	목포/팽목항	1일 2회 운항	42,900/24,000	6시간 42분/1시간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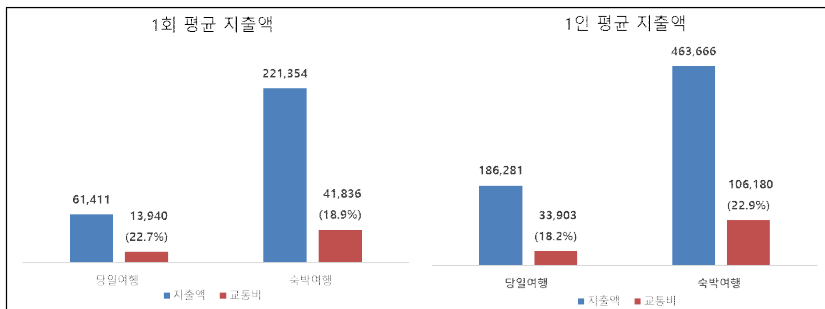
도서명	출항지역	운항횟수	선박 이용요금	소요시간
반월-박지도	북강항	1일 2회 운항	8,500	50분
수우도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연대-만지도	통영여객터미널	1일 2회 운항	20,000	1시간 30분
신수도	신수도여객터미널	1일 6회 운항	4,000	10분
자란도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비양도	한림항	1일 4회 운항	9,000	15분
영산도	흑산도	1일 2회 운항	10,000	10분
이수도	시방	1일 7회 운항	8,000	10분
장봉도	삼목항	1일 31회 운항	6,000	40분
대청도	인천여객미널	1일 3회 운항	124,900/117,300/ 124,900	3시간 20분/ 3시간40분/3시간10분
무녀도	군산여객터미널	1일3회 운항	25,800	50분/1시간30분
하화도	백야도	1일 4회 운항	12,000	50분
가우도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소안도	화흥포항	1일 12회 운항	15,400	1시간
임자도	점암리	1일 14회 운항	3,200	15분
우도	명동선착장	1일 13회 운항	6,000	13분
연화도	삼덕/통영	1일83회 운항	15,200/21,300/ 21,300	50분/1시간
욕지도	삼덕/통영	1일 16회 운항	15,200/24,800	55분/1시간20분
세어도	세어도 선착장	1일 1회 운항	0	10분
방축도	군산/정자도	1일 3회 운항	27,500/12,000	1시간/20분
연흥도	녹동항	1일 4회 운항	8,400	25분
장도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병풍도	송공여객터미널	1일 3회 운항	13,000	1시간 46분
추도	통영여객터미널	1일 2회 운항	14,450	55분
여서도	완도	1일 1회 운항	16,800	3시간

자료: www.haewoon.or.kr(검색일: 2018. 6. 7.) 분석 재작성

도서지역의 선박 이용 여건(〈표 3-2〉 참조)을 살펴보면 도서관광을 위한 여객선 탑승 장소(여객선 터미널)까지의 소요시간과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선박의 운항횟수가 적고 선박 이용요금은 상대적으로 높다. 즉, 선박 운항횟수도 지역에 따라 1일 3회~4회 수준으로 적으며, 선박 이동시간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당일형 관광에 제약이 있다.

도서관광 관광비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국내여행 비용 및 교통비와 도서관광 시 선박 이용요금을 상호 비교해 보면 도서관광에 소요되는 교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6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나타난 여행지출비용을 1회 평균지출액과 1인 평균지출액으로 구분하면, 여행비용 중 교통비는 관광목적지까지 소요되는 총 비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일여행은 1만 3천원 수준이며, 숙박여행은 4만 1천원 수준이다. 섬 관광을 위한 선박 요금을 평균값과 최댓값, 최솟값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8년에 제시된 33개 도서지역의 평균 선박 요금은 18,631원이며, 최댓값은 12만원이고 최솟값은 3천원이다.⁶⁴⁾

〈그림 3-9〉 국내 여행에 따른 여행지출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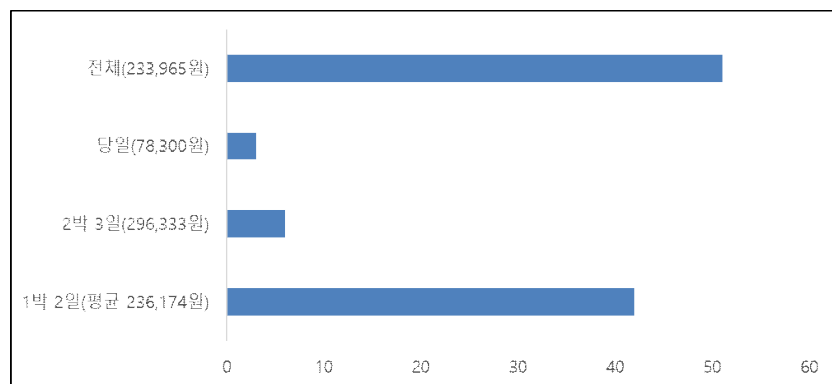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64) 33개 도서지역의 평균 선박 이용요금. 정기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5개 도서(수우도, 자란도, 가우도, 세어도, 장도)를 제외한 가격임

2018년 도서관광을 위한 여객선 비용은 국민여행의 1회 평균 지출 금액 중 당일여행의 교통비용보다 33% 높은 실정이며, 숙박여행 교통비용의 44% 수준으로 도서관광의 교통비용 자체가 높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33개 섬 외에 국내 여행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서관광 상품 51개에 대해 여행기간에 따른 여행비용을 분석해 보면 전체 도서관광 상품의 가격은 평균 23만원 수준이며, 당일여행은 7만 8천원, 1박 2일은 23만 6천원, 2박 3일은 29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행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광 상품을 국내 여행 1회 평균 지출금액(당일, 숙박)과 비교해보면 도서관광 상품의 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10〉 국내 도서관광 상품의 여행비용 분포



자료: 저자 작성

국내 도서지역 관광비용 및 선박 이용비용을 국내 여행비용과 비교해보면 도서관광은 여행에 따른 이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며, 여행비용 또한 일반 관광상품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도서관광 대중화를 위해서는 관광상품의 홍보에 앞서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통, 시간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도서지역 관광상품 분석

1) 도서지역 관광상품 조사 방법

도서지역 관광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시판 중인 관광상품을 조사·분석했다. 관광상품은 시장 수요에 의해 형성되므로 현재 도서관광 시장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창을 제공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판 중인 관광상품 분석 결과를 통해 도서관광 시장의 문제점이나 향후 수요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방법은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 포털인 네이버(www.naver.com)를 이용했다. 1차적으로 네이버에서 ‘국내 섬여행’을 검색할 때 나오는 여행사 사이트를 방문하여 판매 중인 상품을 취합했다. 2차적으로는 네이버에서 ‘국내 섬여행’을 검색한 다음 ‘쇼핑’ 항목에서 개별 여행상품을 취합했다. 개별 상품 내에서 서울, 부산, 대구, 포항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출발지가 여러 곳인 경우가 있고, 1박 2일, 2박 3일 등으로 일정이 다양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서울 출발, 1박 2일’을 기준으로 상품을 정리했고, 그 결과 50여 건이 추려졌다. 이 중 판매처가 다를 뿐 상품 내용이 대동소이한 경우를 정리하여 최대한 중복 없이 간략하게 결과를 제시하고자 했다.

2) 도서지역 관광상품 조사 결과 및 분석

국내 도서관광 상품의 대상 지역은 경기, 경남, 경북, 전남으로 세부적으로는 경기 인천, 경남 거제·통영, 경북, 전남 신안·여수·완도 등이다. 인천의 백령도, 대청도, 신도·시도·모도, 거제·통영의 외도·소매물도·장사도, 경북의 울릉도, 신안의 홍도·흑산도·비금도, 가거도, 여수 거문도·백도, 완도 보길도·청산도 등 국내 도서관광 상품이 대상으로 하는 섬은 17개 정도이다.

국내에 유인도서는 472개, 무인도서는 2,876개지만 실제로 관광상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섬은 20개가 채 되지 않는다. 이 20개 미만의 도서를 대상으로 50여 개 가량의 상품이 포진해 있는 것이다. 이는 상품으로서 섬이 가진 매력도 또는 단체관광이 가능한 섬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도서관광 수요에 따른 새로운 상품 개발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일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포함한 다른 채널을 통해 분석해볼 여지가 남아 있다.

현재 도서관광 상품은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할 때 기차나 버스(전용 차량)를 이용해 항구까지 이동한 다음 여객선을 이용한다. 기차는 2~3시간, 버스는 2~5시간 정도 소요된다. 여객선을 이용한 승선시간은 대부분 1~2시간 정도이나 백령도, 대청도, 울릉도 등은 3시간이 넘는다. 섬까지 최소 3~8시간이 소요되므로 1박 2일 이상 일정이 소요된다. 상품 가격은 주로 10만 원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20만 원대가 많고, 3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상품에 포함된 내용은 전용차량이나 왕복열차 탑승, 왕복 여객선 승선, 숙박(1박), 식사(1~5식), 입장료, 케이블카, 육로관광, 여행자 보험 등이다. 관광 시 주요 활동은 대부분 경관감상이고 특별한 체험활동은 없는 편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3〉 대표적인 도서관광 상품 개요

지역	도서명	접결지	교통 수단	승선시간	일정	상품가격 (원)	상품 주요 포함내역
경기	인천	백령도	인천연안부두	여객선	3시간 50분	1박 2일 163,000~215,000	왕복승선, 숙박(1박),
		대청도	인천연안부두	여객선	3시간 30분	1박 2일 180,000	식사(3식), 유람선, 입장료, 전용차량

지역		도서명	집결지	교통 수단	승선시간	일정	상품가격 (원)	상품 주요 포함내역
경기	인천	신도, 시도, 모도	서울	공항 철도	45분	당일	32,900	공항철도, 왕복승선, 식사(1식)
				여객선	10분			
경남	거제 통영	외도/ 소매물도	서울	버스	5시간	1박 2일	179,000	전용차량, 왕복승선, 숙박(1박), 식사(3식), 입장료, 케이블카
				유람선	50분/40분			
		외도/ 장사도	대전	기차/버스	1시간 50분/ 2시간	1박 2일	193,000	왕복열차, 전용차량, 왕복승선, 숙박(1박), 식사(2식), 입장료, 케이블카
				유람선	50분/1시간			
경북	-	울릉도	서울	버스	4시간	1박 2일	200,000~ 278,000	전용차량, 왕복승선, 숙박(1박), 식사(3~5식), 입장료
				여객선	3시간			
전남	신안	홍도/ 흑산도 /(비금도)	서울	기차	2시간 30분	1박 2일	264,000~ (315,000)	왕복열차, 왕복승선, 숙박(1박), 식사(3식), 유람선, 육로관광
				여객선	2시간 30분/ 30분/ (1시간 30분)			
		가거도	서울	기차	2시간 10분	1박 2일	310,000	왕복열차, 왕복승선, 숙박(1박), 식사(4식), 여행자보험
				여객선	4시간 30분			
	여수	거문도/ 백도	서울	기차	3시간	1박 2일	297,000~ 339,000	왕복열차, 왕복승선, 숙박(1박), 식사(2~4식), 유람선, 현지차량 (레일바이크, 여행자보험)
				여객선	1시간/3시간			
	완도	보길도/ 청산도	서울	기차/ 버스	1시간 50분/ 1시간 50분	1박 2일	271,000	전용차량, 왕복열차, 왕복승선, 숙박(1박), 식사(2식), 모노레일, 입장료
				여객선	40분/55분			

주: 1박 2일, 서울 등 대도시 기준

자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A%B5%AD%EB%82%B4+%EC%84%AC%EC%97%AC%ED%96%89&sm=tab](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A%B5%AD%EB%82%B4+%EC%84%AC%EC%97%AC%ED%96%89&sm=tab_stc)

_stc(검색일: 2018. 5. 31.)

〈그림 3-11〉 도서지역 관광상품 예시



자료: <http://www.ticketmonster.co.kr/>(검색일: 2018. 5. 31.);

<http://www.wemakeprice.com/>(검색일: 2018. 6. 7.)

도서지역 관광상품에 나타난 이동시간과 상품가격은 중국·일본의 일부 도시 등 가까운 지역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국외관광과 도서관광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소요되는 비용의 효용가치를 고려할 때 관광의 만족도가 어떠할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표에 나타난 관광상품에는 케이블카나 레일바이크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활동이 거의 없고 경관 감상 위주이다. 도서가 가진 고유의 매력과 특성, 해안 경관과 섬마을의 존재 자체가 관광목적과 동기에 부응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섬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거나 섬 관광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할 다른 수단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유인도서 외에 무인도서를 찾는 관광 수요도 존재한다. 무인도서 관광상품은 연안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섬을 대상으로 하며, 무인도 관광상품으로 홍보하더라도 썰물 때 열리는 바닷길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거나 간척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섬이 많다.

〈표 3-4〉 무인도서 관광상품 사례

지역	도서명	접결지	교통 수단	승선 시간	일정	상품가격 (원)	상품 주요 포함내역
전남	고흥	시호도	구룡 선착장	선박	2~3분	당일, 1박 2일, 2박3일 1박 2일 기준 30,000 ~45,000	- 원시과학: 불피우기, 식수 구하기(정수), 움막짓기 - 어로체험: 개막이, 뗏목 노젓기, 조개채취, 갯벌관찰 - 수렵체험: 활·새총 만들기 및 사냥하기 - 농사체험: 나물채취, 자연 공작, 떡메치기 등
인천	중구	중구	조름섬	도보		당일	갯벌체험 5,000
경남	통영	미정	미조항	선박	60분	2박4일 30만원	스노클링, 뗏목만들기, 캠프파이어, 비상식량, 식수

자료: https://sihodo.goheung.go.kr/web?site_id=36&menu_id=473&; <https://www.arex.or.kr/content.do?menuNo=MN201505250000000007>;
<https://blog.naver.com/juyoung5585/221259335613>(모든 자료 검색일: 2018. 6. 7.)

무인도서 내에는 편의시설이 없으므로 당일, 길게는 2박 4일 상품이 운영되고 있으며, 1박 2일 상품이 주를 이룬다. 지자체에서 판매하는 관광상품은 숙소 및 편의시설, 체험시설이 조성된 경우도 있으며, 섬 내에서의 관광행위는 경관감상, 산책 및 트레킹, 캠핑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12〉 무인도서 관광상품 예시

원시의섬
진짜 원시인이 되어보는
색다른경험!

시호도
尸虎島

블랙고트 무인도 여행 경로

0일차

남해 출발

1일차

- 무인도 등반
- 해안도로를 걷기
- 원시마을을 돌아보기
- 안전교육 및 등하
- 식수 채취
- 식사

2일차

- 뗏목 만들기
- 갯벌 걷기
- 스노클링 등수기대
- 캠핑파이어

3일차

- 정리 및 복귀

블랙고트 무인도 모집 일정

4기 - 6월 15 - 17일 (12명) 5기 - 7월 27 - 29일 (12명) 6기 - 8월 24 - 26일 (12명) 7기 - 9월 21 - 23일 (12명)	- 장소 : 동영의 어느 무인도 - 모집인원 : 12명(전방) - 참가비용 : 30만원 - 산행방법 : 블로그 참고
--	---

자료: https://sihodo.goheung.go.kr/web?site_id=36&menu_id=473&;
<https://blog.naver.com/juyoung5585/221259335613>(모든 자료 검색일: 2018. 6. 7.)

제2절 도서지역 해양관광 실태 분석

1. 기존 도서관광 실태 분석

김준(2016)⁶⁵⁾은 섬 여행 행태와 섬 자원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섬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섬 여행 결정시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교통(접근성)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볼거리, 편의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 여행 시 장애요인으로서는 교통 불편이 가장 높았으며, 숙박시설 부족, 관광자원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나 우선적 고려사항과 장애요소 모든 측면에서 교통을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섬 여행 만족도, 재방문 의도, 섬 여행을 선택한 이유, 섬의 매력 관광자원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섬 관광객의 인식 및 행태를 분석하였다.

김향자 외(2011)⁶⁶⁾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인 섬 관광 정책인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광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섬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의 변화, 관광만족도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는데,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방문목적은 자연 및 풍경 감상이 가장 높았으며, 휴식 및 휴양, 낚시·등산 등 야외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50% 이상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객 만족도에서는 지역 관광종사자의 친절성, 지역주민들의 친절성, 섬의 쾌적성 등의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 김준, 앞의 책

66) 김향자 외(2011)

조진상(2009)⁶⁷⁾의 연구에서는 청산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행태를 분석하였다. 청산도에서 주로 방문하는 관광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영상촬영지, 해수욕장, 낚시터, 범바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도항까지 이동수단, 청산도 정보 경로, 관광활동 만족도, 재방문 의사 등을 분석하였는데, 관광활동 만족에서 볼거리의 다양성과 선박 운행횟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온 반면 체험 프로그램, 섬 내 교통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관광객의 방문 전 청산도 이미지와 방문 후 청산도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 방문 전 관광객들은 영상촬영지에 대한 이미지가 높았던 것에 반해 방문 후에는 아름다운 해양경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희 외(2008)⁶⁸⁾는 섬 관광 현황 및 관광객 태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섬 관광 유무에 관계없이 섬 관광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섬은 울릉도와 독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거제시 외도, 춘천시 남이섬, 신안군 가거도 등이었다. 섬에 가고 싶은 이유는 한적하고 정적인 분위기, 육지와 구별되는 경관 등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섬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비용 부담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간, 즐길 거리 부족, 정보 부족, 교통 불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섬 방문 경험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섬 방문 시 가장 불만족스러운 요인에 대해 알아본 결과 높은 비용, 낙후되고 불편한 숙박시설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67) 조진상, 앞의 책

68) 노영희(2008)

2. 조사설계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도서지역 해양관광 실태 분석을 위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광 인식, 도서관광 활동행태, 도서관광 제약요인,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요소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도서관광 활동행태 분석을 위하여 관광동기 모델과 관광지 선택속성 등의 항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우선 관광동기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내적 균형을 찾기 위한 관광객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⁶⁹⁾, 섬 여행을 하는 관광객의 의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섬은 지리적 고립, 독특한 사회문화와 자연환경 등이 매력요소로 관광객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⁷⁰⁾ 관광객들은 관광지를 선택하기에 앞서 관광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비교·평가하여 목적지를 선정한다.⁷¹⁾ 이러한 관광지 선택속성은 관광동기 및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섬 관광의 매력요인을 반영하여 관광객들의 선택속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광의 제약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가 제약 이론을 검토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여가제약은 여가의 참여를 억제 또는 방해하는 것으로 개인들이 지각하는 요인들로 정의되고 있다(Jackson, 1990). 여가제약을 설명함에 있어 대표적으로 다루는 여가제약 이론 모형은 Crawford, Jackson & Godbey(1991)의 여

69) Crompton(1979)

70) 임화순고계성(2006)

71) 안태기, 앞의 책

가 제약 모델이다.⁷²⁾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내재적 제약요인(Intrapersonal Constraints), 대인적 제약 요인(Interpersonal Constraints), 그리고 구조적 제약요인(Structural Constraints)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먼저 내재적 제약요인은 개인적 심리상태나 특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의 불편함, 자기자각, 스트레스 등에 해당된다(이훈, 2005). 대인적 제약은 여가활동을 함에 있어 함께하는 동반자와 같은 인적 관계를 의미하며 구조적 제약은 여가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대인적 관계가 형성된 후 실제 여가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차원으로 예를 들어 재정상황, 시간, 기회 등과 관련된다(이훈, 2005). Jackson (1990)은 특정 개인이 어떠한 여가활동을 하려는 동기와 욕구를 충분히 갖고 있더라도 제약요인이 존재하면 그 참여요구를 제거하거나 참여기회의 인식을 제거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하였다.⁷³⁾ 도서관관의 경우 아무리 참여자의 동기와 욕구가 충분하더라도 높은 비용과 심리적·실제적 거리감 등의 제약요인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도서관관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3-5〉 도서관관 실태조사 설문지 주요 변수

구성 개념	요인	참고문헌
도서관관 동기	• 휴양/휴식	김재호, 2014; 안태기, 2017;
	• 친목도모	
	• 자기계발	
	• 자연경험	
	• 교육성	
	• 위락성	

72) 정란수·이훈·이인재(2007), p. 59 재인용.

73) Jackson(1990), pp 55-70.

구성 개념	요인	참고문헌
도서관광 선택 속성	• 섬의 매력성	안태기, 2017; 최영민·길가영, 2017
	• 섬의 사회문화 특징	
	• 여행의 합리성	
도서관광 제약	• 내재적 제약	이주연, 2009; 정형식·염승엽·김재진, 2009; 백주하, 2012
	• 대인적 제약	
	• 구조적 제약	

2) 조사방법 및 설문지 구성

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로 설정했다. 한편 도서관광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 집단을 설정하고, 이후 도서관광 경험자 집단을 추출하여 도서관광 경험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선택했으며, 조사기간은 본격적인 해양관광이 시작되는 6월에서 8월까지 약 3개월 정도 실시하였다.

〈표 3-6〉 도서관광 실태조사 설계

구성 개념	요인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800명 - 도서관광 인식을 위한 국민 인식 집단 - 도서관광 경험자 집단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8년 6월 ~8월

한편 본 조사는 크게 도서관광 인식, 도서관광 행태, 도서관광 수요 부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도서관광 인식은 도서관광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서는 어디인지, 도서관광을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감성 어휘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도서관광 행태는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도서관광 동기, 선택속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광 수요 부분에서는 도서관광이 활성화 되지 못한 제약요인이 무엇인지, 도서관광 수요 전망, 국내 도서관광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및 사업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 3-7〉 도서관광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

구분	내용
도서관광 인식	• 도서관광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점
	• 도서관광 감성 어휘
도서관광 행태	• 도서관광 경험
	• 방문시기 및 유형, 동반자 유형
	• 주요 정보 경로
	• 도서관광 동기
	• 도서관광 선택 속성
	• 교통수단
	• 도서관광 수용태세 항목별 만족도
	• 도서관광 활동 유형
도서관광 수요	• 도서관광 제약요인
	• 도서관광 의향
	• 방문 희망 지역
	• 도서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
	• 도서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응답자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도서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51.7%를 차지하였으며 유인/무인도서를 구분해보면 유인도서 방문자가 50.6%로 나타났고, 무인도서 방문자가 3.5%로 나타나 대부분의 도서관광 방문지역은 유인도서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자세한 응답자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8〉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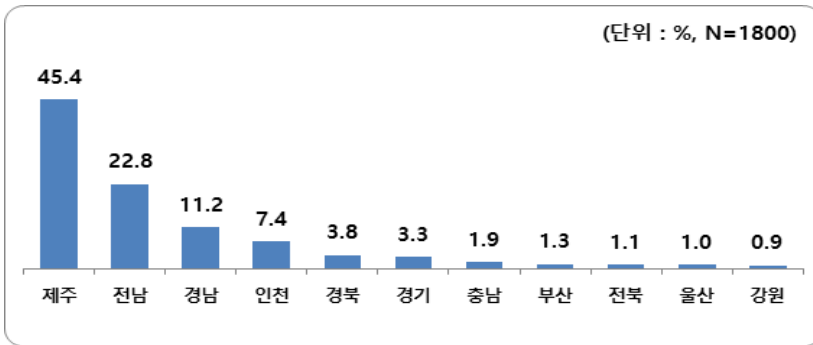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
도서 방문경험	있	음	931	51.7%
	없	음	869	48.3%
방문 도서 유형	유 인 도 서		911	50.6%
	무 인 도 서		63	3.5%
	경험 없음		869	48.3%
지역	서	울	354	19.7%
	부	산	122	6.8%
	대	구	87	4.8%
	인	천	105	5.8%
	대	전	52	2.9%
	광	주	50	2.8%
	울	산	41	2.3%
	경	기	453	25.2%
	강	원	52	2.9%
	충	북	54	3.0%
	충남 / 세종		80	4.5%
	전	북	61	3.4%
	전	남	61	3.4%
	경	북	90	5.0%
	경	남	115	6.4%
	제	주	22	1.2%
성별	남	성	915	50.8%
	여	성	885	49.2%
연령	19 ~ 29 세		356	19.8%
	30 대		349	19.4%
	40 대		411	22.8%
	50 대		408	22.7%
	60 대 이상		276	15.3%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7	9.3%
	200만원~299만원		252	14.0%
	300만원~399만원		330	18.3%
	400만원~499만원		355	19.7%
	500만원~699만원		378	21.0%
	700만원 이상		290	16.1%
	무응답		28	1.5%

3. 도서관광 실태조사 결과

1) 도서관광 인식 분석

국내 도서관광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서지역으로 는 제주지역⁷⁴⁾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남지역(22.8%), 경남지역(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국내 도서관광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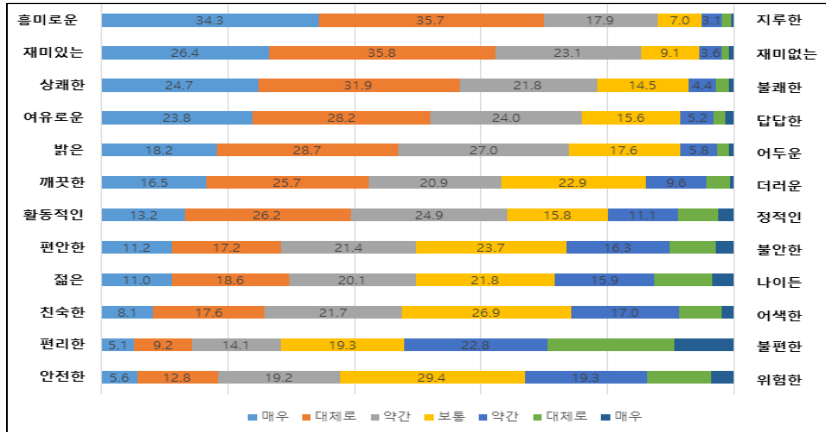


평소 도서관광을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감성 어휘를 평가하면 흥미로운, 재미있는, 상쾌한 등의 긍정적 감성 이미지가 높은 편이며 이에 반해 위험한, 불편한, 어색한 등의 부정적 감성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조사되었던 해양을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감성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재미있는, 상쾌한, 친숙한 등 긍정적 인 감성 이미지들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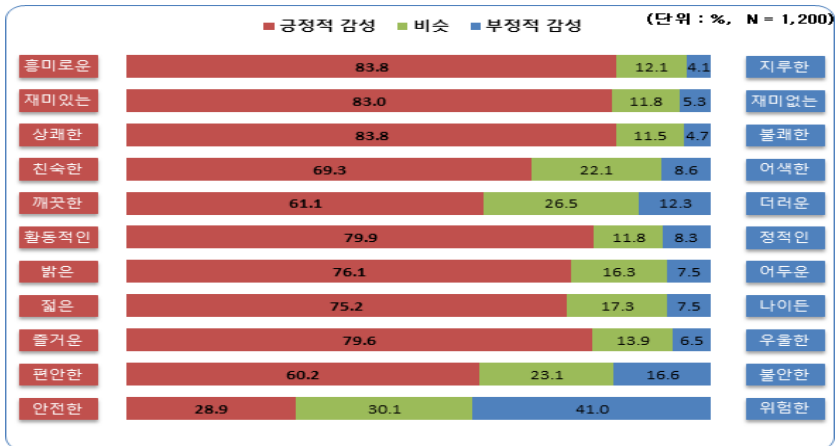
74) 본 조사에서 대상 도서에서 제주도 본 도서는 제외하였으나, 제주지역의 부속도서인 우도, 마라도 등은 포함함

〈그림 3-14〉 도서관광 감성 이미지

단위: %, N=1800



〈그림 3-15〉 해양을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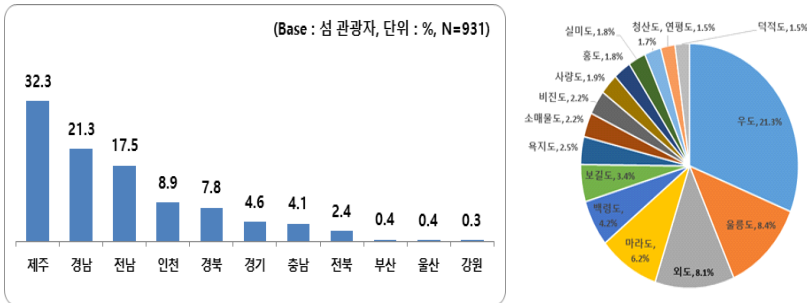
자료: 홍장원 외, 『해양문화자원의 콘텐츠화 방안 연구』, 2017, p. 67

2) 도서관광 행태 분석

최근 5년 중 방문한 도서지역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도서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방문한 도서지역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은 제주지역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남(21.3%),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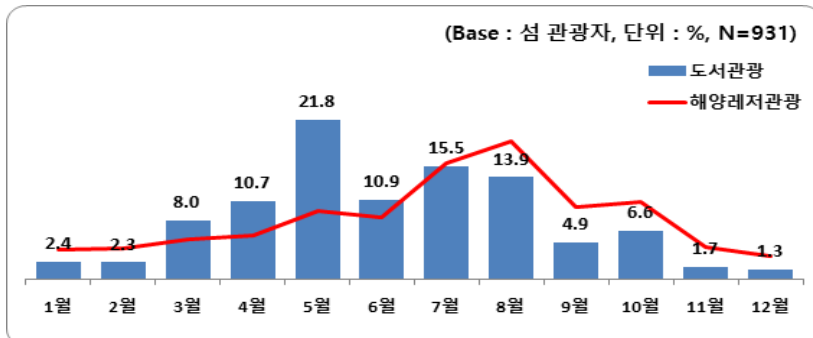
(17.5%), 인천(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하였던 국내 도서 관광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에서 전남이 2위를 차지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6〉 방문 도서지역 및 도서명



도서관광 시기를 살펴보면 5월이 21.8%로 나타나 가장 많이 방문 하는 시기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7월(15.5%), 8월(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전통적인 해양레저·관광 성수기가 7월과 8월인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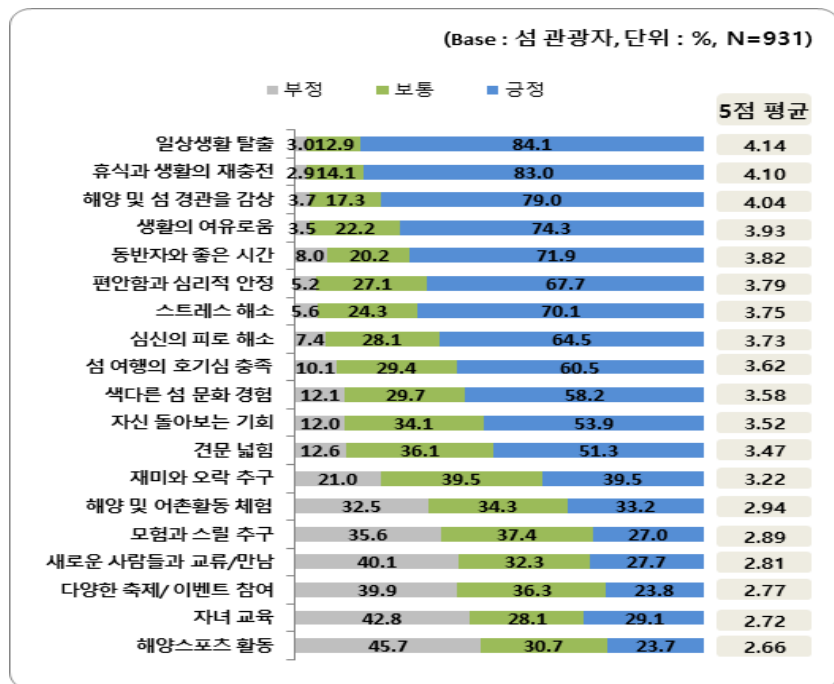
〈그림 3-17〉 도서관광 시기 VS 해양레저·관광 시기



자료: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관광·레저 실태 조사, 2016, p.18을 바탕으로 해양레저관광 시기 작성

다음으로 도서관광의 동기와 선택속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도서관광의 동기는 일상생활 탈출이 5점 만점에 평균 4.14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도서관광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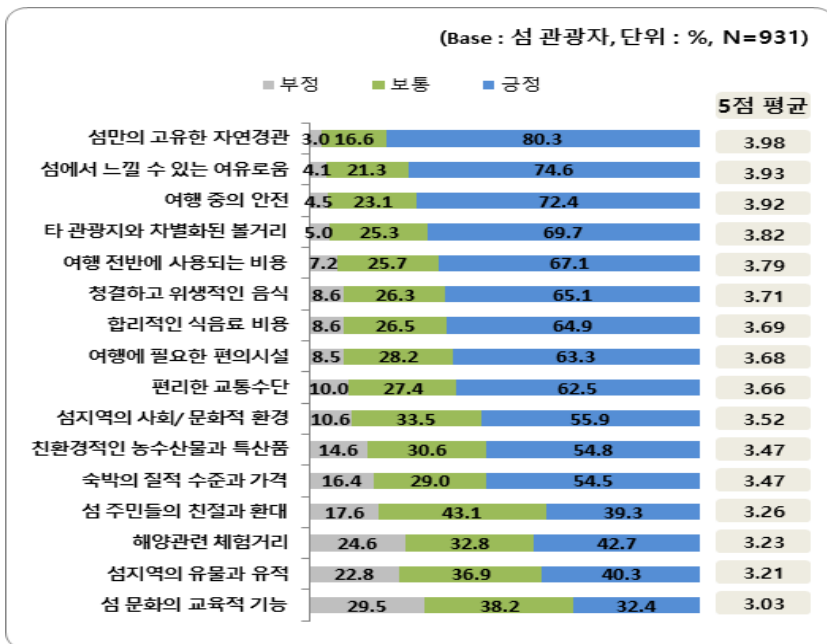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휴식과 생활의 재충전(4.10점), 해양 및 섬 경관 감상(4.04점), 생활의 여유로움(3.9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심리적 일탈감 추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해양스포츠 활동, 자녀의 교육, 다양한 축제/이벤트 참여 등 관광 상품이나 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동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서관광의 동기는 선택속성에서도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선택속성 중 가장 높은 요인은 섬만의 고유한 자연경관이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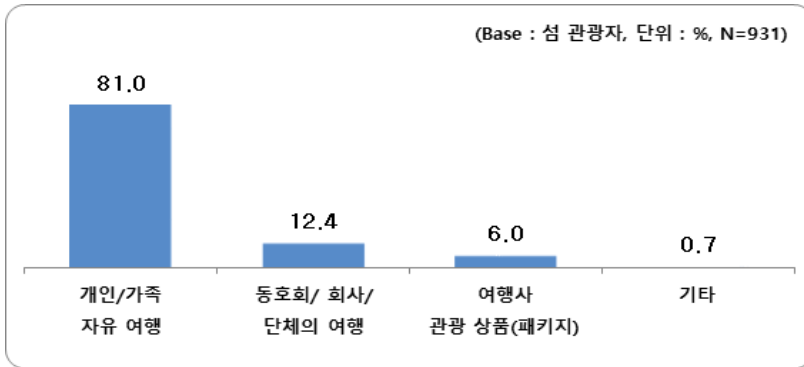
만점에 평균 3.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섬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3.93점), 여행 중의 안전(3.92점), 타관광지와 차별화된 볼거리(3.82점)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섬 문화의 교육적 기능, 섬지역의 유물과 유적, 해양관련 체험거리에 대한 선택속성 요인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앞서 제시하였던 동기 요인 중 가장 낮은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형태로 사료된다.

〈그림 3-19〉 도서관광 선택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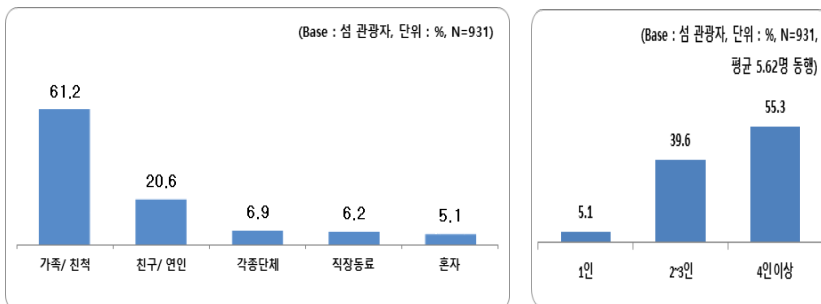
다음으로 도서관광 형태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개인/가족 자유여행이 81.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동호회/회사 단체 유형이 12.4%로 나타났다. 반면에 패키지 형태의 여행사 관광상품은 4.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0〉 도서관광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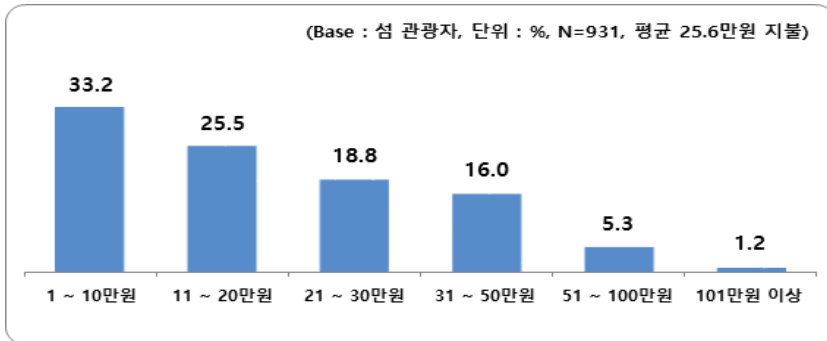
도서관광 동반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친척이 61.2%로 나타나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친구/연인이 20.6%, 각종단체가 6.8%, 직장동료가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행자 수는 평균 5.62명으로 나타났는데 4인 이상이 55.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1〉 도서관광 동반 유형 및 동행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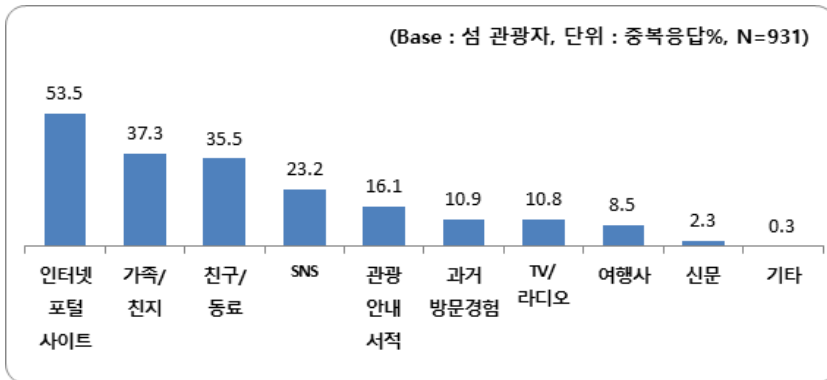
도서관광 경비를 분석한 결과 1~10만원이 3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서관광 평균 경비는 25.6만원으로 나타나 2017년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여행경험자 지출 경비인 130,716원의 약 2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2〉 도서관광 경비



도서관광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주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5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친지(37.3%), 친구/동료(35.5%)를 통한 정보가 높게 나타나 구전을 통한 정보 습득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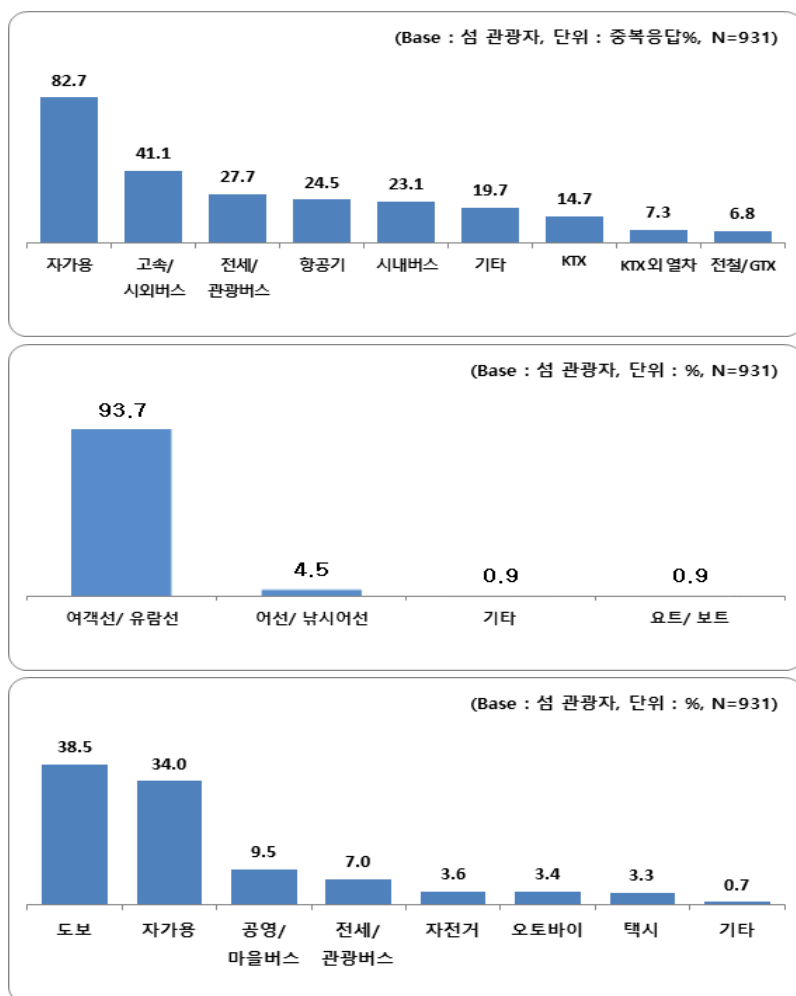
〈그림 3-23〉 도서관광 정보 습득경로



도서관광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출발지에서 도서로 출발하는 항구까지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은 자가용(82.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속/시외버스(41.1%), 전세/관광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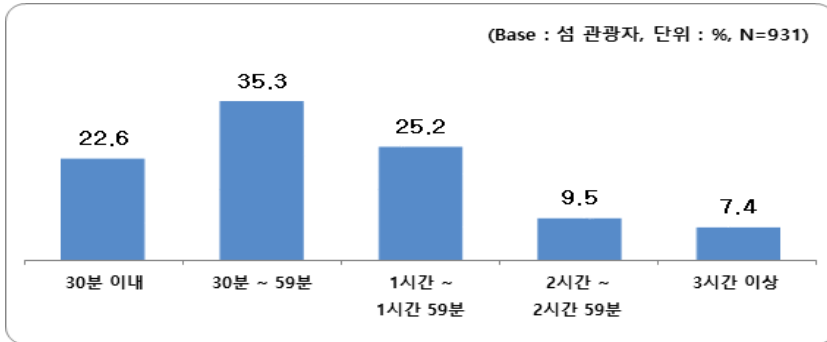
(27.7%)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항구에서 목적지인 도서까지 가는 교통수단으로는 여객선/유람선 이용이 93.7%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도서 내에서 이용하는 수단으로는 도보가 3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가용 이용이 34.4%로 나타났다.

〈그림 3-24〉 도서관광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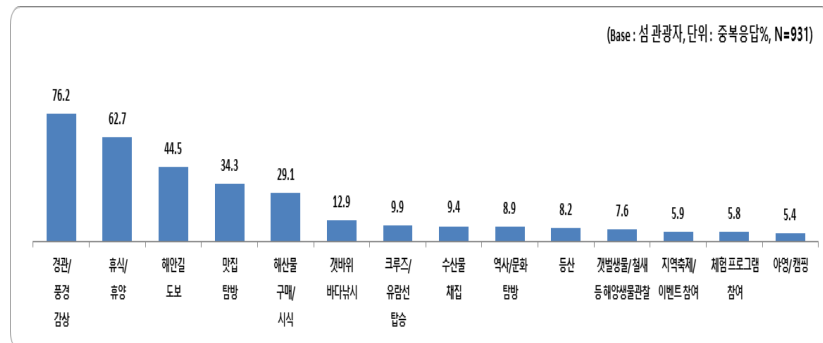
도서관광시 항구에서 목적지 도서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30분~59분이 35.3%로 가장 높았으며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도서가 83%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5〉 도서관광 이동시간(항구→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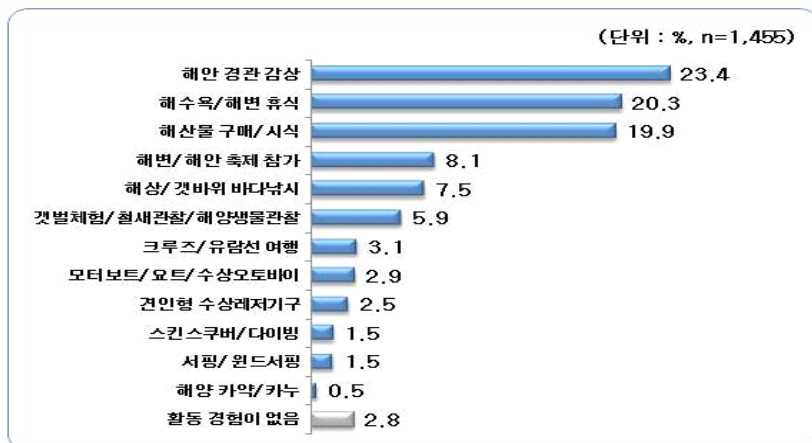


도서 내에서 즐기는 관광활동의 형태를 살펴보면 경관/풍경 감상이 7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휴식/휴양이 62.7%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해양레저관광 활동 형태 분석을 토대로 비교하면 경관감상이나 휴식 등 전통해양관광 활동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며, 다만 해안길 도보와 지역 축제/이벤트 참여 등에서 약간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3-26〉 도서 내에서 즐기는 관광 활동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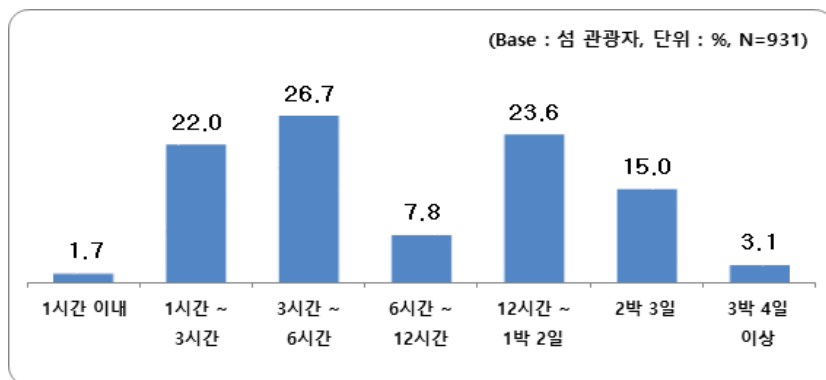
〈그림 3-27〉 기존 해양레저관광 활동 형태 분석



자료: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관광·레저 실태 조사』, 2016, p.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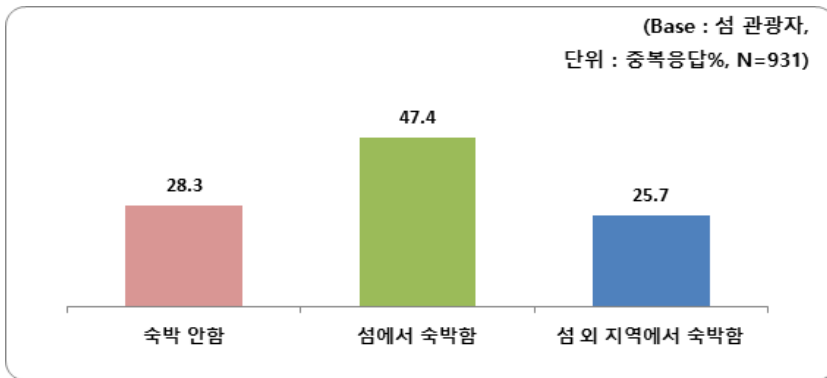
도서 내 체류시간을 살펴보면 3시간~6시간이 2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2시간~1박2일의 비중이 23.6%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박3일 이상의 체류시간도 15.0%로 분석되어 도서 내 당일 여행 또는 숙박여행의 형태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8〉 도서 내 체류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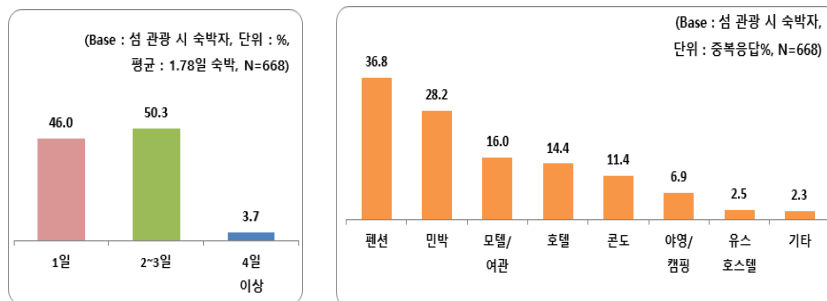
도서관광 시 숙박여부를 분석한 결과 숙박을 하는 경우가 73.1%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7.4%가 도서 내에서 숙박을 하며, 도서 외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는 2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9〉 도서관광 시 숙박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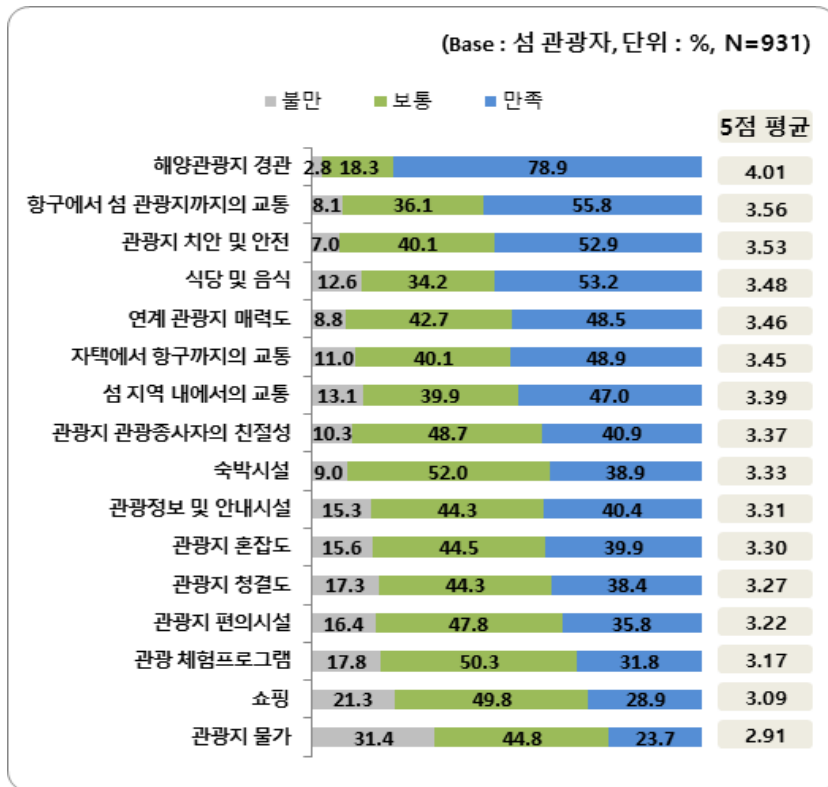
숙박 시 평균 숙박일수는 1.78일로 나타났으며, 숙박시설은 펜션이 36.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민박, 모텔/여관, 호텔, 콘도 등으로 나타나 다양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0〉 숙박일수와 시설



도서관광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 해양관광지 경관에 대한 만족이 5점 만점에 평균 4.01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항구에서 섬 관광지까지의 교통이 3.56점, 관광지 치안 및 안전이 3.53점으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1〉 도서관광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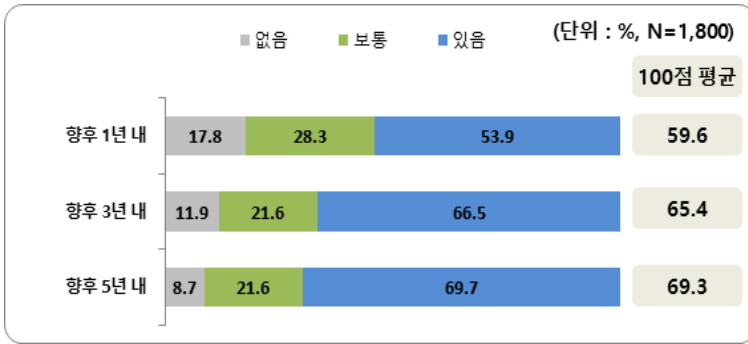


반면에 관광지 물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도서관광 비용이 일반 여행에 비해 2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과 연계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3) 도서관관 수요 전망 및 발전요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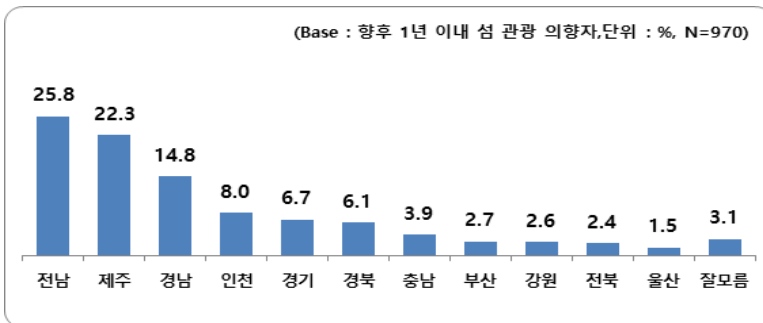
향후 도서관관 의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향후 1년 이내 도서관관을 갈 의향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59.6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3년 내는 65.4점, 향후 5년 내는 69.3점으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공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2〉 향후 도서관관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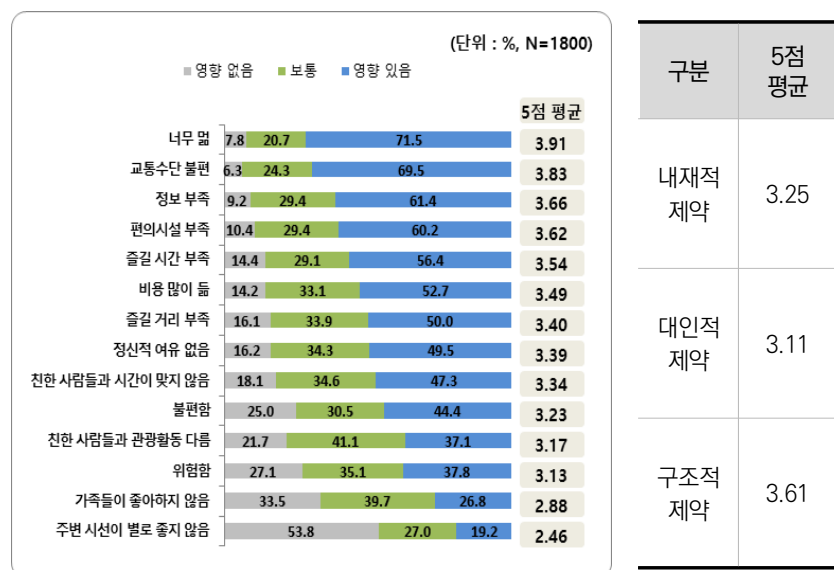
향후 도서관관 희망 지역으로는 전남이 2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제주가 22.3%, 경남이 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방문한 도서관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실제 방문지는 제주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남, 전남 지역의 순이었다.

〈그림 3-33〉 향후 도서관관 희망 지역



다음으로는 도서관광의 제약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거리에 대한 제약이 5점 만점에 평균 3.91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통수단 불편(3.83점), 정보 부족(3.66점)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약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요인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구조적 제약요인이 3.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내재적 제약 요인, 대인적 제약 요인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⁷⁵⁾

〈그림 3-34〉 도서관광 제약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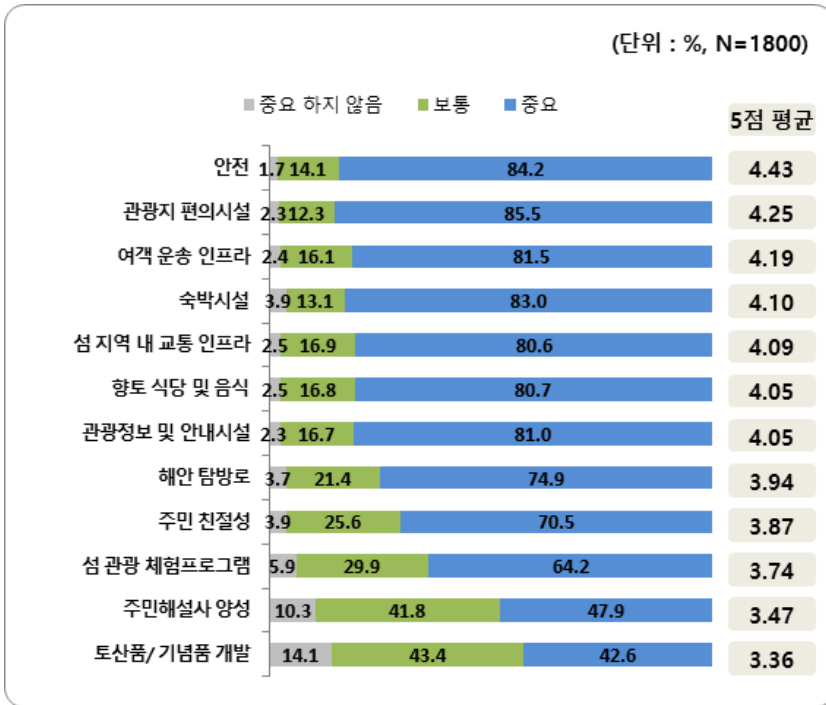


도서관광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안전이 5점 만점에 평균 4.43점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관광지 편의시설이 4.25점, 여객 운송 인프라가 4.19점, 숙박시설이 4.10점

75) 본 연구에서는 요인 적재량이 .4 이하인 항목과 더블 로딩 항목을 제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개 항목이 삭제되어 11개의 항목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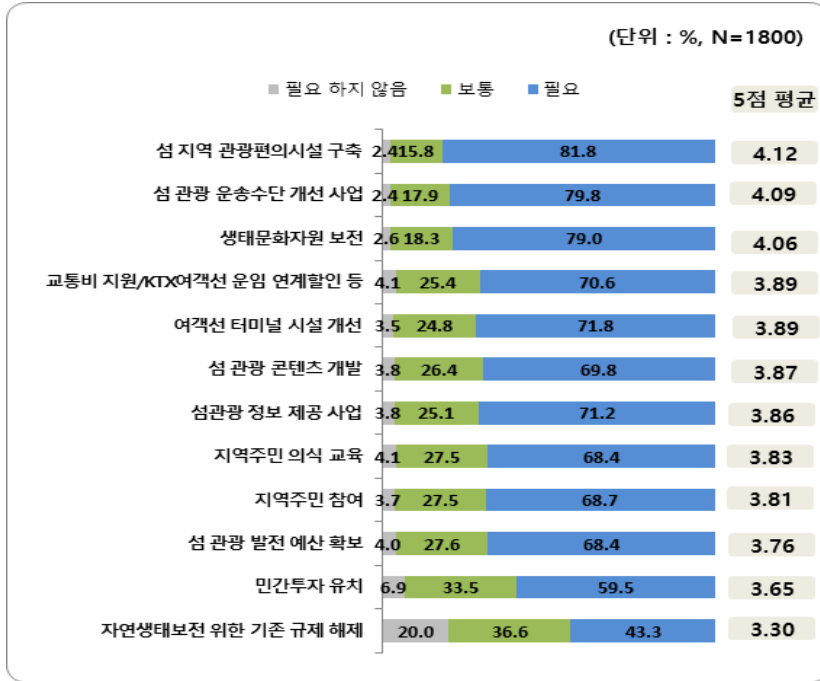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토산품/기념품 개발, 주민해설사 양성, 체험프로그램 등의 요소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5〉 도서관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



도서관관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을 분석한 결과 도서지역 관광 편의시설 구축이 5점 만점에 평균 4.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운송수단 개선사업, 생태문화자원 보전, 교통비 지원/KTX 여객선 운임 연계할인 등의 사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연생태보전을 위한 규제 해제, 민간투자 유치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6〉 도서관광 발전을 위한 사업



4. 도서관광 유형별 특성

도서관광 유형별 특성은 도서관광 이용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개별여행/단체여행, 당일여행/숙박여행을 기준으로 도서지역 해양관광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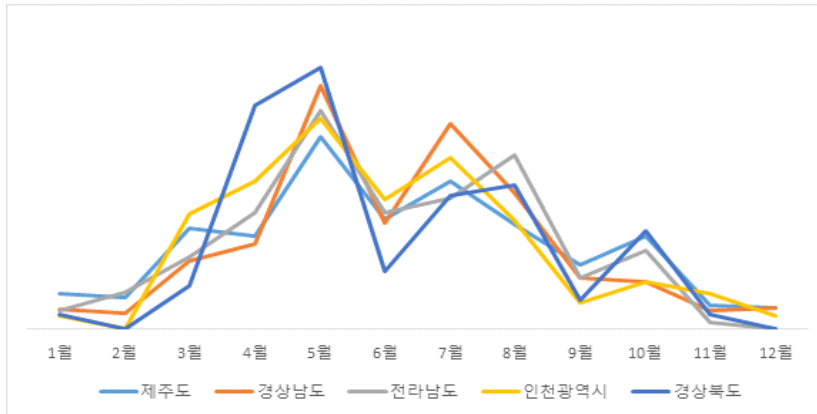
1) 도서관광 방문 지역별 특성

도서관광의 지역별 특성은 앞서 분석하였던 방문지역 중 상위 5개 지역인 제주, 경남, 전남, 인천, 경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지역별 방문시기를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경북 지역의 4월 방문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7〉 지역별 도서관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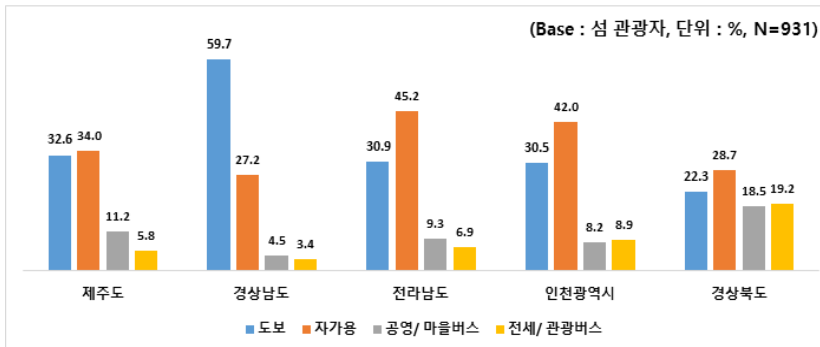
Base: 섬 관광객, 단위: %, N=931



다음으로 지역별 이동수단에 대하여 특징을 살펴보면 경남에서 도보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남, 인천은 도서 내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이동수단별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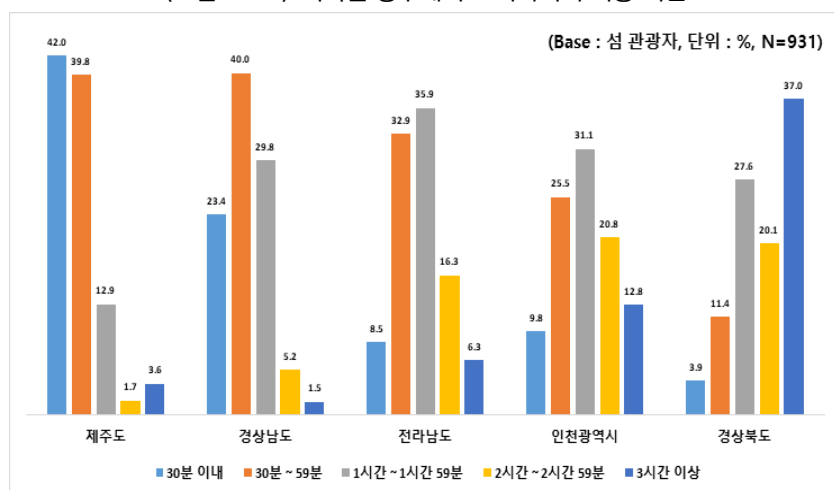
〈그림 3-38〉 지역별 이동수단(도서 내)

(Base: 섬 관광객, 단위: %, N=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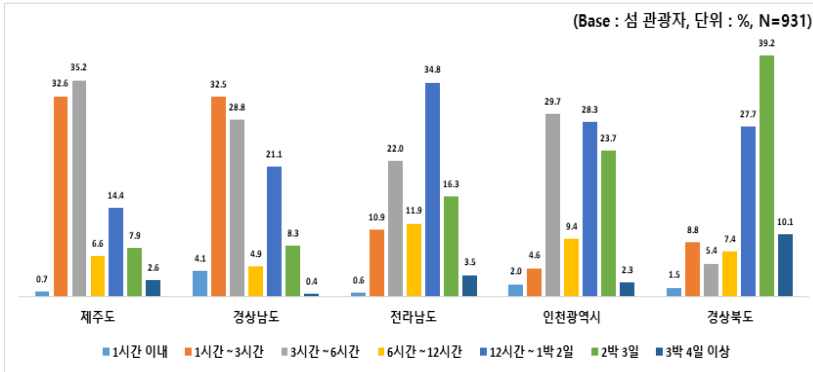
지역별 항구에서 도서까지의 이동 시간을 살펴보면 제주는 30분 이내가 가장 높으며, 경남은 30분~59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남과 인천은 1시간~1시간 59분이 가장 높으며, 경북은 3시간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9〉 지역별 항구에서 도서까지의 이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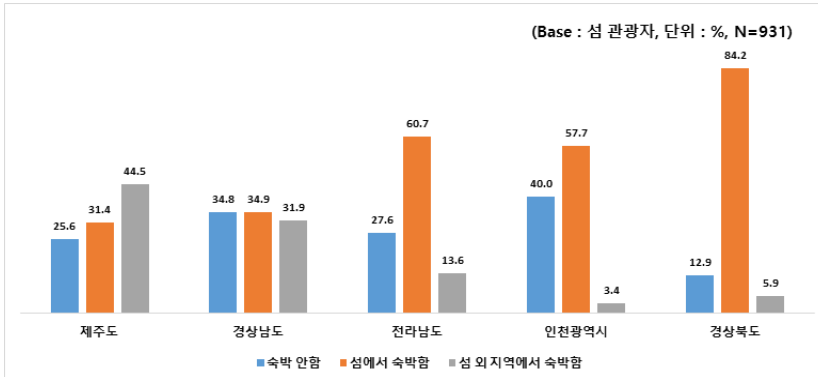
지역별 도서 체류시간을 분석한 결과 제주와 경남은 1시간~3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남은 12시간~1박2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2박3일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은 3시간~6시간과 12시간~1박2일의 두 가지 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남과 경북은 숙박형 도서관광이 많으며, 제주와 경남은 당일형 도서관광의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40〉 지역별 도서 체류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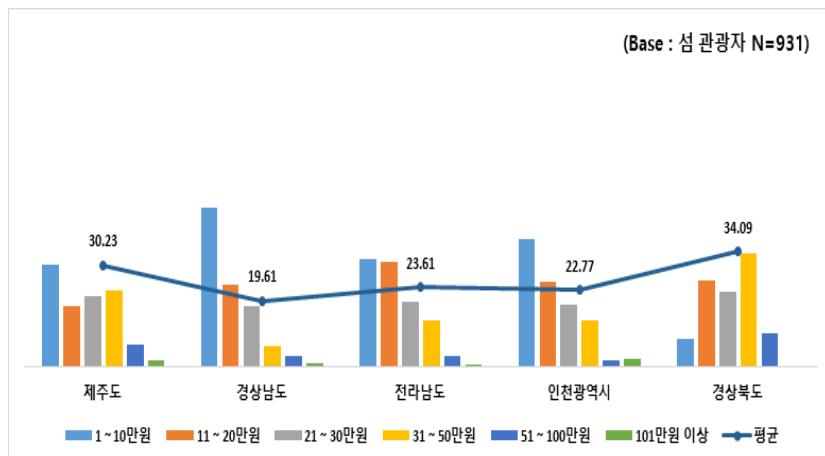
지역별 도서관광 시 숙박 장소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제주는 섬 외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남, 인천, 경북은 섬에서 숙박을 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1〉 지역별 도서관광 숙박 장소



지역별 도서관광 지불경비를 분석한 결과 경북이 34.0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주가 30.23만원, 전남이 23.6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1~10만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 지불 경비 역시 19.6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3-42〉 지역별 도서관광 경비



마지막으로 지역별 도서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분석하였다. 먼저 제주, 전남, 인천은 섬 지역 관광 편의시설 구축사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남은 생태문화자원 보전과 관련한 사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북은 운송수단 개선 사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지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중요 사업은 섬 지역 관광 편의시설 구축, 섬 관광 운송수단 개선사업, 생태문화자원 보전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외 제주, 경남, 인천은 여객선 터미널 시설 개선 사업이 시급하며, 제주, 전남, 경북은 교통비 지원/KTX와 여객선 운임 연계 할인 등과 관련한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9〉 지역별 도서관광 발전을 위한 필요사업 순위

순위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1	섬 지역 관광편의시설 구축	생태문화자원 보전	섬 지역 관광편의시설 구축	섬 지역 관광편의시설 구축	섬 관광 운송수단 개선 사업
2	섬 관광 운송수단 개선 사업	섬 지역 관광편의시설 구축	생태문화자원 보전	생태문화자원 보전	섬 지역 관광편의시설 구축
3	생태문화자원 보전	섬 관광 운송수단 개선 사업	섬 관광 운송수단 개선 사업	섬 관광 운송수단 개선 사업	생태문화자원 보전
4	여객선 터미널 시설 개선	여객선 터미널 시설 개선	교통비 지원/ KTX와 여객선 운임 연계 할인 등	여객선 터미널 시설 개선	지역주민 참여
5	교통비 지원/ KTX와 여객선 운임 연계 할인 등	지역주민 의식 교육	섬관광 정보 제공 사업	지역주민 의식 교육	교통비 지원/ KTX와 여객선 운임 연계 할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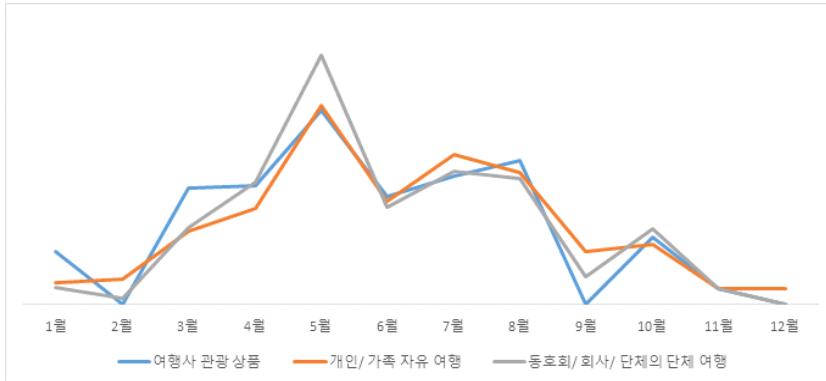
2) 도서관광 여행 집단별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개인여행/단체여행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개인/가족의 자유여행, 여행사 관광상품, 동호회/회사의 단체여행 등 세 유형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단체여행별 도서관광 시기를 분석한 결과 세 유형 모두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으나, 여행사 관광상품의 경우 1월과 3월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동호회/회사/단체의 단체여행은 5월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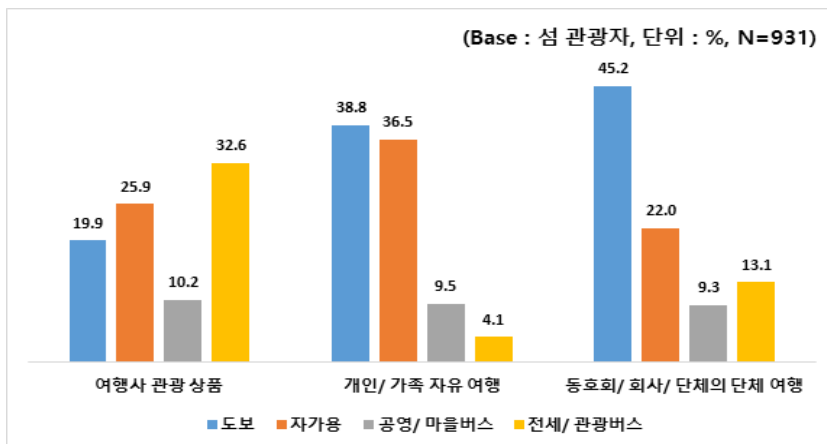
〈그림 3-43〉 개인/단체여행별 도서관광 시기

Base: 섬 관광객, 단위: %, N=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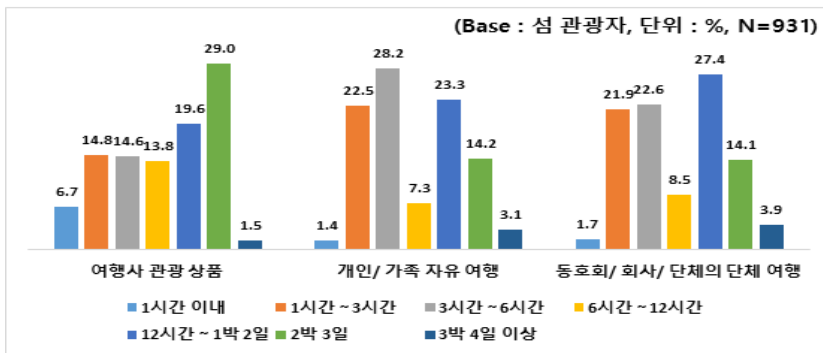
다음으로 개인/단체여행별 도서 내 이동수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행사 관광상품의 경우 전세/관광버스 이용이 가장 높았으며, 개인/자유여행과 동호회/회사/단체의 단체여행은 도보가 가장 높았다. 다만 개인/가족 여행에서 자가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인데, 이는 차도선 운항이 활발한 대규모 도서 지역의 관광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3-44〉 개인/단체여행별 이동수단(도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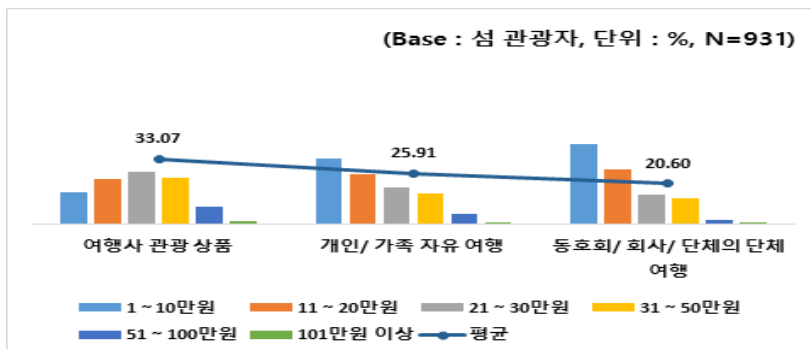
개인/단체여행별 도서 체류시간을 살펴보면 여행사 관광상품의 경우 2박3일이 가장 높았고, 개인/가족 자유여행은 3시간~6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회/회사/단체의 단체여행은 12시간~1박2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일여행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림 3-45〉 개인/단체여행별 도서 체류시간



마지막으로 개인/단체여행별 도서관광 경비를 분석한 결과 여행사 관광상품이 33.07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개인/가족 자유여행, 동호회/회사/단체의 단체여행 순이었다. 특히 여행사 관광상품은 21~30만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6〉 개인/단체여행별 도서관광 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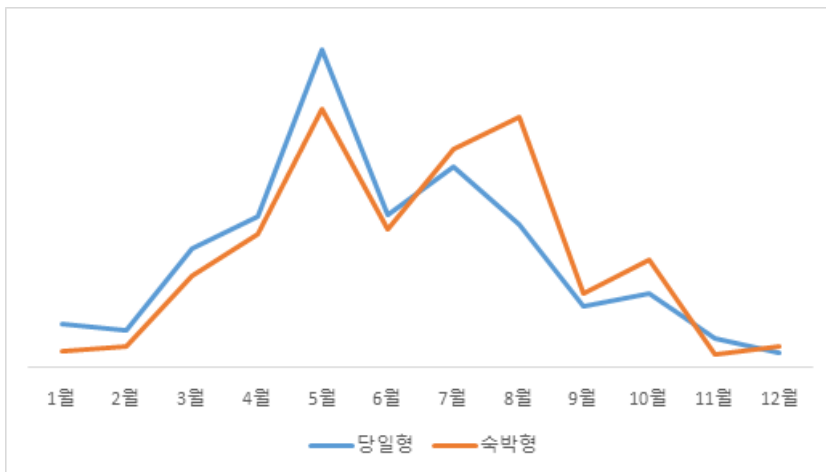


3) 도서관방 방문기간별 특성

당일여행과 숙박여행별 도서관방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당일/숙박여행별 도서관방 시기를 살펴보면 숙박여행의 경우 8월이 당일 여행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여름철 휴가시기로 숙박여행의 증가가 도서관방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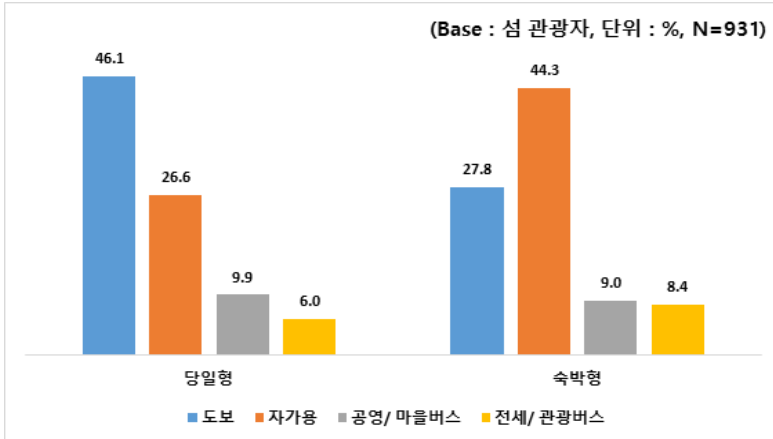
〈그림 3-47〉 당일/숙박여행별 도서관방 시기

Base: 섬 관광객, 단위: %, N=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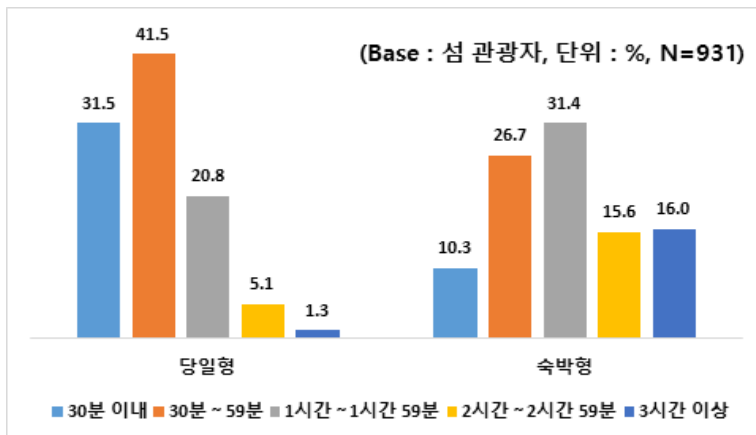
당일/숙박여행별 도서 내에서의 이동 수단을 분석한 결과 당일여행은 도보가 매우 높은 반면 숙박여행은 자가용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8〉 당일/숙박여행별 이동수단(도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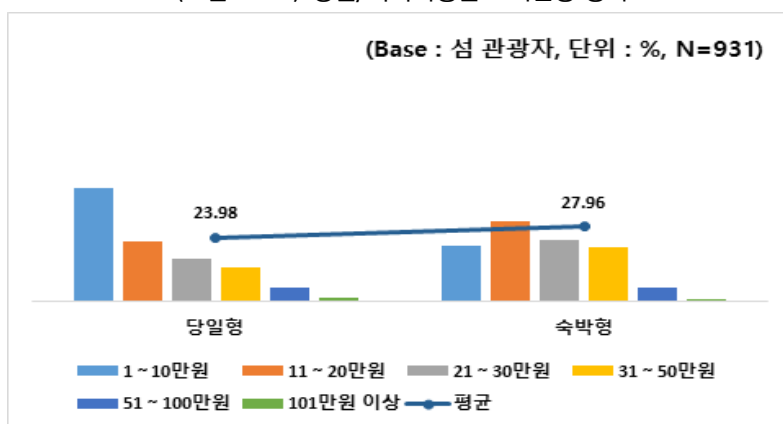
항구에서 목적지인 도서까지의 이동 시간을 당일/숙박여행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당일여행은 30분~59분이 가장 높은 반면, 숙박여행은 1시간~1시간 59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당일여행은 30분 이내가 많았으며, 숙박여행은 30분~59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숙박여행의 이동 시간이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49〉 당일/숙박여행별 이동 시간(항구→도서)



당일/숙박여행별 도서관광 경비를 분석하였다. 당일여행은 23.9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여행은 27.96만원으로 나타나 숙박여행의 비용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금액별 분포에서도 당일여행은 1~10만원의 비중이 높으며, 숙박여행은 11~20만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0〉 당일/숙박여행별 도서관광 경비



제3절 종합분석

도서지역 해양관광 행태와 관련된 여건 분석을 종합해보면 도서관광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도서를 유형화하고 이를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체험상품 개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공급자적 관점의 정책 체계는 구축되었지만, 도서관광 여건분석을 위한 통계자료의 구축이나 실태분석 및 이용행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사업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광 이용수요와 도서관광과 관련된 관광자원 및 관광비용, 관광목적 등에 대한 2차 자료를 분석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서지역 관광 실태조사를 통해 도서지역 관광 활동의 특성과 제약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도서지역 관광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관광 특성을 방문지역과 방문집단, 방문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도서지역 이용 특성

도서지역 이용수요와 관광상품, 방문목적 등을 국내 여행트렌드 분석, 도서관광 상품 분석 등 2차 자료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도서관광을 대중화하기 위한 여건은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광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도서관광 대상지역 발굴은 상품성을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자연자원 중심의 관광상품 비중이 높다.

도서지역 관광활동 시간이나 비용 차원에서도 소요시간이나 교통측면의 기회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초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개별여행자의 경우 여행설계조차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즉, ‘가고 싶은 섬’, ‘찾아 가고 싶은 섬’ 등의 표현과는 달리 여행의 편의성이 높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서지역 방문토픽과 방문 목적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방문 토픽 측면에서는 유람선이나 해변 등 해양자원이나 공간과 관련된 방문동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 방문목적 자체는 등산이나 산행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도서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관광 활성화나 대중화를 위해서는 이동수단인 연안여객선의 관광 매력도를 증대시키고 교통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의 자연경관 자원 외에 해양과 연계된 관광상품을 발굴해 도서지역의 관광상품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사업을 해양공간 관리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도서지역 해양관광 행태 특성

도서지역의 이용수요 및 관광상품에 대한 공급분석과 함께 실제 관광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기존 도서관광 이용실태 분석이 인천지역이나 전남지역 등 비교적 도서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국한되어 진행한 것과 달리 전국을 대상으로 국내 도서관광 이용실태를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조사에서 도서의 공간적, 내용적 범위를 연육교가 없는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곳으로 한정하였으나, 응답자 중 거제도나 제주도를 도서관광 목적지로 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도서관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책적으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대상으로 도서지역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관광활동자들은 모든 도서지역을 동일한 관광대상으로 인식해 경관감상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활동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도서관광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서는 제주→전남→경남→인천의 순이었고, 실제로 방문한 도서는 제주→경남→전남→인천의 순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방문하고 싶은 도서는 전남→제주→경남→인천 순이었다. 이는 전

남지역에 대한 도서관광 의향은 높으나 실제 관광으로 이어지기 위한 제약요인이 제주와 경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도서의 접근성 측면에서 해석 가능한데, 전남지역의 도서는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도서관광이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위험하고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광의 동기와 관광활동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도서관광의 동기는 심리적 일탈감 추구가 강하며, 이와 연관되어 활동에서도 경관감상이나 휴식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택속성에서도 섬만의 자연경관, 여유로움 등이 중요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관광동기에서 해양스포츠활동이 가장 낮은 점과,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동적인 해양레저활동이 낮은 것과는 연관되어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도서관광에서 현재 유도할 수 있는 해양관광 활동으로는 휴식과 치유의 테마를 지닌 해양치유관광을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서관광 경비는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여행지불경비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서관광 제약요인에서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도서관광 만족도에서 관광지 물가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위를 차지한 것과 연관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도서관광의 방문형태는 개인여행객(81.0%)이 단체여행객(18.4%)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활동자가 많으며, 도서관광 정보 습득경로 역시 구전을 통한 정보 습득이 높은 것과 연관되어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여행객을 위한 도서관광 안내시설이나 홍보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서관광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항구에서 목적지인 도서까지 이동시간이 30분~59분 이내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는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도서가 8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제약 요인에서 도서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분석된 바 있어 도서관광에서 거리에 대한 장애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광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와 사업 등을 평가한 결과 인프라 부분을 중시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도서지역의 지역주민과 관련된 사업이나 요소들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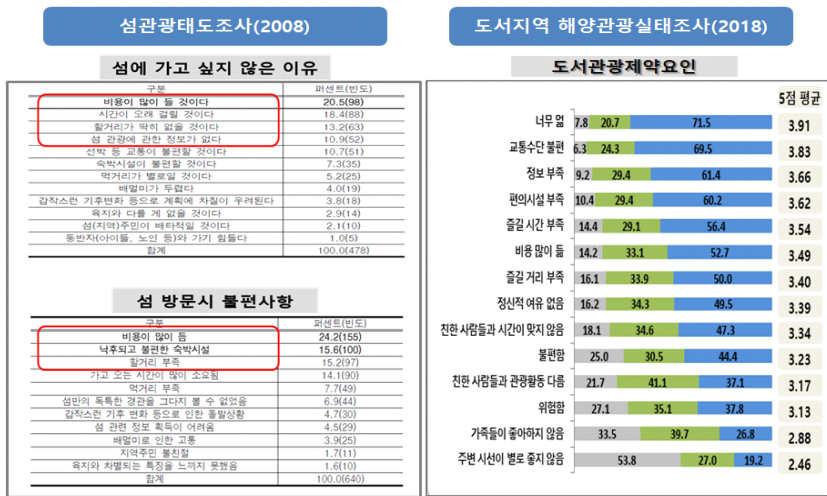
이와 함께 도서관광에 대해 방문지역별, 방문집단별, 방문시기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해역별 도서관광 목적지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방문시기와 체류시간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용경비에 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방문집단과 당일 및 숙박여행의 여행기간에 따라서도 이동시간이나 경비에 차이가 나타난다.

3. 시사점

도서지역의 해양관광 도입 여건 분석을 위해 이용수요 및 도서관광상품의 공급여건 분석과 도서지역 관광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 제약요인을 종합해보면, 도서지역의 관광활동은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정보, 교통 등 기본적인 접근체계가 관광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은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된 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섬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본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도서관광의 구조적 제약요인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림 3-51〉 도서지역 관광 제약요인 비교 분석



자료: 저자 작성

즉,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 개발이나 기반시설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별로 관광섬 개발 등 도서지역을 새로운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요자 측면에서는 도서지역 관광을 위한 구조적 제약요인들이 도서관광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도출을 위해서는 관광콘텐츠의 개발이나 기반시설의 정비에 앞서 도서관광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도서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이나 여객선 이용료 할인, 도서지역 내에서의 관광 활동 다양화 등 도서지역 방문을 위한 이용 편의성 제고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장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마련

본 연구는 도서지역 관광여건 및 관광행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기존 도서지역 발전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은 해양이나 해양관광 부문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부족했으며 관광 활성화 전략 속에 해양관광 부문을 포함하여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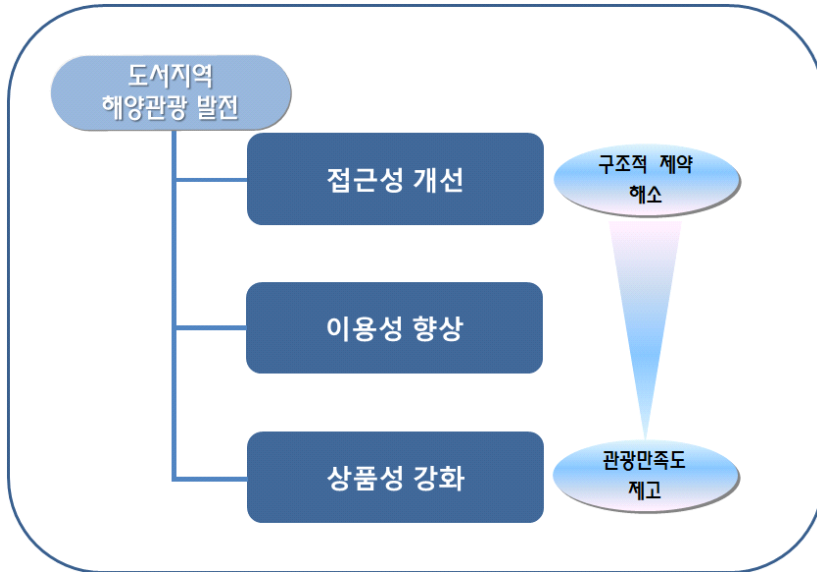
도서지역 관광상품의 개발과 운영은 해양이라는 공간 및 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 및 해양관광을 위한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즉, 환해성이라는 도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도서를 방문하는 접근 수단 개선 및 도서지역 관광 자원의 활용성 제고, 지역주민의 소득여건 개선 등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해양 및 해양관광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제1절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기본방향

국내 도서지역 이용수요는 관광시장의 발전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도서지역 방문을 위한 연안여행객선 이용수요의 증가 추이와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도서지역에 대한 관광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도서지역 관광활동자들의 방문지와 향후 방문 희망지역의 차이, 도서지역 여행경비 지출 구조,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도서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지역 관광활동의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도서관광의 동기 및 선택속성은 일상탈출이나 휴식을 위해 섬에서 자연경관과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은 수요가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교통수단의 부족, 정보의 부족, 시설의 부족 등을 제약요인으로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요인은 기존 도서관광 활성화 정책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조적 제약요인을 가장 먼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조적 제약요인에 대한 해소를 바탕으로 도서지역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등 이용성 향상과 도서지역별 특성을 살린 해양관광 상품의 다양화를 통하여 도서지역의 관광상품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향



제2절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마련

1.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은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물리적 접근성 개선과 함께 심리적인 접근성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 도서관광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도서지역이 멀다는 것과 함께 교통수단이 불편하다는 것,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내 도서관광 정책은 도서지역에 관광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광의 구조적 제약 요인을 해소하여 도서관광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1) 도서관광 홍보의 개선

도서지역의 영토적, 생태적, 문화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8년 ‘섬의 날(8월 8일)’이 제정되었다. ‘섬의 날’ 제정은 국민에게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도서지역에 대한 관광 홍보나 관광상품의 마케팅 여건 등을 분석해 보면, 도서지역의 관광수요를 유인하기 위한 홍보 수단은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도서지역 관광 홍보를 위하여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선’ 발표나 ‘섬 여행 후기 공모전’, ‘이달의 무인도서’ 선정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 정책 사업의 성과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도서관광 관련 정보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도서관광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감성이미지에 대한 분석 결과, 도서지역 방문자들은 ‘흥미로운, 재미있는, 상쾌한’ 등의 긍정적 감성 이미지가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반대로 ‘위험한, 불편한, 어색한’ 등 부정적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서지역을 방문할 때는 섬의 경관을 감상하고 여유로움을 즐기려는 동기가 강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도서관광에 대한 홍보는 휴가철 방문 유도나 흥미 유발에 앞서 섬 관광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알리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한편 도서지역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국외 사례 분석에 따르면,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관광시설 조성이나 정비를 위한 재정투자보다 도서지역에 대한 국민 인식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도서지역 이

용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도서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해소와 긍정적인 감성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홍보와, 도서관광을 위한 정보 제공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서 및 도서관광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확산은 도서관광의 잠재수요 확보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일본 도서지역 생활체험 및 섬 박람회 홍보 사례



자료: <http://www.i-lander.com/2018/index.html>(검색일: 2018. 10. 12.)

도서관광 홍보 방안으로는 ‘섬의 날’ 제정과 연계한 ‘도서관광 방문 주간’ 지정, ‘도서관광 안전 캠페인’, ‘여성 혼행 섬’, ‘도서관광 환경보호 홍보물’ 발간 등을 들 수 있다. 즉, 도서지역에 대한 방문 동기를 유발하고 도서지역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도서지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2) 도서관광 교통 접근성의 개선

도서지역 관광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는 교통비용의 부담이다. 높은 교통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도서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조사에서 반복적인 장애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안여객선은 버

스, 지하철 등에 비하면 이용자의 수가 적으며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만, 도서를 오가는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임을 고려해야 한다. 육상에서는 자가용 등 대체 교통수단이 있지만 해상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준공영제 도입 등 도서지역으로의 접근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연안여객선에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대중교통체계 편입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서서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순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여객선 요금 할인 등의 운임 지원이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면⁷⁶⁾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중앙정부는 현재 연안여객 운송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여객선 이용자에게 요금을 보전해줄 수 있다. 연안여객 운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보다는 실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적립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항공, 철도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각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객 운임을 할인해 줄 수 있다. 인천시는 백령도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

76) 2016년 기준 연안여객운송 재정지원은 총 234억 원(도서민 운임보조 127억 원, 보조항로 결손보조금 107억 원)으로 서울시 버스 재정지원(4,369억 원)이나 인천시 버스 재정지원(1,468억 원)의 5~2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박용안·전우현(2017), p. 7. 참조

의 50%를 할인하고 있다. 외부 인구의 유입은 지역사회에 역동성을 더하고 특히 관광 지출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므로 관할 도서가 많은 지자체는 여객 운임 할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육상 교통(육지~여객터미널)과 해상 교통(여객터미널~도서) 연계를 통한 이용 편의 개선이다. 이 역시 대중교통체계 편입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자가용이 아니라 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해 여객터미널까지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버스나 기차의 배차 시간과 여객선 배차 시간을 조사해보고 도서관광을 위한 육상-해상 교통의 흐름을 보다 원활히 하자는 취지이다. 도서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부터 시작해서 매년 1개소씩 개선해 나간다면, 큰 비용을 들이거나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 및 선박 내부 리모델링이다. 노후한 여객선과 열악한 접안시설 및 편의시설은 도서관광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관광객 유인을 저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연안여객 운송업자는 경영 규모가 영세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여객터미널에 대기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이용자가 지불하는 대가에 상응하는 수준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⁷⁷⁾ 이를 위해 선박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거나 관광기금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조항로의 확대 개편 또는 일반항로의 준공영제 도입이다. 현재 목포청에서 관할하는 항로와 연안여객선의 수송 실적

77) km당 운임단가를 보면 연안여객(306원/km)은 비행기(209원/km)보다도 높은 수준이나 터미널 등의 인프라와 서비스는 격차가 크다. KTX(164원/km), 버스·전철(125원/km)보다 높은 것은 물론이다. 김시곤(2018), p. 34. 참조

이 가장 높은데, 설문조사 결과 향후 국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도서가 제주 다음으로 전남인 점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을 하는 보조항로를 확대하며 준공영제 도입을 제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일반항로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체제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역시 장기적으로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인식하고 공영제 전환 의지를 밝힌 바 있다.⁷⁸⁾ 장기적으로는 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준공영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적자항로 운영선사(2년 연속 적자)와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항로 선사가 준공영제 사업 대상에 추가되어 여수~거문항로와 충남 보령시의 대천~외연도 등이 선정되었다. 인천시는 2019년에 인천~연평, 인천~이작 노선의 준공영제 대상 선정을 추진 중이며, 전라남도도 섬주민을 위한 ‘1000원 여객선’을 도입할 계획이다.⁷⁹⁾ 신안군이 선박 공영제를 도입한 데 이어 고흥군도 2019년부터 군민 대상 여객선 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3) 관광정보 접근 체계의 개선

도서지역 관광을 위한 정보의 부족은 접근성 다음으로 도서관광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제3장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서관광 시 정보 습득을 하는 주된 경로는 인터넷과 사람(구전)이다. 한편 도서관광을 위한 교통수단 및 이용 정보나 도서지역 내 관광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 또한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관광 정보에 대한 접근

78) 아주뉴스(2018. 10. 11.)

79) 한국일보(검색일: 2018. 10. 30.)

방식, 정보의 양과 질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포털 사이트와 SNS 등 외에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정보 확산이 가능한 채널을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도서관광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위해서는 도서관광과 관련된 정보 플랫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도서별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섬 발전 대책 중 하나로 섬 관광정보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도 국민이 알지 못한다면 그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서관광을 위해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매우 적다. 따라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플랫폼을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이나 TV, 라디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고 접하는 채널을 통해 자주 노출해야 한다. 주요 검색 포털에서 ‘섬 관광’, ‘섬 여행’, ‘도서관광’ 등의 단어를 입력했을 때 해당 플랫폼이 상위권에 노출되어야 한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사이트는 주요 포털에서 ‘무인도서’를 검색했을 때 웹사이트 카테고리의 최상단에 노출되고 있어 무인도서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

둘째, 정보 플랫폼에 실릴 내용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그동안 도서관광이라고 하면 어떤 섬에 무엇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섬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보의 정확성도 낮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상-해상 교통편의 연결 정보, 여객터미널의 위치와 시간표를 보기 좋게 제공하는 애플리

케이션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교통과 음식, 숙박 등 여행에 필요한 예산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 산출,⁸⁰⁾ 1~3시간, 3~6시간 등 관광 기간별 추천 루트,⁸¹⁾ 당일형, 1박2일형 등 체류기간별 관광 일정표 등도 활용도 높은 정보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관광활동을 위한 정보 접근에 있어서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접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도서관광 홍보를 위한 포털 사이트와 SNS를 주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개인이나 가족여행, 여행사 등 여행 형태나 연령을 고려할 때 단일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시장 확대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광상품의 특성과 정보 수요 집단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관광정보에 대한 마케팅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도서지역 관광이용성 향상

1) 도서관광 안전성 향상

도서지역 관광객들은 방문 도서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도서지역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도서지역의 치안 문제에서 벗어나 도서지역의 격절성과 해양관광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최근 관광활동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나 홀로 여행’이나 ‘여성 여행’ 시장의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트렌드를 반영한 안전성 향상이 시급하다.

80) 숙박시설 유형별 1박 평균 가격 등

81) 관광시간별 루트가 웹상 정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사인보드로 안내될 때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광상품이나 관광활동과 관련된 안전문제는 여행자 보험 가입이나 레저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등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광은 이와 같은 1차적인 수단 외에 도서관광의 안전성과 편리성 자체를 홍보하여 도서관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특히 여성 나 홀로 여행시장에 있어서는 관광활동의 안전 및 편리성과 연계하여 숙박시설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도서관광 또한 숙박시설 및 도서지역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성 홍보나 안전인증 제도 등을 마련하여 이를 도서지역 해양관광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 외에 청소년, 가족, 노년층 등 여행자 집단별로 해양관광 시설이나 체험상품에 대한 맞춤형 안전인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즉, 도서관광에 대한 안전성 홍보,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인증(지자체나 지역의 관광협회가 인증), 해양관광 체험상품에 대한 안전인증(사업자 보험, 경찰의 안전관리)을 통해 도서관광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서지역 관광활동에 대한 심리적 진입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2) 도서관광 서비스 개선

국내 관광시장에서 바가지 상흔이나 서비스 불친절 등은 매년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서비스 불친절 해소를 위한 관광 서비스 교육이나 주민 의식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불공정 상행위 근절 점검단도 운영하고 있다.

관광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도서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서 및 해양관광의 계절성으로 인해 바가지 상흔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도서지역 해양관광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소규

모 도서지역의 상인이나 민박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관광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이 관광가이드로 참여하거나 관광상품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기존 경제활동과의 관계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제한적이다.

대안으로 관광 관련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년 혹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관광 성수기 동안 도서지역에서 관광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관광 서비스 개선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도서지역 관광 관련 창업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도서지역으로 이주나 관광시설 운영에 참여할 경우, 이주지원이나 관광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도서지역의 관광 서비스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4-3〉 일본 도서지역 교류 및 창업컨설팅 사례



자료: <https://shimatching.mlit.go.jp/>(검색일: 2018. 10. 12.)

3) 도서관광 편의시설 개선

도서지역 관광객 집단은 크게 개인·가족단위 여행자 집단과 단체 여행자 집단으로 구분된다. 단체 여행자 집단은 대부분 도서지역까지의 교통, 도서지역 내 교통수단과 숙박시설을 여행사를 통하여 이용하므로 각종 시설 이용의 편리성이 높은 편이다. 반면 개인·가족단위 여행자는 도서지역 관광활동에 수반되는 교통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여행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도서지역 내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지역 관광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서지역 내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종합안내센터를 마련하고, 센터를 통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관광상품 및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4-4〉 도서지역 편의시설 안내체계 개선



도서지역 방문객들은 도서지역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정보 접근 문제와 함께 도서지역 내 관광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광의 수용 여건을 고려할 때, 대단위 관광시설의 조성이나 단체관광을 위한 새로운 편의시설의 조성은 한계가 있으며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시설의 조성보다는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도서지역 내 유희공간의 재생 및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본의 도서지역 관광진흥 사례를 보면, 일본은 도서지역의 유희시설을 재활용하고 내부 시설을 고급화하여 관광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국내 도서지역에서도 폐교나 빈집 등을 활용하여 관광 편의시설로 개조하는 사업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관광 소비시장이 다양화되는 트렌드를 고려할 때, 대중적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시설과 함께 특수 목적객을 위한 차별화된 관광시설의 조성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5〉 일본 도서지역 고택시설의 리모델링 사례



자료: www.mlit.go.jp/common/001182906.pdf(검색일: 2018. 10. 12.)

3. 도서지역 해양관광 상품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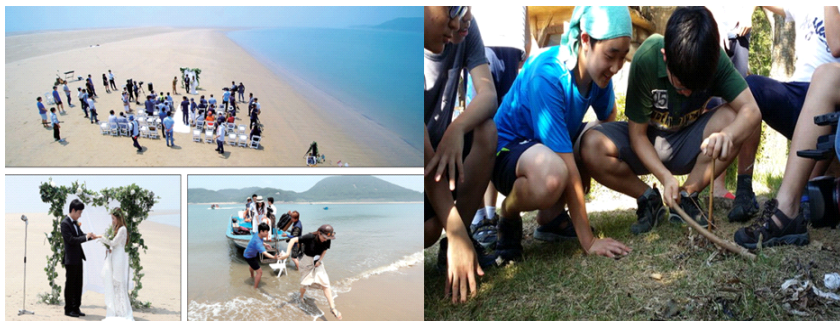
1) 도서지역 해양관광 상품의 발굴

도서지역 관광상품의 특징은 관광상품이 특정 도서지역에 국한되면서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경관감상 중심의 관광활동이 주를 이루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관광활동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데 있다. 정부에서는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 33선이나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과거부터 관광 상품성이나 인지도가 높았던 섬들이 중복 지정되거나, 동일한 섬이 테마만 변경되어 다시 지정되고 있다. 이는 도서지역 방문을 위한 교통 및 수용태세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외에도 새로운 관광 테마의 발굴이 미흡하고 관광 상품화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향후 도서지역 관광상품 발굴은 기존의 대규모 도서나 인지도가 높은 도서에서 벗어나 소규모 특수목적 관광상품을 중심으로 관광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서 지역별로 해양생태관광이나 무인도서 관광 등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행사나 지자체가 이를 운영·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휴양 및 휴식을 즐기려는 관광수요의 증가 등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서지역 경관감상 수요를 해양치유 정책의 대상으로 흡수하고, 도서지역에서의 단기 혹은 장기 체류를 위한 관광상품을 마련하도록 한다.

〈그림 4-6〉 무인도서 생태체험·이벤트 상품 운영 사례



자료: (좌)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3401>;

(우) 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850&key=20150811.22018185619(검색일: 2018. 10. 12.)

2) 해양관광 콘텐츠의 다양화

도서지역의 해양관광 상품은 도서지역 경관감상 외에 해양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들어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체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도서지역을 해양관광의 정책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서지역이 보유한 해양관광콘텐츠의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도서지역의 해양문화원형 발굴 사업과 함께 해양문화에 대한 체험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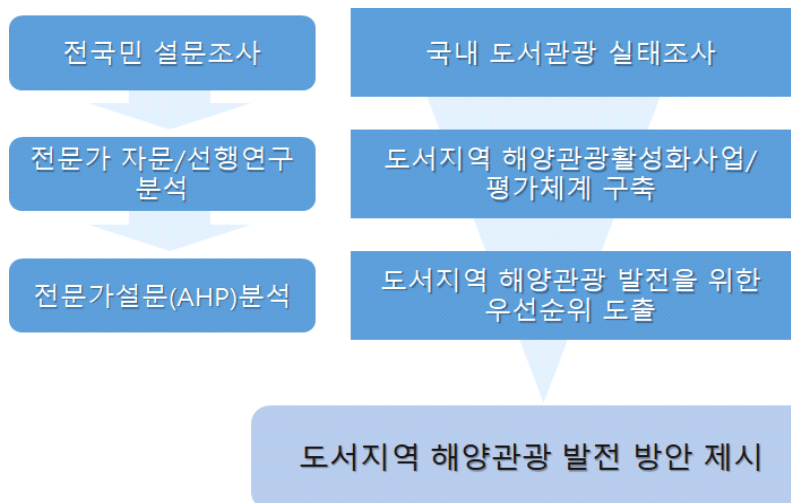
도서지역 해양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해양자원 또는 해양문화원형이 발굴되고 이것이 하나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양부문에는 자원발굴이나 소재의 부존성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이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도서지역 해양문화자원과 문화원형을 콘텐츠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성과 함께 이를 기획하는 과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상품성이 높거나 대중성이 높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획 및 기술 개발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도서지역 해양문화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콘텐츠의 생산을 위해서는 공공이 민간의 창작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레저·스포츠 수요 증가와 연계하여 레저보트 활동이나 수중레저활동 등 레저상품을 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도서관광의 활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사업

1)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 발굴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 이용성 향상, 해양관광 상품성 강화에 도입될 수 있는 사업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도서 및 해양관광 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 영역을 <표 4-1>과 같이 구분하고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항목은 도서지역 해양관광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도서관광 발전요소와 발전에 필요한 사업 항목 및 선행연구 자료,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국내 도서 및 해양관광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최종 30개의 유효표본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그림 4-7〉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 도출과정



〈표 4-1〉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사업

구분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접근성 개선	도서지역 관광홍보 개선	○ 도서관광 캠페인/홍보사업
		○ 도서관광 홍보물 발간
		○ 도서관광 방문주간 시행
	도서관광 교통접근성 개선	○ 여객선 요금 할인 및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육상/해상 교통 연계 패스 마련
		○ 여객선 터미널/여객선 현대화 사업 확대
		○ 여객선 보조항로 확대
	관광정보 접근체계 개선	○ 도서관광 정보 포털 사이트 확대, 개편
		○ 도서지역 관광정보 콘텐츠 발굴, 홍보
		○ 도서관광 홍보 수단 다양화
이용성 향상	도서관광 관리여건 개선	○ 도서지역 안전 홍보 캠페인
		○ 도서지역 숙박/편의시설 인증 제도 시행
		○ 도서관광 상품 인증 제도 시행
		○ 도서관광 생태자원의 보전
		○ 도서관광 이용방문수요 관리
	도서관광 편의시설 개선	○ 도서관광 안내체계 개선
		○ 도서지역 관광 편의시설 개선
	도서관광 서비스 개선	○ 도서지역 관광 스타트업 창업 지원
		○ 도서지역 관광창업자 이주 지원
상품성 강화	도서관광 상품 발굴	○ 다양한 소규모 도서관광 상품(해양생태관광, 무인도서 관광, 장/단기 등) 개발 지원
		○ 소규모 도서관광 상품(해양생태관광, 무인도서관광 등) 판매/홍보 지원
	해양관광 콘텐츠 다양화	○ 해양레저 프로그램/기반시설 정비 지원
		○ 해양치유/휴양 관광상품 개발

2)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 우선순위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과 이용성 향상, 상품성 강화의 대항목 분류에서 전문가들은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상품성 강화, 이용성 향상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접근성 개선에 대한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있다. 도서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지역까지의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 해소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다음으로 해양관광을 위한 관광상품의 발굴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접근성 개선, 이용성 향상, 상품성 강화의 대항목에 따른 중항목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사업 대/중항목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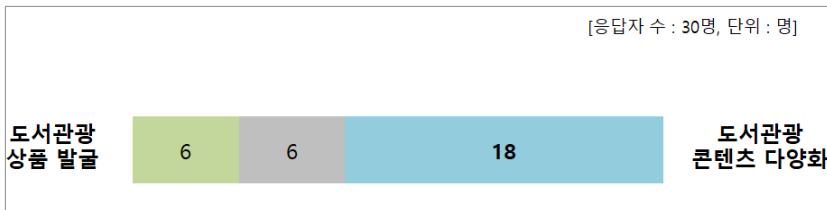
대항목 (우선순위/ 상대적 비중)	중항목	상대적 비중 (종합 가중치)	우선 순위
접근성 개선 (우선순위: 1 상대적 비중: 0.3645)	도서지역 관광홍보 개선	0.2789	3
	도서관광 교통접근성 개선	0.4056	1
	관광정보 접근체계 개선	0.3155	2
이용성 향상 (우선순위: 3 상대적 비중: 0.3062)	도서관광 관리여건 개선	0.2952	3
	도서관광 편의시설 개선	0.3532	1
	도서관광 서비스 개선	0.3516	2
상품성 강화 (우선순위: 2 상대적 비중: 0.3293)	도서관광 상품 발굴	-	2
	해양관광 콘텐츠 다양화	-	1

접근성 개선에 포함된 중항목인 도서지역 관광홍보 개선과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관광정보 접근체계 개선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서는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관광정보 접근체계 개선과 도서지역 관광홍보 개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상대적 비중을 함께 살펴보면, 교통접근성에 대한 중요도가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용성 향상 부분에 대한 평가에서는 도서지역 관광 편의시설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 도서관광 서비스개선, 도서관광 관리여건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의 상대적 비중에서는 편의시설 개선과 서비스개선은 비중이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광 상품성 강화 부분은 중항목이 도서관광 상품 발굴과 해양관광 콘텐츠 다양화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문가들은 해양관광 콘텐츠 다양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4-8〉 도서지역 해양관광 상품성 강화부문의 상대적 중요도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별 중요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도서관광 교통접근성 개선 부문은 ‘육상/해상 교통 연계 패스 마련’, 관광정보 접근체계 개선 부문은 ‘도서지역 관광정보 콘텐츠 발굴 및 홍보’, 도서지역 관광홍보 개선 부문은 ‘도서관광 캠페인/홍보사업’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서관광 편의시설 개선 부문은 도서지역 기초 편의시설을 포함한 ‘관광 편의시설 개선’, 도서관광 서비스 개선 부문은 ‘도서지역 주민 관광서비스 교육’, 도서관광 관리여건 개선 부문은 ‘도서관광 생태자원의 보전’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 해양관광 콘텐츠 다양화 부문은 ‘해양레저 프로그램/기반 시설 정비 지원’, 도서관광 상품 발굴 부문은 ‘다양한 소규모 도서관광 상품(해양생태관광, 무인도서관광, 장/단기 등) 개발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세부 사업별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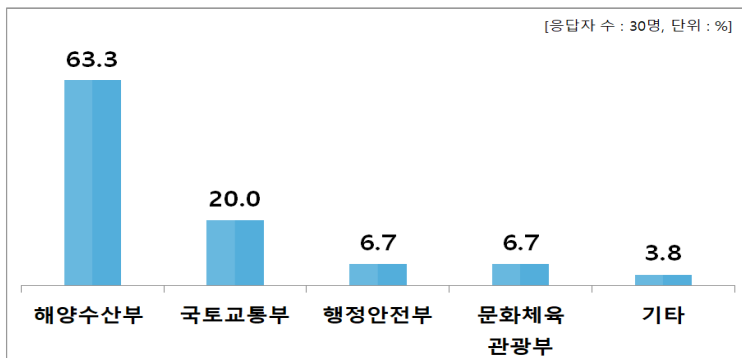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종합 가중치	우선 순위
접근성 개선	도서지역 관광홍보 개선	○ 도서관광 캠페인/홍보사업	0.3865	1
		○ 도서관광 홍보물 발간	0.2816	3
		○ 도서관광 방문주간 시행	0.3320	2
	도서관광 교통접근성 개선	○ 여객선 요금 할인 및 마일리지 제도 도입	0.2223	4
		○ 육상/해상 교통 연계 패스 마련	0.2742	1
		○ 여객선 터미널/여객선 현대화 사업 확대	0.2720	2
		○ 여객선 보조항로 확대	0.2316	3
	관광정보 접근체계 개선	○ 도서관광 정보 포털 사이트 확대. 개편	0.3229	2
		○ 도서지역 관광정보 콘텐츠 발굴, 홍보	0.3847	1
		○ 도서관광 홍보 수단 다양화	0.2923	3
이용성 향상	도서관광 관리여건 개선	○ 도서지역 안전 홍보 캠페인	0.1808	5
		○ 도서지역 숙박/편의시설 인증 제도 시행	0.2065	2
		○ 도서관광 상품 인증 제도 시행	0.1938	3
		○ 도서관광 생태자원의 보전	0.2336	1
		○ 도서관광 이용방문수요 관리	0.1852	4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종합 가중치	우선 순위
이용성 향상	도서관광 편의시설 개선	○ 도서관광 안내체계 개선	-	2
		○ 도서지역 관광 편의시설 개선	-	1
	도서관광 서비스 개선	○ 도서지역 관광 스타트업 창업 지원	0.3168	2
		○ 도서지역 관광창업자 이주 지원	0.3144	3
		○ 도서지역 주민 관광서비스 교육	0.3689	1
상품성 강화	도서관광 상품 발굴	○ 다양한 소규모 도서관광 상품(해양생태관광, 무인도서관광, 장/단기 등) 개발 지원	-	1
		○ 소규모 도서관광 상품(해양생태관광, 무인 도서관광 등) 판매/홍보 지원	-	2
	해양관광 콘텐츠 다양화	○ 해양레저 프로그램/기반시설 정비 지원	-	1
		○ 해양치유/휴양 관광상품 개발	-	2

3) 도서지역 발전정책의 추진

국내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가 연계되어 있다. 도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부처 간의 역할 및 협업 체계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에 대한 의견을 살펴 보았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해양수산부가 섬 발전을 위한 정책의 주관부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4-9〉 섬 발전을 위한 정책 주관부처



한편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김향자(201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섬은 바다에 둘러싸여 해양공간 범주에 포함되며 어촌계가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해양자원의 관리정책과 밀접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주무부서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⁸²⁾

〈표 4-4〉 섬 정책 주관부서

구분	비율(%)	구분	비율(%)
해양수산부	52.8	안전행정부	19.4
문화체육관광부	22.2	환경부	-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교통부	2.8
산림청	-	국립공원관리공단	-
해양환경관리공단	2.8	기타	-

자료: 김향자,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 125

부처 간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도서지역 발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부처별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표 4-5〉 섬 관련 정책사업

구분	관련 사업
섬 정주여건 정비·개선	섬 마을 명소화, 섬 지역 어항 관리 등
주민여가문화 확대	섬 주민 문화 혜택 제고, 여가생활 개선 등
섬 관광 활성화	섬 관광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관광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주민교육 및 주민공동체 형성 지원, 주민소득 증대 사업 등
영토 관리	해양영토 및 무인도서 관리, 선박운항 지원 등
환경 관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섬 지역 임야관리, 생태자원 보호 등
자원 보전·관리	천연보호구역 관리, 문화재 관리 등

82) 김향자(2013), p. 125.

섬 정책과 관련된 7개 영역에 대해 부처별 소관 영역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섬 정주여건 개선과 환경관리 부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행정안전부는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섬 관광 활성화 부분에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를 포함한 발전정책은 부처 간 협업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표 4-6〉 섬 관련 부처별 정책사업 영역

단위: %, 복수응답

구분	해양 수산부	행정 안전부	문화체육 관광부	환경부	농림축산 식품부	국토 교통부
섬 정주여건 정비·개선	66.7	30.0	33.3	13.3	10.0	20.0
주민여가문화 확대	43.3	30.0	80.0	3.3	6.7	10.0
섬 관광 활성화	46.7	6.7	93.3	10.0	6.7	13.3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46.7	53.3	30.0	3.3	20.0	10.0
영토 관리	56.7	23.3	6.7	13.3	-	63.3
환경 관리	56.7	3.3	10.0	66.7	-	10.0
자원 보전·관리	46.7	-	60.0	50.0	-	10.0

제3절 도서지역 해양관광발전 정책 수단 정비

1.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도서지역 해양관광 여건과 실태 및 전문가 설문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도서관광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광의 어려움은 크게 ‘접근성’과 ‘정보’의 문제로 대별된다. 접근성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말하며, 정보 문제는 어디를 어떻

게 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체계 편입 등을 통한 관련 접근성 개선, 정보제공 확대를 통한 홍보 강화가 필수적이고, 그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협업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도서는 육상과 해상이 접하고 있는 공간으로 여러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서지역 관광사업에 관여하는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다. 각 부처 내부와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정보의 차이가 있으므로 도서와 관련된 정책은 관계 부처의 사업을 공유하고 연계해야 하나 협력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단순히 법령과 추진체계에 따라 유인도서와 무인도서 등으로 구분해 둘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8년 8월에 행정안전부는 섬 발전 대책을 수립하면서 관광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항을 명시한 바 있다. 섬 관광 활성화에서 제시한 여행경비 부담 완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섬의 날’ 행사 등 마케팅 지원 강화, 섬 관광 정보 플랫폼 구축·공개 등은 사실상 모두 해수부와 지자체, 문체부가 공조해야 할 사업들이다.

행안부는 체계적 정책과 발전 전략을 위해 범부처 도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각 부처의 사업을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각 부처 사업의 반영과 연동은 기본적인 필수적인 사항이며 이를 넘어서는 협의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가관광전략회의’⁸³⁾와 같이 유관부처가 다 같이 모여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

83) 제1차(2017년 12월 18일), 제2차(2018년 7월 11일) 개최, 국무총리 주재 하에 법무부, 행정안전

하다. 각 부처의 특성상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주무 분야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기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인도서를 담당하는 행안부나 무인도서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등 특정 부처의 주도보다는 그 상위의 기관 주재 하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처에서 증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를 서로 드러내기 위해 보다 실제적인 사업과 자료를 제공하고, 그 결과, 정책수단이 풍부하게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손쉬운 일례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연안 여객선 만족도조사는 행안부, 문체부, 국토부 등과 논의하여 필요한 설문내용을 추가로 삽입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등의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기한 육상-해상 교통 이용 편의 개선의 경우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여객 터미널 시설 개선 및 선박 내부 리모델링도 문체부 등 관광 관점에서의 여행 편의성과 쾌적성 제고 정책 및 재정 지원을 시도해볼 수 있다. 행안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 플랫폼에서도 다른 부처에서 섬과 관련하여 맡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아도 도서관장과 관련한 협업체계 강화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겠다.

2. 도서지역 해양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체계 마련

도서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는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부처별 정책

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무조정실장, 정책기획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 참여

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것과 함께 이의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도서관광 정책은 도서 지역의 관광수용력 제고와 더불어 관광시장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오면서 관광수요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도서관광 여건 진단 및 지표 개발, 도서지역 관광시스템 구축 등이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지만 개발논리 및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체계의 구축은 요원한 실정이다. 한편 도서지역의 해양환경적 특성 및 관광자원 수용 여건을 고려할 때 도서지역 해양관광 정책의 추진 방향은 보전적 개발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지역의 관광개발이나 관광상품 운용은 일반 육상 공간의 관광개발과 달리 관광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도서지역에 그대로 남게 된다. 또한 공간적, 지리적 특성상 관광수용력의 확장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 해양관광 사업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대규모 거점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도서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림 4-10〉 제주 우도 관광도서 언론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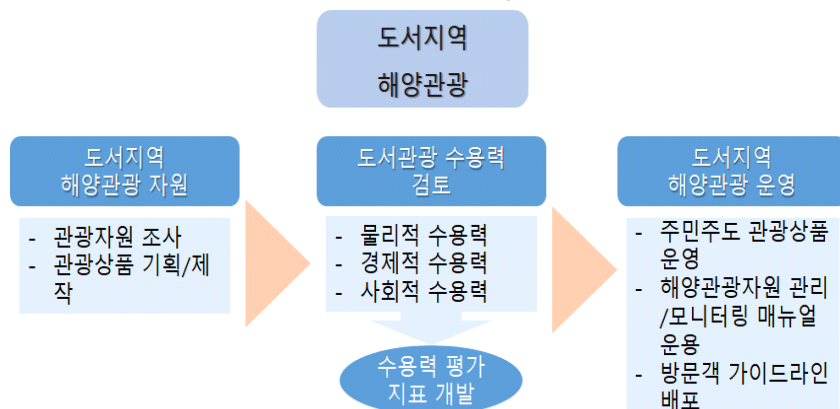




자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082224015&code=620117;
<http://news1.kr/articles/?3199002>;
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81466;
www.yna.co.kr/view/AKR20180709086600056?input=1195m(검색일: 2018. 10. 12.)

이에 따라 도서지역 해양관광자원의 발굴 및 상품화, 판매는 도서 지역 수용 여건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도서지역의 관광 수용 여건이란 교통, 숙박, 편의시설 등 물리적 수용 여건 외에 해당 도서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의 사회적 수용력까지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마을단위 관광지의 과밀 현상에서 나타나는 오버 투어리즘(over tourism)이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도서지역 해양관광은 관광 수용력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사전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지역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조사 및 관광상품의 기획/제작과 연계하여 도서지역 해양관광 수용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서지역 관광 수용력의 검토를 위해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수용력에 대한 지표개발을 통하여 해당 도서지역의 해양관광자원 발굴 및 상품 운용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그리고 도서지역 해양관광 상품의 운영은 주민이 주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관광지의 과밀 및 자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방문객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도록 한다.

〈그림 4-11〉 도서지역 해양관광자원/상품 운용체제 마련



3. 도서지역 해양관광자원·상품 발굴

도서지역을 해양관광의 대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서 지역 고유의 해양관광자원 및 관광상품 발굴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지역 관광 동향 및 해양관광 도입 여건에 대한 문헌자료 및 설문조사 분석을 종합하면, 국내 도서지역 관광상품은 해안경관감상이나 수산물 시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관광시장은 경관감상 및 해변휴식에서 벗어나 해양레저·스포츠 참여 및 체류형 관광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의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발굴과 함께 해양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접목시킨 해양관광 상품의 발굴 및 육성체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자원 발굴,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다양한 상품개발 및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12〉 국내 해양관광 상품 개발 및 창업지원 사례



자료: (좌) 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8996&searchSelect=title&searchValue=%ED%95%B4%EC%96%91%EA%B4%80%EA%B4%91%EC%83%81%ED%92%88&boardKey=10&menuKey=376¤tPageNo=1
 (중) 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8671&searchSelect=title&searchValue=%EC%B0%BD%EC%97%85&boardKey=10&menuKey=376¤tPageNo=1
 (우) 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76&boardKey=10&articleKey=23427
 (검색일: 2018. 10. 12.)

도서지역 해양관광자원 및 상품 발굴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상품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도서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의 제작을 지원하거나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관광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우수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이나 ‘해양관광벤처’ 공모사업 등에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관광 상품의 발굴이나 벤처 지원을 추가하여, 도서지역 해양관광 상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국민적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정비사업, 마리나항만시설 조

성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 사업 등도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 영역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도서지역의 해양관광시설 조성이나 체험 행사에 대한 정책적 관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주5일제와 주52시간제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교통수단의 발달,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관광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도서지역으로의 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서지역이 관광정책의 대상이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며,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이 마련되었다. 국내 도서 관련 정책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다수 부처가 소관 업무 영역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명품섬 베스트 10 사업)’, 해양수산부의 ‘바다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사업’, ‘이달의 무인도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자체 중에서는 전라남도과 경상남도, 인천광

역시 등이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경제·사회·문화·제도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은 도서 정책의 기본 방향이 영토 관리 측면에 맞춰져 있다. 무인도서와 유인도서를 구분하지 않고 본토와의 교류 및 경제 협력을 통해 도서에 정주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도서관광 역시 무인도서의 유인도서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취합해 우수 사업 아이템을 전국적으로 홍보·확산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도서만이 가진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서 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특화된 민간단체인 일본이도센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생산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국민들이 섬에 대해 친밀감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서관광 실태 파악을 위해 도서관광 이용수요와 도서관광 자원 및 관광비용, 관광목적 등에 대한 2차 자료 분석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서지역 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서지역 관광활동의 특성과 제약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도서지역 이용 특성에 대한 2차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서관광 대중화 여건은 아직 미흡하며, 도서지역 관광이 일반 관광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광 시 소요 비용 및 시간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려워 개별여행자의 여행 편의성이 높지 않았다. 또한 도서지역 방문토픽과 방문목적이 불일치하는 등 도서 및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해서는 이동 수단인 연안여객선의 관광 매력도를 증대시키는 한편 교통비용의 절감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도서지역의 자연경관 자원 외에 해양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도서지역의 관광상품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 방안을 해양공간 관리와 연계해야 한다.

도서지역 관광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서관광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과 실제 방문한 도서, 앞으로 방문하고 싶은 도서가 불일치했다. 이는 전남지역 도서관광 의향은 높으나 실제 제약요인은 제주와 경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한편으로는 도서의 접근성 측면에서 해석 가능하게 전남지역의 도서는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도서관광의 동기는 심리적 일탈감 추구가 강하고, 경관감상이나 휴식 활동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광 경비는 국민여행실태조사 여행지불경비와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광의 관광 형태는 개인여행객이 월등히 많아 개인여행객을 위한 도서관광 안내시설이나 홍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구에서 목적지인 도서까지 2시간 이내 소요된 도서를 방문한 비율이 8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서관광의 제약요인으로 먼 거리가 가장 크게 작용하며, 도서관광 발전을 위한 필요한 요소와 사업 등을 평가한 결과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조사와 관련하여 연육교가 없는 사면인 바다로 이루어진 곳만을 도서관광 목적지로 한정하였으나, 거제도나 제주도 관광을 도서관광으로 인식해 응답하는 오류가 빈번하였다. 즉, 도서지역의

범위에 대한 정책적 시각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관광활동자들은 모든 도서지역을 동일한 관광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경관감상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활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도서지역의 해양관광 도입 여건 분석을 위한 이용수요 및 도서관광상품의 공급여건 분석과 함께 도서지역 관광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 제약요인을 종합해보면, 도서지역의 관광활동은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정보, 교통 등 기본적인 접근체계가 관광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서관광 수요측면에서 도서지역 관광을 위한 구조적 제약요인들이 도서관광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광콘텐츠의 개발이나 기반시설의 정비에 앞서 도서관광의 행태적 특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도서지역으로의 접근성이나 여객선 이용비용 할인, 도서지역 내에서의 관광활동 등 도서지역 방문을 위한 이용 편의성 제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서지역 해양관광 여건을 바탕으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은 도서지역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 개선을 통한 도서지역 해양관광의 구조적 제약요인 해소와 이용성 향상 및 해양관광 상품성의 강화이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3대 기본 방향 하에 추진되는 세부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AHP 분석 결과,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상품성 강화, 이용성 향상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업별 중요도는 접근성 개선 부문에서는 ‘육상/해상 교통연계 패스 마련’, ‘도서지역 관광정보 콘텐츠 발굴 및 홍보’, ‘도서관광 캠페인/홍보사업’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품성 강화 부문

에서는 ‘해양레저 프로그램/기반시설 정비 지원’, ‘다양한 소규모 도서관광 상품(해양생태관광, 무인도서관광, 장/단기 등) 개발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성 향상 부문에서는 ‘도서지역 관광 편의시설 개선’, ‘도서지역 주민 관광서비스 교육’, ‘도서관광 생태자원의 보전’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 수단 마련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도서지역에 대한 해양관광 수용력 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서지역 해양관광 자원·상품의 발굴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2절 정책제언

1. 도서지역 해양관광활성화 중장기 전략계획 마련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이에 따른 정책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도록 한다.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는 도서관광 접근성 개선을 통한 구조적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도서관광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광 이용성 향상과 관광상품성 강화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도서지역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은 도서지역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낮추기 위한 교통접근성 개선과 함께 관광정보 접근체계 개선과 관광 홍보사업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부처별 정책 영역에 따라 협업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도서관광 이용성 향상은 도서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편의시설 개선, 지역주민 서비스교육 및 청년창업 지원 등의 관광 서비스 개선, 도서관광 안전성 확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상품성 강화는 해양관광 콘텐츠의 발굴, 해양치유/휴양 관련 관광상품 개발 등 해양관광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하여 방문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무인도서 탐방, 해양생태관광 등 특수목적 관광상품도 함께 발굴하도록 한다.

〈표 5-1〉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구분	도입사업	추진방안	비고
도서관광 접근성 개선	도서지역 관광홍보 개선	• 도서관광 캠페인 - 행정안전부 도서관광 홍보사업 확대 • 도서관광 홍보물 발간 - 도서관광 방문주간: 문화체육관광 여행주간 확대,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홍보 강화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광 교통접근성 개선	• 여객선 요금 할인, 마일리지제도 도입 - 해양수산부 '바다로'사업 확대(대상/시기) - 여객선 통합 마일리지 상품 운영 • 육상/해상 교통 연계 패스 발간 - 철도/해운 연계 패스 마련(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 여객선 터미널/여객선 현대화 사업 확대 - 연안 여객선 터미널 시설 개선/홍보센터 조성: 해양수산부 여객선터미널 시설개선사업 • 여객선 보조항로 확대/준공영제 도입: 해양수산부 여객선 항로 정비사업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관광정보 접근체계 개선	• 도서관광 정보 플랫폼 홍보 - 섬관광 관련 정보 포털 사이트 홍보: 해운조합, 해양관광' 정보 포털 확대(해양수산부) • 도서지역 관광정보 콘텐츠 개발 - 도서지역 해양관광 정보 개선, 도서관광상품 발굴/홍보: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 도서지역 홍보수단 다양화 - 도서지역 해양관광 매체 다양화: 해양수산부 관광정보 사이트 개선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도입사업	추진방안	비고
도서관광 이용성 향상	도서관광 안전성 향상	• 도서지역 안전홍보 캠페인 - 여성/개인 관광자를 위한 도서관광 홍보/캠페인 실시: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공동 홍보 • 도서지역 관광시설/상품 인증 - 도서지역 숙박/편의시설 안전 인증: 행정안전부/지자체 인증마크(인증체계 구축) 홍보 • 도서지역 관광시설/상품 인증 - 도서지역 관광상품 인증: 해양레저상품 보험/안전관리 인증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도서관광 편의시설 개선	• 도서지역 관광 안내체계 개선 - 연안여객선 터미널↔도서 어항/항 내 관광안내센터 설치: 해양수산부 여객선 터미널 개선/어항개선사업 활용 • 도서지역 관광편의시설 개선 - 유희 어항의 편의시설/폐교/민가 리모델링 사업: 민박시설/관광 편의시설 설치(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어촌체험/어항 정비사업 활용)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도서관광 서비스 개선	• 도서지역 청년창업 지원 - 도서지역 관광스타트업 창업지원: 도서지역 관광상품 제작/관광시설 운영(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지역 이주 지원: 도서지역 관광창업을 위한 이주시 관광시설 개선/정착 지원(해양수산부) • 도서지역 관광서비스 표준 개선 - 지역주민 관광서비스 교육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광 상품성 강화	도서관광 상품의 발굴	• 소규모 특수목적 관광상품 운영 - 해양생태관광, 무인도서관광 등 소규모 관광상품의 제작/판매 지원(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도서관광 콘텐츠의 다양화	• 해양관광 콘텐츠의 발굴 -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 기반시설 정비 지원 - 해양치유/휴양관광상품 개발	해양수산부

2. 도서관광 활성화 지원체계 강화 및 조직 신설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둘러싼 부처 간 역할 정립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지역의 특성상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정비, 해양환경관리, 해양영토로서의 도서지역 보전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도서의 특성상 도서지역 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도서지역 발전정책에서도 부처간 협력 및 협업체계의 강화는 정책적 개선사항으로 논의 되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는 기존 부처별 정책 영역에 따른 협업 외에 도서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관광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018년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2019년 8월 8일이 첫 번째 ‘섬의 날’로 제정되면서 도서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한편 도서지역의 특성상 특정 부처가 도서지역의 관리 및 발전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처간 역할 정비 및 정책사업의 발굴 및 집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가칭 도서발전 지원센터)을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협업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도서지역의 분포가 높은 서해안권과 남해안권 지역을 대상으로 해안권별 도서발전 지원센터를 지역대학 및 지역 연구원과의 공동으로 지정·운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과 더불어 지역 도서에 대한 자연자원, 정주환경, 지역주민 지원 프로그램, 정책사업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3.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모델 구축

국내 지역관광 발전모델 및 활성화전략은 대부분 관광수요 창출방안 마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수용력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편, 도서지역은 일반 내륙 지역과 달리 관광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특성상 관광활동 및 방문자와의 교류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도서지역의 해양관광발전 모델 구축에 있어서 대단위 시설 투자를 전제로 하는 개발전략의 수립이나 대규모 관광수요 창출 전략마련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도서지역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은 해양관광자원과 지역의 자연환경여건, 정주여건 등을 포함한 관광수용 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상품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 모델은 지역별 해양관광자원 및 지역의 수용 여건, 지역주민의 역량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지역별 해양관광 수용력 평가지표 개발과 함께 도서지역 해양관광상품 운영을 위한 방문객 가이드라인 마련, 해양관광자원 관리 매뉴얼 구축을 통하여 도서지역 해양관광사업의 운용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서지역 해양관광자원 및 상품 발굴은 해양수산부의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과 더불어 어촌뉴딜 300사업 등 기존 정책 사업을 활용하여 도서지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유지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신점, 「커뮤니티 중심의 섬관광 개발」, 『경남발전』, 제121호, 2012.
- 강신점·이진형, 「지역사회기반 섬 관광정책의 성과와 과제: 행정안전부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제14권 제1호, 2018.
- 국토교통부,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8배 만큼 넓어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5. 28.
- 국토해양부, 『연안여객운송산업 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2.
- 김시곤, 「국가교통망의 위상정립과 연안해상교통체계 정상화 방안」,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 국회 세미나 자료집, 2018. 1. 29.
- 김영준, 「섬 관광의 현재와 미래 발전 전략」, 『경남발전』, 제121호, 2012.
- 김재호, 「섬 방문객의 관광동기가 관광 후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인천광역시 섬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제18권 제4호, 2014.
- 김준, 『섬자원 이용형태와 지속가능한 섬발전 전략』, 광주전남연구원, 2016.
- 김태영, 「경남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경남발전』, 제121호, 2012.
- 김태일, 「연안여객 대중교통화 방안」,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 국회 세미나 자료집, 2018. 1. 29.
- 김향자 외,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최종평가』, 문화체육관광부, 2011.
- 김향자,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노영희,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 및 평가모델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2008.
- 마상열 외, 『가고싶은 섬 조성을 위한 개발구상』, 경남연구원, 2008.
- 문성민, 『제주관광의 정책현황과 대안모색』, 이담북스, 2009.
- 박용안·전우현,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KMI 동향분석』, 제33호, 2017. 6.
- 박진경·오은주,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08~’17) 계획 변경(안) 타당성

- 검토』, 행정자치부, 2013.
- 박진경 외, 『도서 미래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 박진경,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서개발정책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50집, 2017.
- 백주하,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제약이 여가제약협상과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서용건·고광희·김민철, 「섬 관광목적지 경쟁력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2권 제1호, 2010.
- 송재호, 『제주관광의 이해』, 도서출판 각, 2002.
- 신용석, 『해외국가 인바운드 정책 및 시장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 심진범, 『지역사회기반 섬 관광정책 추진방안: 세어도를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2011.
- 심진범, 『인천 연안도서 지역사회 기반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2a.
- 심진범, 『인천시 섬 예술관광 진흥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2b.
- 심진범·김지선, 『인천시 섬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 대이작도를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2016.
- 안태기, 「섬 관광객의 관광동기가 섬관광 선택속성에 미치는 영향: 관여도를 조절 효과로」, 『관광경영연구』, 제21권 제6호, 2017.
- 오정준, 『지속가능한 관광의 이론과 실제: 제주사회와 제주관광의 변화』, 백산출판사, 2004.
- 유창근, 「도서 관광객의 방문동기, 선택속성 및 만족도간 관계분석: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섬을 중심으로」, 『해양비즈니스』, 제24호, 2013.
- 이동호, 「한국도서연구 학술지의 연구특성에 대한 사회네트워크분석 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0권 제1호, 2018. 4.
- 이상범 외, 『도서지역 친환경 관광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 이재환·이진형·황두현, 「섬 관광 성공요인: 증도와 청산도의 비교 연구」, 『관광학연구』, 제40권 제2호, 2016. 2.
- 이주연, 「가족기능과 여가제약 및 여가만족에 관한 연구: 기혼직장인을 대상으로」, 『여가학연구』, 제6권 제3호, 2009.
- 이진형 외, 「전남 서남해안의 섬관광: 성찰과 제안」, 『한국도서연구』, 제26권 제4호, 2014. 12.
- 이훈, 「왜 지역축제에 참가하지 않는가?: 비참여자의 장소애착도와 여가제약이론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제8권 제1호, 2005. 3.
- 인천광역시,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인천도서발전기본계획』, 2016.
- 임화순·고계성, 「관광목적지 매력속성에 따른 중요도-성취도 연구: 일본 오키나와 중심으로」, 『관광연구』, 제21권 제1호, 2006.
-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10개년 계획(2015~2024)』, 2015.
- 정란수·이훈·이인재, 「여가제약모형의 비판적 재구성: 사회 구조와 행위의 통합적 접근」, 『관광학연구』, 제31권 제1호, 2007.
- 정명화·김광국, 『전라북도 섬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2013.
- 정형식·염승엽·김재진,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의 강화 및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여가학연구』, 제6권 제3호, 2009.
- 조아라이성태, 『한일 국제관광 정책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조진상,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섬관광 발전전략의 모색: 완도군 청산도 방문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4호, 2009.
- 최영민·길가영, 「음식축제 방문동기가 관광지 선택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17 정남진 장흥 키조개 축제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제17권 제3호, 2017.
- 충청남도, 『충청남도 도서발전 종합계획』, 2014.
- 하혜수·최영출·하정봉, 「지자체 특례제도에 관한 한·일·영 비교연구: 도서특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5권 제4호, 2011.
-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양관광·레저 실태 조사』, 2016.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동향분석, 제23호, 2017. 4.
- 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각 연도.
- 한국해운조합, 『2018년도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2018.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7a.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17b.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17.
- 행정자치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안)』, 2016.
- 홍장원 외, 『해양문화자원의 콘텐츠화 방안 연구』, 2017.
- 환경부, 『제2차 특정도서 보전 기본계획(2015~2024)』, 2014.

〈국외 문헌〉

-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 내부자료
- 海上保安庁, 『海上保安の現況』, 1987.
- Crompton, J. L., “Motivations of pleasure va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6(4), 1979.

〈인터넷 자료〉

- 경기일보, “섬 5곳 ‘도서특성화 마을’ 키운다”(2017. 7. 12.),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3401>(검색일: 2018. 10. 12.)
- 경향신문, “섬 속의 섬 제주 우도, 차량 몰려 ‘몸살’”(2017. 5. 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082224015&code=%20620117(검색일: 2018. 10. 12.)
- 공항공정 홈페이지, www.arex.or.kr(검색일: 2018. 6. 7.)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검색일: 2018. 6. 3.)

국제신문, “무인도서 1박2일 원시체험… 일상이 주는 소중함 깨달아”(2015. 8. 10.),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850&key=20150811.22018185619>(검색일: 2018. 10. 12.)

국토교통부, www.molit.go.kr(검색일: 2018. 6. 3.)

네이버, 도서관광 상품 검색,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A%B5%AD%EB%82%B4+%EC%84%AC%EC%97%AC%ED%96%89&sm=tab_stc(검색일: 2018. 5. 31.)

네이버블로그, 블랙고트 무인도 관광상품 판매, blog.naver.com/juyoung5585(검색일: 2018. 6. 7.)

뉴스 1, “관광객·쓰레기 몸살, 섬속의 섬 ‘우도’의 미래는?”(2018. 1. 5.), <http://news1.kr/articles/?3199002>(검색일: 2018. 10. 12.)

대한민국 구석구석,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travel/theme/content/cms_view_2548262.jsp?gotoPage=&category=&listType=(검색일: 2018. 6. 5.)

선샤인시티, www.sunshinecity.co.jp(검색일: 2018. 6. 6.)

시맛칭구 홈페이지, shimatching.mlit.go.jp(검색일: 2018. 6. 4.)

시호도 홈페이지, sihodo.goheung.go.kr(검색일: 2018. 6. 7.)

아이란다 홈페이지, <http://www.i-lander.com/2018/index.html>(검색일: 2018. 6. 4.; 2018. 10. 12.)

아주뉴스, “[2018 국감] 김영춘 해수부 장관 ‘3년간 200척 이상 선박 신조 지원’(종합)”(2018. 10. 11.), <https://www.ajunews.com/view/20181011161000942>(검색일: 2018. 11. 7.)

연합뉴스, “제주 우도 렌터카 통제 연장 놓고 ‘1년 더’ vs ‘장사 못하겠다’”(2018. 7. 9.),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9086600056?input%20=1195m>(검색일: 2018. 10. 12.)

오지카섬 관광안내, <http://ojikajima.jp/category/kominkastay/kominka>(검색일: 2018. 6. 7.)

- 오키노에라부섬 관광협회, www.okinoerabujima.info(검색일: 2018. 6. 6.)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 홍보, <http://ulsan.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7132&searchSelect=title&boardKey=84&searchStartDate=2018-06-04&searchEndDate=2018-07-05&menuKey=106¤tPageNo=1>(검색일: 2018. 10. 8.)
- 위메이크프라이스, www.wemakeprice.com(검색일: 2018. 6. 7.)
- 일본 국토교통성, 체재교류형 관광을 통한 이도창생계획, <http://www.mlit.go.jp/common/001182906.pdf>(검색일: 2018. 6. 4.)
- _____, 이도진흥시책, <http://www.mlit.go.jp/common/001190202.pdf>(검색일: 2018. 6. 4.)
- _____, 이도진흥검토위원회보고서, <http://www.mlit.go.jp/common/001122030.pdf>(검색일: 2018. 6. 4.)
- _____, 섬 바람 구상, <http://www.mlit.go.jp/common/001229962.pdf>(검색일: 2018. 6. 4.)
- _____, 이도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의 메시지, http://www.mlit.go.jp/kisha/kisha07/01/010706_3/02.pdf(검색일: 2018. 10. 12.)
- _____, 아이란다 행사 개최 안내, <http://www.mlit.go.jp/common/001227320.pdf>(검색일: 2018. 10. 18.)
- _____, 연안여객선 연계 교통 패스, <http://www.mlit.go.jp/kobe/content/00032812.pdf>(검색일: 2018. 6. 7.)
- _____, 테마 연안여객선 상품, <http://www.mlit.go.jp/common/001119262.pdf>(검색일: 2018. 6. 7.)
- _____, 이도진흥계획사례집, <http://www.mlit.go.jp/common/001229954.pdf>(검색일: 2018. 6. 7.)
- 일본이도센터, www.nijinet.or.jp(검색일: 2018. 7. 5.)
- 전남 가고 싶은 섬 홈페이지, www.jndadohae.com(검색일: 2018. 6. 5.)
- 정부24, 제4회 섬 여행 후기 공모전, <https://www.gov.kr/portal/cnstexhb/2854?>

Mcode=10305;https://m.blog.naver.%20com/koreamof/221351666140
(검색일: 2018. 10. 8.)

제주일보, “우도 자동차 운행제한 관광객주민 찬반 엇갈려”(2018. 3. 27.),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81466>(검색일: 2018. 10. 12.)

티켓몬스터, www.ticketmonster.co.kr(검색일: 2018. 5. 31.)

한국일보, “전남 ‘1000원 여객선’ 도입 추진”(2018. 10. 30.),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301491794348?did=na>(검색일: 2018. 11. 7.)

한국해운조합, www.haewoon.or.kr(검색일: 2018. 6. 7.)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8671&searchSelect=title&searchValue=%EC%B0%BD%EC%97%85&boardKey=10&menuKey=376¤tPageNo=1>(검색일: 2018. 10. 12.)

_____,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8996&searchSelect=title&searchValue=%20%ED%95%B4%EC%96%91%EA%B4%80%EA%B4%91%EC%83%81%ED%92%88&boardKey=10&menuKey=376¤tPageNo=1>(검색일: 2018. 10. 12.)

_____,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76&boardKey=10&articleKey=23427>(검색일: 2018. 10. 12.)

해양수산부 블로그, <https://m.blog.naver.com/koreamof>(검색일: 2018. 10. 8.)

해양용어사전, https://www.khra.kr/lay1/program/S1T65C144/oceanDic/list.do?rows=10&cpage=1&sr_btn1=&sr_btn2=&sr_btn3=&sr_txt=%EB%8F%84%EC%84%9C(검색일: 2018. 6. 5.)

행정안전부, www.mois.go.kr(검색일: 2018. 6. 7.)

부록

1. 도서지역 해양관광 실태 설문조사지

국내 섬 관광 실태조사

2018070101-0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내 섬 관광 실태에 대한 의견을 조사 하고자 하며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 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 7

설문문의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일선 전문연구원 (051-797-4727)
조사문의 사항	㈜리서치앤리서치 홍정민 연구원 (02-3484-3036)

SQ11	거주지 (광역시도)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대전 6) 광주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SQ12	거주지 (시군구)	() 시군구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3	귀하의 연령은 올 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 ☐ 만 19세 이상 1) 19~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PART A. 섬 관광 인식

※ 본 조사의 대상인 섬은 연륙교가 없는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곳을 뜻하며, 제주도는 제외 (제주도 내에서 마라도, 우도 등을 가는 것은 포함)합니다. 이중 무인도는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하지 않는 섬을 뜻합니다.

※ 연륙교가 있는 섬 (본 조사에서 제외 되는 섬)과 없는 섬 예시

지역	연륙교가 있는 섬	본 조사 대상
경기/인천	강화도, 영종도, 고동도, 송도, 선재도, 대부도, 신도, 시도, 석모도	백령도, 대청도, 대이작도, 팔미도, 십미도, 모도, 덕적도, 연평도, 풍도
충남	안면도, 신진도, 황도	외연도, 호도, 웅도, 고파도, 가외도, 삼시도, 장고도, 죽도(충성), 원산도, 녹도, 고대도, 효자도, 호도, 허육도, 육도, 월도, 다보도, 소도, 추도, 외도, 내파수도, 웅도, 정족도
전북	무녀도, 단등도, 신시도	위도, 어청도, 연도, 개야도, 말도, 명도, 비안도, 관리도, 말도, 명도, 비안도
전남	진도, 고평도, 돌산도, 백일도, 나로도(외 나로도, 내나로도 포함), 완도, 신지도, 거금도, 태인도, 원주도, 미륵도, 달도, 달천도, 지족도, 소당도, 태인도, 백야도, 노력도, 고금도, 입해도, 소록도, 법성포인공섬, 장재도, 고하도, 묘도, 사육도, 적금도, 안좌도, 서도, 고도, 조약도, 화태도	비금도, 보길도, 청산도, 도초도, 알태도, 자은도, 조도(하조도, 상조도), 팔금도, 알태도, 안도, 금오도, 거문도, 하의도, 신의도, 노화도, 구도, 생일도, 낙타섬, 장도, 거북섬, 소안도, 남도, 사도, 하화도, 개도, 금오도, 안도, 거문도, 백도
경남	거제도, 남해도, 비토도, 창선도, 미륵도, 모개도, 저도, 음지도, 해간도, 칠천도, 녹도, 초양도, 가조도, 중죽도	육지도, 외도, 사량도, 소매물도, 매물도, 연대도, 비진도, 수우도, 소쿠리섬
부산/울산	영도, 가덕도, 놀차도	명선도
경북		울릉도, 관음도, 죽도, 독도
강원		조도, 죽도
제주		마라도, 우도, 비양도, 차귀도, 추자도(상추자도, 하추자도), 가파도

Q01. 귀하께서 국내 섬 관광이라고 하였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섬은 어디입니까?

(1) 광역시도

- ① 경기도 ② 인천광역시 ③ 전라남도 ④ 전라북도
 ⑤ 경상남도 ⑥ 경상북도 ⑦ 부산광역시 ⑧ 충청남도
 ⑨ 강원도 ⑩ 울산광역시 ⑪ 제주도

(2) 구체적인 섬 이름 ()

Q02. 귀하께서 평소 “섬 관광”을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감성을 다음 어휘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구분	섬 관광은							구분
									
(1)	흥미로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루한
(2)	재미있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재미없는
(3)	편리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불편한
(4)	상쾌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불쾌한
(5)	친숙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어색한
(6)	깨끗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더러운
(7)	활동적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적인
(8)	밝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어두운
(9)	젊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이가 든
(10)	편안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불안한
(11)	안전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위험한
(12)	여유로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답답한

PART B. 섬 관광 실태

Q03. 귀하는 지난 5년(2013년 7월~2018년 6월) 동안 국내 섬 관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03-1. 귀하는 5년(2013년 7월~2018년 6월) 동안 국내 섬 관광을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를 구분하여 작성)

- ① 유인도서()회 ② 무인도서()회

※ 다음은 최근 5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섬 관광을 기준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

Q04. 최근 5년 중 귀하가 방문한 가장 기억에 남는 섬은 유인도서였습니까? 무인도서였습니까?

- ① 유인도서 ② 무인도서 ③ 잘 모르겠다

Q04-1. 어느 지역의 섬을 여행하셨습니다?

- ① 경기도 ② 인천광역시 ③ 전라남도 ④ 전라북도
 ⑤ 경상남도 ⑥ 경상북도 ⑦ 부산광역시 ⑧ 충청남도
 ⑨ 강원도 ⑩ 울산광역시 ⑪ 제주도

Q04-2. 구체적인 섬의 이름을 기입해주시시오 _____

Q05. 방문한 월을 작성해주시시오.

- ① 1월 ② 2월 ③ 3월 ④ 4월 ⑤ 5월 ⑥ 6월
 ⑦ 7월 ⑧ 8월 ⑨ 9월 ⑩ 10월 ⑪ 11월 ⑫ 12월

Q06. 섬 관광의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여행사 관광 상품(패키지) ② 개인/가족 자유 여행
③ 동호회/회사/단체의 단체 여행 ④ 기타 ()

Q07. 귀하께서 섬 관광 정보를 습득한 주요 경로는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 ① 여행사 ② 가족/친지 ③ 친구/동료 ④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⑤ SNS(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⑥ 관광 안내 서적
⑦ TV / 라디오 ⑧ 신문 ⑨ 과거 방문경험 ⑩ 기타()

Q08. 귀하가 출발지에서 섬으로 출발하는 항구까지 이용한 교통수단을 순서대로 골라주십시오.

1번째 수단 (거주지 출발) () → 2번째 수단 () → 3번째 수단 ()

- ① 자가용(렌트 포함) ② 고속/시외버스 ③ 전세/관광버스 ④ 시내버스
⑤ KTX ⑥ KTX 외 열차 ⑦ 전철/GTX ⑧ 항공기
⑨ 기타(도보/오토바이/자전거/택시)_____

Q09. 귀하께서는 섬으로 출발하는 항구에서 목적지인 섬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 ① 여객선/유람선 ② 여선/낚시여선 ③ 오토/보트 ④ 기타()

Q09-1. 섬으로 출발하는 항구에서 목적지 섬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0분 이내 ② 30분~59분 ③ 1시간~1시간 59분
④ 2시간~2시간 59분 ⑤ 3시간 이상

Q10. 귀하께서 섬 내에서 이용한 주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자가용(렌트 포함) ② 전세/관광버스 ③ 공영/마을버스 ④ 오토바이
⑤ 자전거 ⑥ 도보 ⑦ 택시 ⑧ 기타 ()

Q11. 귀하께서 섬 방문 시 얼마나 체류하십니까?

- ① 1시간 이내 ② 1~3시간 ③ 3시간~6시간 ④ 6시간~12시간 ⑤ 12시간~1박 2일
⑥ 2박 3일 ⑦ 3박 4일 이상

Q12. 귀하께서는 섬 관광을 누구와 함께 다녀오셨습니까?

- ① 혼자 ② 가족/친척 ③ 친구/연인
④ 직장동료 ⑤ 각종단체(동호회 등) ⑥ 기타()

Q12-1.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이었습니까? 본인 포함 총()명

Q12-2. 귀하가 지불한 1인당 총 여행경비(숙박, 식비, 교통비 모두 포함)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원

Q13. 귀하는 섬 관광(섬 방문과 섬 이외 지역 관광 모두 포함)에서 숙박을 하셨습니까?

(모두 선택 가능)

- ① 숙박 안함(당일 여행) ☐ Q14번으로 ② 섬에서 숙박함 ☐ Q13-1번으로
③ 섬 외 지역에서 숙박함 ☐ Q13-1번으로

Q13-1. 몇 박을 숙박하셨습니까? () 박

Q13-2. 이용하신 숙박시설을 모두 골라주십시오.(중복응답)

- ① 호텔 ② 콘도 ③ 유스호스텔 ④ 모텔/여관
⑤ 펜션 ⑥ 민박 ⑦ 야영/캠핑 ⑧ 기타()

Q14. 귀하께서 섬 관광을 하게 된 이유(들)는 무엇입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① --- ② --- ③ --- ④ --- ⑤				
(2) 편안함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① --- ② --- ③ --- ④ --- ⑤				
(3)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① --- ② --- ③ --- ④ --- ⑤				
(4) 휴식과 생활의 재충전을 위해서	① --- ② --- ③ --- ④ --- ⑤				
(5) 생활의 여유로움을 즐기 위해	① --- ② --- ③ --- ④ --- ⑤				
(6) 섬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① --- ② --- ③ --- ④ --- ⑤				
(7) 해양 및 섬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서	① --- ② --- ③ --- ④ --- ⑤				
(8) 모험과 스릴을 추구하기 위해서	① --- ② --- ③ --- ④ --- ⑤				
(9)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서	① --- ② --- ③ --- ④ --- ⑤				
(10) 재미와 오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① --- ② --- ③ --- ④ --- ⑤				
(11) 다양한 축제/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① --- ② --- ③ --- ④ --- ⑤				
(12) 동반자와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① --- ② --- ③ --- ④ --- ⑤				
(13)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만남을 위해	① --- ② --- ③ --- ④ --- ⑤				
(14) 색다른 섬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① --- ② --- ③ --- ④ --- ⑤				
(15) 섬 여행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① --- ② --- ③ --- ④ --- ⑤				
(16) 건물을 넓히기 위해	① --- ② --- ③ --- ④ --- ⑤				
(17)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	① --- ② --- ③ --- ④ --- ⑤				
(18)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① --- ② --- ③ --- ④ --- ⑤				
(19) 해양 및 어촌활동을 체험하기 위해서	① --- ② --- ③ --- ④ --- ⑤				

Q15. 귀하가 섬 관광 선택 시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구분	전혀 고려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고려함
(1) 섬만의 고유한 자연경관	① --- ② --- ③ --- ④ --- ⑤				
(2) 타 관광지와 차별화된 볼거리	① --- ② --- ③ --- ④ --- ⑤				
(3) 해양관련 체험(고기잡이, 생태체험 등) 거리	① --- ② --- ③ --- ④ --- ⑤				
(4) 섬지역의 유물과 유적	① --- ② --- ③ --- ④ --- ⑤				
(5) 섬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	① --- ② --- ③ --- ④ --- ⑤				
(6) 섬 주민들의 친절과 환대	① --- ② --- ③ --- ④ --- ⑤				
(7) 섬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	① --- ② --- ③ --- ④ --- ⑤				
(8) 친환경적인 농수산물과 특산물	① --- ② --- ③ --- ④ --- ⑤				
(9) 섬 문화의 교육적 기능	① --- ② --- ③ --- ④ --- ⑤				
(10) 숙박의 질적 수준과 가격	① --- ② --- ③ --- ④ --- ⑤				

(11)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	① --- ② --- ③ --- ④ --- ⑤
(12) 합리적인 식재료 비용	① --- ② --- ③ --- ④ --- ⑤
(13) 여행 전반에 사용되는 비용	① --- ② --- ③ --- ④ --- ⑤
(14) 편리한 교통수단	① --- ② --- ③ --- ④ --- ⑤
(15) 여행에 필요한 편의시설	① --- ② --- ③ --- ④ --- ⑤
(16) 여행 중의 안전	① --- ② --- ③ --- ④ --- ⑤

Q16. 귀하께서는 섬 관광 시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만족도				
	매우 불만	<<<	보통	>>>	매우 만족
(1) 숙박시설	① --- ② --- ③ --- ④ --- ⑤				
(2) 해양관광지 경관	① --- ② --- ③ --- ④ --- ⑤				
(3) 자택에서 항구까지의 교통	① --- ② --- ③ --- ④ --- ⑤				
(4) 항구에서 섬 관광지까지의 교통	① --- ② --- ③ --- ④ --- ⑤				
(5) 섬 지역 내에서의 교통	① --- ② --- ③ --- ④ --- ⑤				
(6) 식당 및 음식	① --- ② --- ③ --- ④ --- ⑤				
(7) 쇼핑(관광기념품/특산물)	① --- ② --- ③ --- ④ --- ⑤				
(8)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① --- ② --- ③ --- ④ --- ⑤				
(9) 관광지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주차장 등)	① --- ② --- ③ --- ④ --- ⑤				
(10) 관광지 관광종사자의 친절성	① --- ② --- ③ --- ④ --- ⑤				
(11) 관광 체험 프로그램	① --- ② --- ③ --- ④ --- ⑤				
(12) 관광지 물가	① --- ② --- ③ --- ④ --- ⑤				
(13) 관광지 청결도	① --- ② --- ③ --- ④ --- ⑤				
(14) 관광지 치안 및 안전	① --- ② --- ③ --- ④ --- ⑤				
(15) 관광지 혼잡도	① --- ② --- ③ --- ④ --- ⑤				
(16) 연계 관광지 매력도	① --- ② --- ③ --- ④ --- ⑤				

Q17. 섬 관광 중 섬 내에서 활동하신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중복 응답)

- ① 휴식/휴양 ③ 경관/풍경 감상 ⑤ 맛집 탐방
 ⑦ 갯바위 바다낚시 ⑨ 체험 프로그램 참여 ⑪ 역사·문화 탐방
 ⑬ 지역축제 이벤트 참여 ⑮ 해안길 도보 (해안누리길 등) ⑯ 스카스쿠버, 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
 ⑰ 크루즈/유람선 탑승 ⑲ 모터보트/오토/수상오토바이 ⑳ 해산물 구매/시식
 ㉑ 해양 가락/가수 ㉓ 갯벌생물/철새 등 해양생물관찰 ㉕ 서핑/윈드서핑
 ㉗ 야영/캠핑 ㉙ 견인형 수상레저기구(바나나보트 등)
 ㉛ 수산물 채집 ㉝ 등산 ㉟ 기타 _____

PART C. 국내 섬 관광 수요

Q18. 귀하께서 국내 섬 관광을 하지 못하시는데 다음 요소가 얼마나 영향이 있습니까?

No.	구분	전혀 영향 없음	대체로 영향 없음	보통	대체로 영향 있음	매우 영향 있음
(1) 정신적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섬 관광을 하는 것이 불편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섬 관광을 하는 것이 위험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섬 관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의 시선이		①	②	③	④	⑤

	별로 좋지 않아서 참여하기 힘들다.					
(6)	섬 관광을 즐길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참여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7)	친한 사람들과 시간이 맞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친한 사람들과 원하는 관광활동이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9)	섬 관광은 비용이 많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섬 관광 시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섬 관광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섬 지역이 너무 멀다	①	②	③	④	⑤
(13)	섬 관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섬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Q19. 귀하께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국내 섬 관광을 즐길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아니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1) 향후 1년 내	①	②	③	④	⑤
(2) 향후 3년 내	①	②	③	④	⑤
(3) 향후 5년 내	①	②	③	④	⑤

Q20. (Q19의 ⑤~⑩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향후 1년 이내 섬 관광을 하신다면,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싶으십니까? 구체적인 방문 지역과 희망 섬을 적어주시시오

(1) 광역시도

- ① 경기도 ② 인천광역시 ③ 전라남도 ④ 전라북도
 ⑤ 경상남도 ⑥ 경상북도 ⑦ 부산광역시 ⑧ 충청남도
 ⑨ 강원도 ⑩ 울산광역시 ⑪ 제주도 ⑫ 집모름

(2) 구체적인 섬(혹은 지역) 이름 ()

Q21. 귀하께서는 국내 섬 관광이 발전하기 위해 다음의 요소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o.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숙박시설	①	②	③	④	⑤
(2)	해안 탐방로	①	②	③	④	⑤
(3)	향토 식당 및 음식	①	②	③	④	⑤
(4)	주민해설사 양성	①	②	③	④	⑤
(5)	토산물/기념품 개발	①	②	③	④	⑤
(6)	주민 친절성	①	②	③	④	⑤
(7)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①	②	③	④	⑤
(8)	관광지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 주차장 등)	①	②	③	④	⑤
(9)	섬 관광 체험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11)	여객 운송 인프라(내륙에서 섬 관광지까지의 교통)	①	②	③	④	⑤
(12)	섬 지역 내 교통 인프라	①	②	③	④	⑤
(13)	안전	①	②	③	④	⑤

Q22. 귀하께서는 국내 섬 관광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o.	구분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섬 관광 발전 예산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민간투자 유치	①	②	③	④	⑤
(3)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기존 규제 해제	①	②	③	④	⑤
(4)	생태문화자원 보전	①	②	③	④	⑤
(5)	지역주민 참여	①	②	③	④	⑤
(6)	섬 지역 관광편의시설 구축(숙박, 화장실 등)	①	②	③	④	⑤
(7)	섬 관광 운송수단(여객선 등) 개선 사업	①	②	③	④	⑤
(8)	섬 관광 콘텐츠 개발	①	②	③	④	⑤
(9)	섬관광 정보 제공 사업	①	②	③	④	⑤
(10)	섬관광 교통비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11)	여객선 터미널 시설 개선	①	②	③	④	⑤
(12)	지역주민 의식 교육	①	②	③	④	⑤
(13)	교통비 지원/KTX와 여객선 운임 연계 할인 등	①	②	③	④	⑤

PART D.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DQ1. 귀댁 가족 분들 모두의 보너스와 이자를 포함한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299만원 ③ 300만원~399만원
④ 400만원~499만원 ⑤ 500만원~699만원 ⑥ 700만원 이상 ⑦ 무응답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경영/관리/전문/자유직 ② 사무관련직/기술직 ③ 자영업
④ 서비스/판매/영업직 ⑤ 농/임/수산업 ⑥ 생산/단순노무직
⑦ 주부 ⑧ 학생 ⑨ 무직
⑩ 기타 (직접 기재 : _____) ⑪ 무응답

DQ3.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기혼 ② 미혼

DQ4. 귀하의 가구 구성원은 총 몇 명입니까? ()명

♪ 이상 조사를 마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전문가 설문 조사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ID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검토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201811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여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 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거나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 11

설문문의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일선 전문연구원 (051-797-4727)
조사문의 사항	한국리서치 강덕진 부장 (02-3014-0074)

소속 기관	
직급	
연락처	
E-mail	@

PART A. 섬 정책 부처에 대한 인식

Q1. 귀하께서는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섬 정책의 주관 부처는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해양수산부 ② 행정안전부 ③ 문화체육관광부 ④ 환경부
⑤ 농림축산식품부 ⑥ 국토교통부 ⑦ 기타 ()

선택 이유 :

- 1 -

Q2. 현재 섬 관련 정책은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어떤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다부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중복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관련 사업	담당 부처 선택
섬 정주여건 정비·개선	섬 마을 명소화, 섬 지역 어항 관리 등	
주민여가문화 확대	섬 주민 문화 혜택 제고, 여가생활 개선 등	
섬 관광 활성화	섬 관광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관광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	
주민공동체 역량 강화	주민교육 및 주민공동체 형성 지원, 주민소득 증대 사업 등	
영토 관리	해양영토 및 무인도서 관리, 선박운항 지원 등	
환경 관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섬 지역 일야관리, 생태자원 보호 등	
자원 보전·관리	천연보호구역 관리, 문화재 관리 등	

보기

- ① 해양수산부 ② 행정안전부 ③ 문화체육관광부 ④ 환경부
 ⑤ 농림축산식품부 ⑥ 국토교통부 ⑦ 산림청
 ⑧ 국립공원관리공단 ⑨ 해양환경공단 ⑩ 기타()

Q3.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필요 없다	<<<<<<	그저 그렇다	>>>>>>	꼭 필요하다
⑥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Q3-1. (Q3의 ⑥~⑩ 응답자만)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해양수산부의 역할로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역할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섬 정주여건 정비·개선 ② 주민 여가문화 확대
 ③ 섬 관광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④ 섬 관광 편의시설 정비
 ⑤ 섬 주민교육 및 주민 공동체 형성 지원 ⑥ 섬 주민소득 증대 사업 개발
 ⑦ 해양영토 관리 ⑧ 무인도서 관리
 ⑨ 선박운항 지원 ⑩ 섬 생태자원 및 환경 관리
 ⑪ 해양영토 관리 ⑫ 무인도서 관리
 ⑬ 선박운항 지원 ⑭ 섬 문화자원 관리
 ⑮ 기타()

PART B. 섬 관광 활성화 방안

※ 본 설문지는 우리나라 도서지역 해양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을 위하여 항목 간 상대적인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교되는 두 가지 항목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쪽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기준

척도	정의	의미
1	동등하게 중요	두 개가 항목이 똑같이 중요함
3	약간 더 중요	한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약간 더 중요함
5	더욱 더 중요	한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더욱 더 중요함
7	대단히 더 중요	한 항목이 다른 항목보다 대단히 더 중요함
9	절대적으로 중요	한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절대적으로 중요함

*2, 4, 6, 8은 근접해 있는 가장 가까운 수들의 중간 정도 중요성을 나타냄

▶ 도서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항목과 내용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접근성 개선	도서지역 관광홍보 개선	○ 도서관광 캠페인/홍보사업
		○ 도서관광 홍보물 발간
		○ 도서관광 방문주간 시행
	도서관광 교통접근성 개선	○ 여객선 요금 할인 및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육상/해상 교통 연계 패스 마련
		○ 여객선 터미널/여객선 현대화 사업 확대
		○ 여객선 보조항로 확대
	관광정보 접근체계 개선	○ 도서관광 정보 포털 사이트 확대, 개편
		○ 도서지역 관광정보 콘텐츠 발굴, 홍보
이용성 향상	도서관광 관리여건 개선	○ 도서관광 홍보 수단 다양화
		○ 도서지역 안전 홍보 캠페인
		○ 도서지역 숙박/편의시설 인증 제도 시행
		○ 도서관광 상품 인증 제도 시행
	도서관광 편의시설 개선	○ 도서관광 생태자원의 보전
		○ 도서관광 이용방문수요 관리
	도서관광 서비스 개선	○ 도서관광 안내체계 개선
		○ 도서지역 관광 편의시설 개선
		○ 도서지역 관광 스타트업 창업 지원
상품성 강화	도서관광 상품 발굴	○ 도서지역 관광창업자 이주 지원
		○ 도서지역 주민 관광서비스 교육
	도서관광 콘텐츠 다양화	○ 다양한 소규모 도서관광 상품(해양생태관광, 무인도서관광, 장/단기 등) 개발 지원
		○ 소규모 도서관광 상품(해양생태관광, 무인도서관광 등) 판매/홍보 지원
		○ 해양레저 프로그램/기반시설 정비 지원
		○ 해양치유/휴양 관광상품 개발

1. 대분류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우리나라 도서지역 해양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항목 중 대분류 항목은 접근성 개선, 이용성 향상, 상품성 강화로 구분됩니다. 3개의 대분류 항목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중요 >>>									<<<중요									항목
접근성 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이용성 향상	
접근성 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상품성 강화	
이용성 향상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상품성 강화	

2. 중분류 및 소분류 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

1) 접근성 개선

우리나라 도서지역 해양관광 육성을 위한 중분류 평가 항목 중 '접근성 개선' 내의 세부항목인 도서지역 관광홍보 개선, 도서관광 교통접근성 개선, 관광정보 접근체계 개선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중요 >>>									<<<중요									항목
도서지역 관광홍보 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관광 교통접근성 개선	
도서지역 관광홍보 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관광정보 접근체계 개선	
도서관광 교통접근성 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관광정보 접근체계 개선	

(1) 도서지역 관광홍보 개선

접근성 개선 내 '도서지역 관광홍보 개선'의 세부항목인 도서관광 캠페인/홍보사업, 도서관광 홍보물 발간, 도서관광 방문주간 시행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중요 >>>									<<<중요									항목
도서관광 캠페인/홍보사업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관광 홍보물 발간	
도서관광 캠페인/홍보사업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관광 방문주간 시행	
도서관광 홍보물 발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관광 방문주간 시행	

(2) 도서관광 교통접근성 개선

접근성 개선 내 '도서관광 교통접근성 개선'의 세부항목인 여객선 요금 할인 및 마일리지 제도 도입, 육상/해상 교통 연계 패스 마련, 여객선 터미널/여객선 현대화 사업 확대, 여객선 보조항로 확대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중요 >>>				통통				<<<중요				항목
여객선 요금 할인 및 마일리지 제도 도입	9	8	7	6	5	4	3	2	1	2	3	4	여객선/해상 교통 연계 패스 마련
여객선 요금 할인 및 마일리지 제도 도입	9	8	7	6	5	4	3	2	1	2	3	4	여객선 터미널/여객선 현대화 사업 확대
여객선 요금 할인 및 마일리지 제도 도입	9	8	7	6	5	4	3	2	1	2	3	4	여객선 보조항로 확대
여객선 터미널/여객선 현대화 사업 확대	9	8	7	6	5	4	3	2	1	2	3	4	여객선 터미널/여객선 현대화 사업 확대
													여객선 보조항로 확대

(3) 관광정보 접근체계 개선

접근성 개선 내 '관광정보 접근체계 개선'의 세부항목인 도서관광 정보 포털 사이트 확대/개선, 도서지역 관광정보 콘텐츠 발굴/홍보, 도서관광 홍보 수단 다양화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중요 >>>				통통				<<<중요				항목
도서관광 정보 포털 사이트 확대/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도서지역 관광정보 콘텐츠 발굴/홍보
도서관광 정보 포털 사이트 확대/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도서관광 홍보 수단 다양화
도서지역 관광정보 콘텐츠 발굴/홍보	9	8	7	6	5	4	3	2	1	2	3	4	도서관광 홍보 수단 다양화

2) 이용성 향상

우리나라 도서지역 해양관광 육성을 위한 중분류 평가 항목 중 '이용성 향상' 내의 세부항목인 도서관광 관리여건 개선, 도서관광 편의시설 개선, 도서관광 서비스 개선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중요 >>>				통통				<<<중요				항목
도서관광 관리여건 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도서관광 편의시설 개선
도서관광 관리여건 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도서관광 서비스 개선
도서관광 편의시설 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도서관광 서비스 개선

(1) 도서관광 관리여건 개선

이용성 향상 내 '도서관광 관리여건 개선'의 세부항목인 도서지역 안전 홍보 캠페인, 도서지역 숙박/편의시설 인종 제도 시행, 도서관광 상품 인종 제도 시행, 도서관광 생태자원의 보전, 도서관광 이용방문수요 관리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중요 >>>										통등	<<<중요										항목
도서지역 안전 홍보 캠페인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지역 숙박편의시설
도서지역 안전 홍보 캠페인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인종 제도 시행
도서지역 안전 홍보 캠페인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관광 상품 인종 제도 시행
도서지역 안전 홍보 캠페인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관광 생태자원의 보전
도서지역 안전 홍보 캠페인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관광 이용방문수 관리
도서지역 숙박편의시설 인종 제도 시행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관광 상품 인종 제도 시행
도서지역 숙박편의시설 인종 제도 시행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관광 생태자원의 보전
도서지역 숙박편의시설 인종 제도 시행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관광 이용방문수 관리
도서관광 상품 인종 제도 시행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관광 생태자원의 보전
도서관광 상품 인종 제도 시행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관광 이용방문수 관리
도서관광 생태자원의 보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관광 이용방문수 관리

(2) 도서관광 편의시설 개선

이용성 향상 내 '도서관광 편의시설 개선'의 세부항목인 도서관광 안내체계 개선, 도서지역 관광 편의시설 개선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중요 >>>										통등	<<<중요										항목
도서관광 안내체계 개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지역 관광 편의시설 개선

(3) 도서관광 서비스 개선

이용성 향상 내 '도서관광 서비스 개선'의 세부항목인 도서지역 관광 스태프업 참여 지원, 도서지역 관광창업자 이주 지원, 도서지역 주민 관광서비스 교육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중요 >>>										통등	<<<중요										항목
도서지역 관광 스태프업 참여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지역 관광창업자 이주 지원
도서지역 관광 스태프업 참여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지역 주민 관광서비스 교육
도서지역 관광창업자 이주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지역 주민 관광서비스 교육

3) 상품성 강화

우리나라 도서지역 해양관광 육성을 위한 중분류 평가 항목 중 '상품성 강화' 내의 세부항목인 도서관광 상품 발굴, 도서관광 콘텐츠 다양화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중요 >>>									동등	<<<중요									항목
도서관광 상품 발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도서관광 콘텐츠 다양화

(1) 도서관광 상품 발굴

상품성 강화 내 '도서관광 상품 발굴'의 세부항목인 다양한 소규모 도서관광 상품(해양생태관광, 무인도서관광, 잠/딛기 등) 개발 지원, 소규모 도서관광 상품(해양생태관광, 무인도서관광 등) 판매/홍보 지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중요 >>>									동등	<<<중요									항목
다양한 소규모 도서관광 상품 개발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소규모 도서관광 상품 판매/홍보 지원

(2) 도서관광 콘텐츠 다양화

상품성 강화 내 '도서관광 콘텐츠 다양화'의 세부항목인 해양레저 프로그램/기반시설 정비 지원, 해양치유/휴양 관광상품 개발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중요 >>>									동등	<<<중요									항목
해양레저 프로그램/기반시설 정비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해양치유/휴양 관광상품 개발

3. 일본 국토교통성 이도진흥 관련 사업

1) 지역활성화 추진을 통한 정착 및 거주 촉진 지원 사업

국토교통성은 지역 활성화 추진을 통한 정착 및 거주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위해 이도활성화교부금 18억 엔을 투입하여 정주촉진사업과 정주유치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정주촉진을 위한 산업활성화 사업으로 전략상품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연수사업, 브랜드화, 전략 상품의 시범 판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해당 전략상품의 반출 및 원재료 등의 반입과 관련된 해상수송비를 지원했다. 그리고 정주자 유치를 위한 정보제공(U·J·I Turn 희망자를 위한 상담 창구 설치, 빈집 정보 제공 등) 사업과 시설 정비(인재 유입을 위한 빈집 보수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둘째, 교류촉진을 위해 지역정보의 발신, 교류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만들기 및 교류 실시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셋째, 안전과 안심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재기능 강화 사업으로 피난시설 정비 및 방재활동 거점 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방재 계획을 책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방재대책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등에 취약한 이도지역의 방재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진대책을 위해 실시되는 공공사업 중에 이도의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지방재정조치를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넷째, 이도 지역에 대한 세제혜택제도(할증상각제도)를 개선하여 2017년 3월 31일 까지를 기한으로 했던 이도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의 적용 기한을 2년간 연장하여 이도지역의 내재적 발전을 비롯

한 효과적인 산업진흥을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했다.⁸⁴⁾

2) 교통·통신시설 정비 및 물류비용 절감 사업

본토와 이도 간 및 이도와 이도 간, 이도 내의 교통통신을 확보하기 위한 항로, 항공로, 항만, 공항, 도로 등의 교통시설 및 통신시설 정비와 사람의 왕래 및 물자 유통(폐기물 운반을 포함)에 필요한 비용의 저렴화 사업을 추진했다.

교통체계 정비, 사람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저렴화를 위해 이도 항로 운영비 보조를 99개 항로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도 항공로 운영비 보조를 11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이도주민 운임 할인 보조를 21개 항로와 2개 항공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이도의 항로 구조 개혁을 위한 보조를 14개 항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충실화 사업을 통해 이도 주민의 교류, 고용을 위한 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광통신을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 기반 정비사업의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4개 시정촌의 사업비를 보조했다.

3) 산업 진흥 및 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어항, 산림도로, 농지, 전력 시설 등의 정비 사업

이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업 진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경영을 담당할 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조치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산간지역 직접 지불 교부금, 다면적 기능 지불 교부금,

84) 이도지역의 세제혜택제도(할증상각제도): 제조업, 농림수산물 판매업, 여관업, 정보서비스업 등의 공업용기계 취득에 관한 할증상각(소득세, 법인세) 혜택(2019년 3월 31일까지), 기계·장치의 보통상각한도액을 32%까지 증액조치(5년간), 건물·부속설비·건축물의 보통상각한도액을 48%까지 증액조치(5년간)

농산어촌 진흥 교부금, 경작포기지 재생 이용 긴급대책 교부금, 조수 피해 방지 종합대책 교부금, 삼림정비지역 활동 지원 교부금, 이도어업재생 지원 교부금 등을 활용한 지원을 추진했다. 2016년도에는 총 199개 시정촌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지원을 실시했다.

이도지역의 자립적 발전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산업 진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산어촌의 6차산업화를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농산어촌진흥 교부금 및 이도어업재생지원 교부금을 활용하여 이도가 지닌 풍부한 자연을 활용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2016년도에는 총 55개 시정촌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했다.

4) 고용기회 확대 및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 촉진 사업

이도 지역의 제1차 산업 부진으로 인한 취업기회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지역 고용개발 장려금과 지역의 협의회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자발적인 고용창출 조치를 지원하는 실천형 지역고용창조사업을 활용하여 이도지역의 고용창출을 지원하여 고용기회 확보 정책을 추진했다. 2016년도에는 총 5개시를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했다.

5) 생활 환경 정비 사업

이도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교부금을 활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사용, 재생이용 조치를 위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또 간이수도시설 정비보조 및 생활기반시설 내진화 교부금을 활용하여 수도시설의 노후화대책, 내진화 및 간이수도통합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

원했다. 2016년도에는 총 70건의 사업비용을 지원했다.

6) 의료 환경 정비 사업

이도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한 생활과 체재를 위한 의료 환경 정비를 위해 벽지 보건의료 대책비를 활용하여 환자수송선을 통한 이도 지역 의료체제 정비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의 중심적인 병원을 통한 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 병원헬기를 활용한 의료지원, 원격의료체제 도입을 추진했다. 2016년도에는 벽지진료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75개 시설에 대해 실시하고, 의료시설 설비 정비비 보조를 37개 시설에 대해 실시했다. 그리고 의료시설 정비비 보조를 2개 시설에 대해 실시했다.

7) 출산 지원 사업

임산부의 건강진단·출산관련 지원정책 사업으로 병원이나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도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건강진단이나 출산을 위해 지출하는 교통비 및 숙박비에 대해 2013년부터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원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8) 개호 서비스 확보

이도 지역 거주자의 개호 서비스 확보를 위해 시정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개호보험제도의 지정서비스 이외에도 재택서비스, 개호예방서비스를 보험급부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2012년부터는 소규모 다기능형 재택개호를 새로이 추가하여 수요에 맞춘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경우는 이도지역의 실정에 맞춘 서비스 확보를 위해 가사도우미 양성과 같은 인재확보 대책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방안, 사업 검토 및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도지역의 개호서비스 확보를 위해

방문개호의 경우 서비스 비용의 15%가 특별 가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타 지역과의 균형을 위해 사업자가 저소득자의 이용자 부담액 10%를 감액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조성금을 교부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2016년도에 17건의 이도 서비스 확보대책 사업을 실시했다.

9) 고령자 및 어린이 복지 증진

고령화가 심화⁸⁵⁾되고 있는 이도지역의 고령자 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 및 개호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이도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호지원 기능, 거주기능 및 교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생활지원 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특별 지역형 보육급부비(어린이를 위한 교육·보육급부비 부담금) 제도를 활용하여 벽지보육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2016년도에는 14개 시정촌에 대한 보조를 실시했다.

10) 교육 및 문화 진흥 사업

이도 지역의 교육환경을 진흥하기 위해 이도 고교생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도의 고등학생 통학비용을 지원하고, 시정촌이 실시하는 공립학교 시설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이도지역 고등학교의 교직원 배치에 특별한 배려를 하여 교직원 정원을 늘리는 조치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생애학습을 추진하여 이도 지역의 장래를 짚어질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6년도에는 44개 시정촌을 대상으로 지원 및 보조를 실시했다.

85) 2015년 기준 이도지역 고령자비율은 39% 수준

이도 문화 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해 국보·중요문화재 보존정비비보조금을 활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 단체에 대한 보조를 실시했다. 또 한편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통행사, 전통예능에 대한 보존 및 계승,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그리고 지역 주민 및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오케스트라 및 연극 등의 무대예술과 전통문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학교를 활용하여 공연사업을 실시했다.

이도 주변해역의 해양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부존자원을 조사하고, 순환형 사회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해양환경보전 조사, 연구의 장으로 활용했다.

11) 관광 개발 사업

풍부한 지역자원을 지니고 있으나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이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교류를 촉진하는 체재교류형관광을 통해 관계자가 연계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자연, 역사, 문화 등의 폭넓은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지 구축을 추진했다. 특히 농산어촌진흥교부금을 활용하여 체재교류형 여가활동을 하는 Green Tourism, Blue Tourism과 같은 이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양한 여행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했다. 또한 이도 및 이도 주변 지역의 자연, 경관,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해 Eco Tourism과 같은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활용하는 한편, 지역의 자주적인 노력을 지원하면서 지역 관광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광지 구축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이 목표로 삼아야 할 방향성을 기획, 입안하고, 관계자들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합의를 통한 인식형성

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등, 지역에서의 지속적이며, 자율적인 활동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2016년도에는 4개 시정촌을 대상으로 농산어촌진흥교부금을 지원했으며, 3건의 Eco Tourism을 통한 지역의 매력 향상 사업을 지원했다.

12) 국내 및 국외 지역과의 교류 촉진 사업

일부 이도 지역에서는 입지조건 및 자연, 문화와 같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국내외지역과의 교류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이도지역의 활성화 또는 이도 지역 이주와 이어진 사례가 있다. 따라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는 한편, 농산어촌진흥교부금 중의 도시 농촌 공생·대류 및 지역활성화 대책을 활용한 체재교류형관광과 같은 조치를 통한 교류인구의 증대를 도모했다.

일본 전국의 이도 주민들이 도심에 모여서 ‘섬과 도시부의 교류’, ‘섬과 섬의 교류’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교류인구를 확대시키거나, U·J·I Turn과 같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란다’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도의 자원을 활용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육지의 기업이나 인재로부터 협력을 얻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시맛청구’를 통한 이도 활성화 조치도 추진했다. 2016년도에는 4개 시정촌을 대상으로 농산어촌진흥교부금 사업을 지원했다.

13)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 사업

이도는 오랜 세월동안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해 왔으므로 외래종의 침입으로 인한 영향에 취약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도에 자생하고 있는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종으로 선정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립·국정공원 총 점점 사업이나 국립·국정공원의 해역적정관리강화사업을 활용하여 보호구를 설정하는 한편, 세계자연유산지역에 대해서

는 과학적 지식을 동원한 순응적 보전관리를 실시하고, 또 특정 야생 생물 보호대책 사업 및 희소야생동물 야생 순응 특별 사업을 활용한 희소동식물 보호증식사업이나 특정외래생물방제추진사업을 활용하여 이도 및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을 추진했다.

이도 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력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며, 운반비를 비롯한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 민간 활용 특정 자연환경 보전활동 및 해안 표착물 지역 대책 추진사업을 활용해 해양쓰레기 처리를 추진했다. 2016년도에는 총 121건의 관련 사업을 실시했다.

14) 재생에너지 이용 및 기타 에너지 대책 사업

이도는 일사조건 및 풍력이 좋은 곳이 많으므로 재생에너지 도입에 적합하다. 따라서 이도 저탄소지역 구축 추진 사업을 활용한 자립·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및 이도 주변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같은 지역 주도형 에너지 안정 공급을 통한 재해에 강하고 환경 부담이 적은 지역 구축을 추진했다. 또한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생산 지역소비형 재생 에너지 이용 추진 사업비 보조금을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화 가능성 조사에 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이도의 석유제품 유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이도 휘발유 유통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수송 형태와 본토와의 거리를 고려한 보조 단가를 책정하고 실질적인 휘발유 소매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 조치를 실시했다. 2016년도에는 저탄소지역 구축 추진 사업을 5건,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보조를 2건, 휘발유 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을 16개 섬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15) 재해 방지를 위한 국토보전시설 정비 사업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이도 지역의 고립 방지와 고립 시 대책 마련, 피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 건설 등과 같은 국토보전시설 정비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이도 지역의 자립적인 피난 활동을 위한 피난 시설, 비축 창고, 통신 설비의 정비 등을 실시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실시, 재해민의 구조를 위한 시스템 정비와 관련 기관의 연계 강화와 같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자연대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영토 보전이라는 이도의 역할을 고려하여 해안 유지 및 적절한 이용을 위한 해안 보전 대책도 추진했다.

4. 일본 이도진흥 관련 기관 현황

1)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이도진흥과

구분	내용
소재지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2-1-3
주요 업무	- 일본 국토의 종합적, 체계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해서 지방의 이도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기획 및 입안, 추진을 담당 「이도진흥법」의 이도진흥대책 실시지역인 255개 섬(2018년 4월 1일 현재)을 대상으로 하는 기반시설정비 및 유지, 보수, 이도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 - 이도의 정주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발상을 활용한 조치에 대한 지원 정책도 수립, 추진
홈페이지	http://www.mlit.go.jp/kokudoseisaku/chirit/

2) 공익재단법인 일본이도센터

구분	내용
설립일	1966년 2월 22일
소재지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정 1-11-32 전국정촌회관 서과 5층
회원수	137개 시정촌
설립 목적	- 이도의 자주적창조적인 진흥활동 추진, 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 - 이도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주요 업무	- 이도와 본토, 이도 상호간의 교류촉진과 상호이해를 도모하며 이도 주민이나 행정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한 각종사업을 시행 - 이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실시와 정책 제언, 강연회·연구회·연수회 등의 개최, 홍보잡지인 '섬'(계간지) 및 각종 관련 도서 간행 및 배포('이도통계연보', 섬 가이드 '시마다스' 등), 정보발신을 위한 이벤트 개최('아이란다'), 이도 관련 정보 수집, 자료 정비 및 공개, 이도활성화를 위한 활동 보조 등의 업무 담당
홈페이지	http://www.nijinet.or.jp/

3) 공익재단법인 오가사와라 협회

구분	내용
설립일	1965년 5월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가이간 1-12-2 다케시바 선객 터미널 2층
설립 목적	오가사와라 촌민의 생활 향상 및 자연환경 보전, 구 도민의 귀도 원조 등
주요 업무	오가사와라 방문 및 교류 관광 사업 추진 등
홈페이지	https://www.ogasawarak.org/

4) 공익재단법인 일본관광진흥협회

구분	내용
설립일	1931년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3-1-1 도라노몬 3정목 빌딩 6층
회원수	관광관련 단체 약 700개, 일본 전국에 9개 지부가 있음
설립 목적	• 관광 진흥을 종합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 • 관광 입국 실현,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 국민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 하면서 국제친선을 도모
주요 업무	• 관광정책제언, 홍보, 관광인재육성, 관광 지역 구축과 광역 관광 추진사업 • 쌍방향 교류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지역 관광수요 창조사업 • 관광정보수집 및 제공 시스템 정비사업, 조사연구사업
홈페이지	http://www.nihon-kankou.or.jp/home/jigyou/

5) 오키나와 이도진흥협의회

구분	내용
소재지	오키나와현 나하시 아사히정 116-37 자치회관 5층
회원수	18개 시정촌
설립 목적	• 오키나와에 있는 이도의 시정촌 및 이도를 지닌 시정촌 상호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 이도 진흥 촉진 및 섬 사람들의 복지 향상 도모
주요 업무	• 「오키나와 진흥 특별 대책법」(2002년 법률 제14호)과 이도 관련 법규의 실시 촉진 • 오키나와의 각 시정촌의 자주적인 진흥 원조, 간행물 발간, 이도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정비, 이도에 대한 선전 및 소개, 이도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보 교환과 연락 • 전국 이도진흥협의회 오키나와 지부 업무, 기타 필요한 사업
홈페이지	http://www.okichouson.gr.jp/27ritousinkou.html

6) 전국이도진흥협의회

구분	내용
설립일	1953년 6월
소재지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정 1-11-32 전국정촌회관 서관 5층
회원수	142개 시정촌
설립 목적	• 전국 이도에 있는 시정촌 및 이도를 지닌 시정촌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 및 제휴와 절충 협력을 통해 이도 개발을 촉진 • 섬사람들의 생활과 복지 향상 도모
주요 업무	• 「이도진흥법」과 이도 관련 법령의 실시 촉진 • 각 시정촌의 자주적인 진흥 원조,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 이도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정비, 이도에 대한 선전 및 소개 • 이도 진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정보 교환, 기타 필요한 사업
홈페이지	http://www.nijinet.or.jp/zenritou/tabid/77/Default.aspx

5. 일본 도서관광 관련 기관 리스트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정부 관련 기관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이도진흥과	http://www.mlit.go.jp/kokudoseisaku/chirit/index.html
	국토교통성 국토정책국 특별지역 진흥관	http://www.mlit.go.jp/crd/chitok/index.html
	내각부 오키나와진흥국	http://www8.cao.go.jp/okinawa/
	내각부 지방창생추진 사무국	http://www.kantei.go.jp/jp/singi/sousei/index.html
	내각부 종합해양정책 사무국 국경 이도 담당	http://www.kantei.go.jp/jp/singi/kaiyou/kokkyouritou/index.html
	‘일본의 국경으로 가자’ 프로젝트	https://kokkyo.info/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 추진회의	http://www.ohrai.jp/
	헬로워크 시나가와 지방취직 지원 코너	http://tokyo-hellowork.jsite.mhlw.go.jp/kyushokusha/_109355.html
해사·수산·환경 관련 단체	일간 ‘해사통신사’	http://www.kaijitsushin.jp/
	(사) JEAN/클린 업 전국 사무국	http://www.jean.jp/about-jean/
출판사, 학회 등	해풍사 ‘섬으로’	http://www.kaifusha.com/
	(사)농산어촌문화협회	http://www.ruralnet.or.jp/
	일본 도서학회	http://www.islandstudies.jp/
지역 진흥 관련 단체	전국 과소지역 자립촉진연맹	http://www.kaso-net.or.jp/index.htm
	전국 산촌진흥연맹	http://www.sanson.or.jp/index.html
지방 관련 기관		
북해도	하보로정(羽幌町) 관광협회	http://www.haboro.tv/
	오쿠시리도(奥尻島) 관광 협회	http://unimaru.com/
미야기	게센누마(気仙沼) 관광 컨벤션 협회	http://www.k-macs.ne.jp/~k-kanko/
	아지시마(網地島) 라인	http://ajishimaline.com/
	시오가마시(塩竈市)	http://www.city.shiogama.miyagi.jp/urato/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야마가타	도비시마 종합정보	http://tobishima.info/
도쿄	도쿄제도관광연맹	http://www.tokyo-islands.com/
	(재)도쿄도 도서진흥공사 '도쿄 아이란드'	http://www.tokyoislands-net.jp/
	오시마(大島)관광협회	http://www.izu-oshima.or.jp/
	고즈시마(神津島) 어업협동조합 '시마무스비(島結び)'	http://jf-kouzushima.jp/
	미야케지마(三宅島) 어업협동조합	http://www.jf-miyakejima.com/
	도쿄도 하치조(八丈) 지청	http://www.soumu.metro.tokyo.jp/09h atijou/index.html
	하치조시마(八丈島)관광협회	http://www.hachijo.gr.jp/
	오가사와라촌(小笠原村) 관광 협회	http://www.ogasawaramura.com/
	오가사와라촌 관광국	http://www.visitogasawara.com/
	오가사와라 고래 탐사 협회	http://www.owa1989.com/
	오가사와라 제도 종합정보 사이트	http://www.ogasawara-channel.com/
니가타	아와지마(粟島) 관광 협회	http://awa-isle.jp/
	사도(佐渡) 관광 협회	http://www.visitsado.com/
	사도 농협	http://www.ja-sado-niigata.or.jp/
	사도 기선	http://www.sadokisen.co.jp/index.html
아이치	사쿠시마 홈페이지	http://www.sakushima.com
	히마카시마(日間賀島) 관광 협회	http://www.himaka.net/
	시노지마(篠島) 관광 협회	http://www.shinojima-aichi.com/
미에	도바 시(鳥羽市) 관광 협회	http://www.toba.gr.jp/
	스가시마(菅島) '베니쓰게(紅つげ) 모임'	http://benitsuge.jp/
시마네	오키(隠岐) 관광 협회	http://www.e-oki.net/
	니시노시마정(西ノ島町) 관광 협회	http://nkk-oki.com/
히로시마	사기시마(佐木島) 안내 홈페이지	http://sagishima.info/
	사기시마 협의회	http://sagishima.info/
야마구치	스오(周防) 오시마(大島) 안내	http://www.suouoshima.com/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야마구치	스오 오시마 문화교류센터	http://www.towatown.jp/koryu-center/koryu.html
	스오 오시마 향토대학	http://www.h3.dion.ne.jp/~kamuro/miyamoto.htm
	이아와이시마(祝島) 안내 홈페이지	http://www.iwaishima.jp/
	미시마(見島) 관광 협회	http://hagi.or.jp/mishima/
가가와	시와쿠 히로시마(塩飽広島) 홈페이지	http://www.shiwaku-hiroshima.com/index.html
에히메	세토나이(瀬戸内) 시마나미 해도 진흥협의회	http://www.go-shimanami.jp/index.html
후쿠오카	오시마(大島) 해양체험시설 '우민 구 오시마'	http://umi-ing.com/
	후쿠오카현 이주/정주 포털	http://ijuu-teijuu.pref.fukuoka.lg.jp/municipalities/island/index.html
사가	레인보우 7개의 섬 연합회의	http://www.saga-shima-show.jp/
나가사키	나가사키현(長崎県) 이도 의료 의사 모임	http://www.mokuseikai.org/
	쓰시마(対馬) 관광물산협회	http://www.tsushima-net.org/
	나가사키 Medical-Net(나가사키현 병원 기업단)	http://www.nagasaki-medical.net/doc torbank/
오이타	오이타현(大分県) 이도진흥협의회	http://www.oitasima.net/
	호토지마(保戸島) 정보 홈페이지	https://www.hotojima.com/
가고시마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이도진흥협의회	http://www.shima-supporter.com/
	다네가시마(種子島) 관광 협회	http://tanekan.jp/
	구치노에라부지마(口永良部島) 포털	http://kuchinoerabu-jima.org/
	아마미 오시마(奄美大島) 종합정보 안내	http://www.amami.com/
	아마미 군도 이주 지원 포털	http://www.neriyakanaya.jp/
	아마미 군도 종합정보 안내	http://shimazine.amamin.jp/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오키나와	오키나와현(沖縄県) 문화관광 스포츠부	http://dor39.jp/
	구타카지마(久高島)진흥회	http://www.kudakajima.jp/
	구메지마(久米島)섬 생활 가이드	http://www.shimagurashi.net/

자료:일본이도센터, <http://www.nijinet.or.jp> 참고하여 작성(검색일: 2018. 7. 5.)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업 전망모형 「KMI-FOSiM」 구축연구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국내 가두리 양식장 여장환경개선 방안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 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 해양사고조사체계 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구축방안 연구	고병욱
12	해운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 함수 추정 및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박한선
18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기업진출 사례 분석 및 추진전략	이기열

2017년

01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김대영
02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윤성순
03	해양준조세 산정체계 개선방안	장정인
04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최지연
05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6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박상우
07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박수진
08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임경희
09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마창모
10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행태 분석과 대응방안	김태일
11	IMO 지속발전 전략계획(SP) 대응방안 연구	박한선
12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고병욱
13	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	이기열
14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환적 패턴 분석과 항만의 대응방안	김은수
15	현장수요기반 IoT/빅데이터 항만하역 안전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전형모
16	지진에 대비한 항만기능 유지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김우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03	낙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4	해양생태도의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박수진
05	국내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안용성
06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항만배후단지내 FTZ활성화 방안연구	조지성
07	최저임금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8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가치 평가체계 수립 및 사회적 경제 도입방안 연구	류정곤

2017년

01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해운물류환경변화와 정책대응 방안	박용안
02	해양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홍장원
03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	황진희
04	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5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장홍석
06	한·중·일 신선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7	연안항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8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 - 갯벌어업 패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09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홍현표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미얀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연구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인증을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항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수산식품·가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17년

01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한계 및 발전방향	전형진
02	한투발루 협력 증진을 위한 참다랑어 외해양식 투자의 타당성 분석	마창모
03	AMP 설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연구	이연경
04	해외 진출 무역업체의 한국인 포워더 수요 추정 연구	신수용
05	선박교통관제(VTS)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박한선
06	부산 영도구·중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한진중공업·자갈치시장 사례 중심-	최나영환
07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이현동
08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주요국 해운정책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고병욱
09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부산 원도심 및 영도지역 사례 분석-	최지연
10	갯벌 복원 수요 확대에 따른 복원 표준모형 개발 방향	육근형
11	항만보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김찬호
12	전자상거래 기반 상업항 개발전략	최상희
13	항만 내 여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광석
14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과 부산항 신항 환적 운영 개선 방향 연구	김은수
15	PA관할 항만 항계 확장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분담기준 마련	김근섭
16	페루 수산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정명화
17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현대송
18	부산항 신항 혼합형 전용터미널(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김근섭
19	해양경비 여건 분석과 역량 강화 방안	윤성순
20	바닷모래의 이용실태와 관리 개선방향	윤성순
21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사례 및 시사점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황진희
22	한국 컨테이너선대 육성의 필요성	김태일
23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한광석
24	우리나라 항만산업 고용통계 조사 연구	하태영
25	뉴질랜드·노르웨이의 양식 수산물 수출 전략	임경희
26	빅데이터 적용 해운항만산업 연구분석 우선순위 연구	최종희
27	해양수산 생명자원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
28	미·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임경희
29	도시-어촌 상생협력 인식도 조사	이상철

30	크루즈산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책과제	황진희
31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김태일
32	우리나라의 배출규제해역(ECA) 도입 방안 연구	이기열
33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강화에 따른 항만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심기섭
34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및 고용효과 분석	박광서
35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방안	안용성
36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홍장원
37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 방안	김경신
38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평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신수용
39	2018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40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 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박상우
41	4차 산업혁명시대 항만물류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이언경
42	원양어선 승무 선원의 스트레스 분석에 관한 연구	이승우
4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 경제특구 발전 방향	박성준
44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무인도서 기초정보 개선 연구	정지호
45	세계경영을 위한 해외 터미널 및 물류시설 투자방안	박주동
46	연안 소규모 하·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원근
47	거대선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 방향	전형진
48	해양법 관련 최근 판례 및 동향 분석 - 남중국해 분쟁 등 해양법 판례 중심 -	최지현
49	화주 관점의 항만배후단지 역할 제고 방향	김은수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 소규모 항·포구 개선사업 -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동향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인 쇄 | 2018년 12월 29일 인쇄

발 행 | 2018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양 창 호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효민디앤피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15,000원